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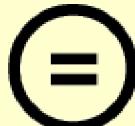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연구

- 업신앙의 제주도 이입과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 김 현 선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호 성



#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연구

- 업신양의 제주도 이입과정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호 성



김 호 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8년 6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 차 .....	ii
사진목차 .....	iii
논문개요 .....	iv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II. 「칠성본풀이」의 자료 존재 양상과 분석 .....	10
1. 자료의 존재 양상 .....	10
2. 서사 단락의 전개 .....	15
3. 「칠성본풀이」 서사 단락 분석 .....	24
III. 「칠성본풀이」의 신화-의례적 성격 .....	42
IV. 뱜 송양의 긍정과 부정 설화 .....	50
1.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뱜굴」, 「선묘설화」 서사단락 정리 .....	50
2. 뱜신앙의 중세적 변이 양상 .....	54
V. 결 론 .....	60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Abstract .....	108

## 표 목 차

<표 1> 「칠성본풀이」 자료 현황	10
<표 2> 「칠성본풀이」 자료별 서사 단락 정리	17
<표 3> 「칠성본풀이」 시간과 공간 변화에 따른 서사구조	30

## 사진 목 차

<사진 1> 안고팡 .....	43
<사진 2> 안칠성 .....	43
<사진 3> 칠성놀곱의 예전 모습 .....	43
<사진 4> 밧칠성 .....	43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칠성본풀이」의 복합적 성격을 해명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도 12본풀이로 분류되는 「칠성본풀이」는 뱠신격의 탄생과 이동, 좌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본풀이다. 현재도 제주도의 특수한 가옥구조인 안고꽝과 밗고꽝에 모셔져서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 뱠신양의 형성과 정착, 현재의 전승의 모습을 알 수 있어 소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칠성본풀이」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서 문제적이다. 「칠성본풀이」의 복합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선행 연구에서 이견이 제시되어 학계의 논쟁으로 남았다. 「칠성본풀이」의 복합성은 정리하면 서사, 의례, 신앙으로 구분해서 파악 가능하다.

「칠성본풀이」의 서사적 복합성은 일반신본풀이로 분류되지만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서사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는 서사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신격의 탄생과 이동, 좌정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의 틀임을 확인했다. 「칠성본풀이」 서사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 이동이 고정적으로 전승된다는 사실에 있다. 「칠성본풀이」는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격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이다.

「칠성본풀이」의 의례적 복합성은 서사에서 합덕 마을 주민이 지내는 의례의 대상이며, 송대감집에서 지내는 의례의 대상, 제주목(濟州牧)에서 지내는 의례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의례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속의례로서만 연행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칠성본풀이」는 현재는 심방이라는 특수한 사제가 담당하는 무속의례로 전승되지만 근저는 가정신앙임을 확인하였다.

「칠성본풀이」의 신앙적 복합성은 칠성은 뱠의 형상을 한 뱠신격이지만 도교의 칠성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논의를 통해 칠성신은 이름만 차용되었을 뿐, 실제 신격인 뱠신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뱠신양이 중세 종교인 도교와 혼합된 양상을 제주도의 다른 뱠신양에 관련된 설화인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과 「김녕사굴」, 육지의 「선묘설화」와 비교를 통해 파악했다. 뱠신양에 관련된 설화에서 중세와 대립되는 양상이 동일하게 발견되고, 대립의 결과에 따라 뱠신양의 지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 I. 서 론

## 1. 연구 목적

신화에서 뱼은 주요한 대상이다. 허물을 벗는 특별한 행위와 치유력, 생식력, 맹독으로 자연신앙에서 숭상의 대상이었다. 자연신앙 이후에 신을 인격화시키는 단계에서 발생한 많은 신화에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이거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뱼에 대한 신화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는 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성욕이나, 부정(不正), 거짓의 상징이며, 공포의 대상이다. 현대의 문명화 과정에서 생활공간의 변화로 뱼과의 공존 관계도 변화하였다. 뱼은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고, 삶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에도 뱼을 숭상하는 신화와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특별한 사례가 존재한다. 제주도에서는 뱼의 형상을 한 신격의 내력을 전하는 「칠성본풀이」를 전승하고, 그 신격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뱼을 신격화하여 집안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다. 현재에는 그 전승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전승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례에 대한 희소가치가 인정되어 최근 학계에 연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연속된 연구에서 그 이전의 연구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칠성본풀이」관련 연구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논쟁의 요점은 「칠성본풀이」의 복합적인 성격에 있다. 일반신본풀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내용과 연계된다. 그리고 육지에서 제주도로 특정한 신인 뱼이 입도하고 숭앙되어 집안과 제주목(濟州牧)에 좌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뱼을 숭상하는 신격적 특징과 함께 도교의 칠성신 신앙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격을 지닌다.

「칠성본풀이」의 서사에서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서사가 모두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해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와 조상신본풀이를 중심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칠성본풀이」의 복합적 성격 때문에 「칠성본풀이」를 일반신본풀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일반신본풀이 성격으로 문제가 있다 고만 지적하였다. 이를 논의하거나 서사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칠성본풀이」의 일반신본풀이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칠성본풀이」의 서사적 복합성은 서사의 틀로서만 작용함을 확인하고, 「칠성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화적 성격에서 찾기로 한다. 「칠성본풀이」가 고대 신화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비교적 후대의 신화적 성격을 통해 생성된 신화로서 일반신본풀이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칠성본풀이」가 구연되는 의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신화는 의례와 상관성 없이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신화는 의례 확립의 핵심적 구비문서이고 의례는 신앙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전승되는 의례를 통해 「칠성본풀이」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뱠신앙의 현상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뱠을 숭상하는 신격과 도교의 칠성이 결합되는 양상을 비교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주도에는 「칠성본풀이」 이외에도 뱠에 관련된 본풀이와 설화가 전승된다. 그런데 뱠을 숭상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해서 제주도 내에서도 다면적인 형태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당신본풀이인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과 「김녕사굴」이 있다.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과 「김녕사굴」에서 등장하는 뱠은 칠성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과 「김녕사굴」에서도 외부의 존재와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주도 설화뿐만 아니라 육지의 「선묘설화」도 뱠과 관련된 인물과 외부의 존재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 「김녕사굴」뿐만 아니라 육지의 「선묘설화」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뱠과 관련된 서사에서 뱠신앙과 중세와의 대립이 중요한 양상임을 확인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칠성본풀이」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칠성본풀이」의 서사에서 확인되는 복합성을 세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지만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와 동일한 서사가 존재하는 서사적 복합성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 힘덕 마을에 마을사람들부터 시작되어, 송대감집, 제주목에서도 모셔지는 의례적 복합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뱠신격이기 때문에 뱠신이지만 칠성이라 불려 도교의 칠성신앙이 합쳐져 있는 신앙적 복합성이 있다.

이러한 「칠성본풀이」의 복합성에 대해서 선행연구와는 달리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을 확인하여 일반신본풀이로 자리 잡은 현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사에서와는 달리 가정신앙으로만 의례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뱀신양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에서 뱀신양과 중세의 대립이 보편적 양상임을 확인하기로 한다.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뱀신과 칠성의 결합 양상이 뱀신양과 중세의 관계 속에서 발전된 서사임을 논증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화는 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후대에도 재창출하였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신화의 서사구조나 신화적 상상력을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전승되었고,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로 한다. 신화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연구를 목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신양의 형태라고 여겨지는 자연신양인 뱀신양이 제주도에 아직까지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신양인 뱀신양은 온전히 전승되지 못하고 중세와 대립되거나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뱀신양이 승상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다. 서사에서 토착의 자연신양과 외래의 중세신양이 대립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인간에게 신양이 서로 대립되거나 다른 신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유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칠성본풀이」는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집적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뱀신양에 관한 민속 연구는 이를 시기부터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칠성본풀이」 서사를 함께 살핀 첫 연구는 현용준, 현승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용준, 현승환은 뱀신화의 분석을 기반으로 제주도의 사신신양(蛇神信仰)의 원천과 변천과정을 추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신신양의 실태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뱀신화는 무속의례에서 심방이 구연하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모두에 전승되고 있는데 서사를 서로 공유하며 신양은 범위만 다르지 본원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sup>1)</sup> 본래는 용사신양(龍蛇信仰)에서 유래된 풍농신신양(豐農神信仰)이 현재의 사신신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았다.

일반신으로서 칠성도 풍농신신양이기에 민간에서 모셔지다가 관청관계신(官廳關係神)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리고 후대에 들어온 사신(蛇神)들은 조상신으로 머물거나 확대되어 당신으로 위해졌을 것이라 판단했다.

1) 심방은 제주도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신(神)의 성방(刑房)'을 축약하여 신방(神房)이라고 한다. 또한, 심방은 스스로를 '신의 아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 제주도 사신신앙은 우리나라 본토 업신앙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양쪽 모두 본래 용사신앙인 풍농신신앙이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안칠성과 밧칠성도 본토의 조상단지나 터줏가리로 동일한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통지권자인 관의 신앙까지 확대되고 섬 전체의 퍼져 아직까지 생생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제주도만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했다.

당대의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통계를 근거로 뱀신앙이 제주도 전 지역에 퍼져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특별히 토산 오드랫당신은 모계전승이 중심이 되어 타 지역에서 토산 지역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뱀신앙이 본래 용사신앙과 관련된, 농경·풍경신임을 제주도민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칠성본풀이」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사신(蛇神) 출생에 대해 기불출생(祈佛出生) 이본(異本)이 많지만 칠성이라 부르는 근거가 되는 칠성기도(七星祈禱)를 원형으로 보았다. 기불출생과 칠성기도 두 단락 모두 사신신화(蛇神神話)가 개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석함축출(石函逐出), 뱀신변신(蛇身變身), 표착화소(漂着話素)은 고대적 화소로 보았다. 후대적 변이가 있지만 사신신화는 고대적 모티프를 포함한 오래된 이야기라 추론하였다.<sup>2)</sup>

현용준, 현승환의 연구는 최초로 제주도의 뱀신앙을 뱀신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명하려고 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일반신본풀이인 「칠성본풀이」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와 동일한 서사를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동일한 사신(蛇神)신앙임을 밝혔다. 육지의 업가리신앙과 연관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를 기반으로 당대의 뱀신앙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그러나 선도적 연구임으로 일정한 문제점이나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사신신앙이 용사신앙에서 비롯된 선후관계로 보았다. 현재 학계에서는 용신앙이 뱀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고대의 뱀신앙에서 이미 뱀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용신앙이 풍농신신앙이기 때문에 제주도 뱀신앙도 용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추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육지의 업신앙과 제주도의 뱀신앙의 동일점만을 보아 서로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지 않아 중요한 차이점과 제주도 뱀신앙만의 특별

2) 현용준·현승환, 제주도(濟州島) 뱀신화(神話)와 신앙(信仰) 연구(研究),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성을 확인지 않았다. 육지의 업신양과 제주도의 뱌신양이 모두 용신양에서 비롯된 것 또한 아니고 육지의 업신양의 대상은 뱌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있다.

「칠성본풀이」를 고대적인 모티프를 보유한 서사로 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과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 모두 후대 변화로 본다면 그 가운데 칠성제를 원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칠성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와 동일성만 거론하였지 차이점과 「칠성본풀이」만의 특성을 제대로 규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칠성본풀이」의 복합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는 김현선과 변숙자, 허남춘, 강소전에 의해서 이어졌다. 그러나 일정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해명해야 한다.

김현선은 「칠성본풀이」를 본토의 업신양이 제주도로 유입되어 정착되는 과정과 제주도의 토착신과 외지에서 들어온 신의 상호갈등을 보여주는 신화적 의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월정본향본풀이」의 서사비교를 통해 후반부는 상이하나 전반부의 동일성을 근거로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일반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서사라고 이해했다.

복잡한 칠성신앙에 대해서는 천상에서 내려와 지상, 해상, 지상의 과정을 겪는 ‘천상의 칠성신앙’과 지상에서 해상, 지상으로 수평적 세계관의 제주도 본풀이의 ‘지상의 칠성신앙’이 결합된 특별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sup>3)</sup>

김현선의 연구는 「칠성본풀이」의 복합적인 성격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육지의 신앙적 복합과 유입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칠성본풀이」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여성이 뱌이 된다는 사고가 신화적 발상임을 논의한 부분도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여러 신화와 비교함으로써 서사구조를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단락의 신화적 의미를 규명했다. 서사를 통해 제주도의 신앙의 형태까지 규명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김현선은 「칠성본풀이」를 당신본풀이의 일정한 간섭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칠성본풀이」가 당신본풀이의 전형적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당신본풀이뿐만 아니라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일반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과 동일

---

3) 김현선, 「칠성본풀이」의 본출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한 단락을 정리하였지만 「칠성본풀이」에서 일빈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의 성격과 반영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이 뱌이 되는 화소와 무쇠석함 화소를 당신본풀이의 성격으로 보았다. 앞서 현용준, 현승환은 석함축출(石函逐出), 뱌신변신(蛇身變身), 표착화소(漂着話素)은 고대적 화소로 규정했다. 김현선의 연구에서도 신화적 발상이며, 신화와 서사시의 전통적 서사문법이라고 인정했다. 보편성을 갖는 신화적 사고와 서사구조를 당신본풀이로 규정한 문제점이 있다. 보편적 신화적 사고와 서사구조가 당신본풀이에서 많이 확인되니 보편적 신화적 사고와 서사구조가 확인되는 「칠성본풀이」도 당신본풀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논리적 오류가 있다.

「칠성본풀이」의 서사가 당신본풀이와 비슷하여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칠성본풀이」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일반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도 확인하여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가 어떠한 기능과 성격을 부여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신화적 사고와 구조는 고대 신화의 화소임을 인지하고 「칠성본풀이」의 서사를 논의하여야 한다.

변숙자는 「칠성본풀이」를 사신신앙이 아닌 칠성신앙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칠성본풀이」의 서사에서는 탄생 과정을 칠성기자형(七星祈子形)과 사찰기자형(寺刹祈子形)으로 구분하여, 칠성기자형에서 확인되는 칠성신앙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탄생 이후에는 칠성신앙 보다는 사신신앙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보아, 「칠성본풀이」를 칠성신화에서 사신신앙에 치중된 변이형으로 보았다. 제주도 전역에 사신신앙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강한 영향력 때문에 칠성신앙이 확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칠성신앙을 고대 신앙이기에 사신신앙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그런데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이 풍요신의 관점에서 천연성을 가져 합쳐진 것으로 판단했다. 「칠성본풀이」가 사신신앙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기저에 칠성신앙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숙자의 연구는 이전 「칠성본풀이」 연구와 달리 사신신앙 측면이 아닌 칠성신앙 측면을 연구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사신신앙과 칠성신앙의 융합 과정을 추론하고, 「칠성본풀이」를 새롭게 인식하려고 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칠성신앙 측면에 집중해서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신앙적 측면이 강한 단락만을 선정하여 부분적인 서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칠성본풀이」 탄생담을 칠성기자형

과 사찰기자형으로 구분하였지만 두 유형의 상관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칠성기자형과 사찰기자형 가운데 어느 쪽을 원형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찰기자형의 성격과 의미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칠성신앙만 고대 신앙으로 보아 사신신앙보다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뱠신앙도 고대 신앙으로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 그러므로 칠성신앙이 먼저 자리를 잡고 이후에 뱠신앙이 결합되어 「칠성본풀이」의 기저에 칠성신앙이 있다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칠성본풀이」는 뱠신앙이 핵심임을 인지하고 칠성신앙이 결합을 해명해야 한다.

허남준은 육지의 신화와 제주의 신화를 다르게 보는 시각에서 「칠성본풀이」를 설명했다. 육지와 북방은 태양상징의 강력한 왕권이었다면 제주와 남방은 해와 달을 포함한 별신앙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칠성신앙은 오래되었고, 제주를 다스리던 왕 ‘성주(星主)’에서 북두칠성이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땅으로 내려와 천문학이 지문학과 인문학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한다.

부군칠성에서 부군(府君)은 칠성애기 자식들이 좌정 위치가 관청의 여러 건물이여서 상정된 것으로 보았다. 부군에 해당하는 것은 칠성신들 중 제주목의 건물에 좌정한 나머지 딸들의 신격만 해당한다고 했다. 관부(官府)의 신을 부군(府君)이라고 하는 서울의 부군당 신앙에서 유례를 찾았다.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로 분류되지만 일월조상신 성격이 강해 조상신본풀이의 흔적이 확인된다고 했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가 풍요신격과 집안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칠성본풀이」는 중복되는 신격임으로 후대에 추가되었거나 북두칠성과 관련된 본풀이의 대체라고 추측했다.

또 허남준은 육지에서 뱠신이 들어오는 서사를 중심으로 「칠성본풀이」를 이해했다. 제주도에 토착적인 뱠신앙이 있었음을 문헌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송대장이 가져온 신앙 또는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를 통해 외부에서 뱠신앙이 새롭게 유입되는 계기가 되어 뱠신앙이 강화된 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조상신본풀이가 당신본풀이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칠성본풀이」는 기존 뱠신앙에 외부의 뱠신앙이 더해지고, 부군신앙까지 합쳐진 복합적인 신앙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칠성본풀이」의 신앙은 뱠이었기에 칠성신의 권위를 통해 일반신으로 발전되어 제주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했다.<sup>4)</sup>

4) 허남준,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뱠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칠성본풀이」의 근원과 발달과정을 여러 역사문헌에 근거하여 추론하여 밝힌 가치가 있다. 역사와 문헌을 토대로 천문에서 지문, 지문에서 인문으로 전환이란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제주도의 뱜신양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자료를 통해 증명했지만 「칠성본풀이」에서 제주도 토착의 뱜신양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칠성본풀이」 서사에서 제주도 토착의 뱜신양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외부에서 온 뱜신양만이 확인된다.

강소전은 뱜과 관련되어 내려오는 칠성관련 본풀이를 조상신본풀이 9편, 당신본풀이 3편, 일반신본풀이는 1종류이나 각편은 모두 11편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양상을 따라 조상신, 조상신과 당신, 당신, 당신과 일반신, 조상신과 당신 및 일반신의 성격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조상신 성격이 강할수록 칠성은 뱜 단독으로 나타나고 일반신 성격이 강할수록 뱛에다 북두칠성의 양상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조상신으로 출발하여 당신으로 확대되다가 보편적인 일반신으로 그 성격이 진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다.

칠성 조상신은 고팽에 좌정하여 일월조상의 면모를 가지고 부와 복을 주고, 당신 칠성은 조상당에 출발하여 생업과 관련이 있고 확대되어 관청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일반신으로서 칠성은 자신의 면모를 보여주고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분화하여 가정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칠성은 뱛이라는 단일 성격인데, 밧칠성은 토산 뱛, 토신, 북두칠성 등 복합적인 신양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부분이라고 했다.

역사 문헌을 통해서 제주도에 칠성보다 뱛에 대한 신양이 더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뱛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뱛 신양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자 북두칠성 신양을 활용하여 뱛에 칠성이라는 외괴를 씌웠다고 추론하였다.<sup>5)</sup>

강소전의 연구는 「칠성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칠성이라고 인식되는 뱜신양에 대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를 통합적으로 비교 연구한 의미를 갖는다. 조상신 성격이 강할수록 뱛 단독으로 나타나고 일반신 성격이 강할수록 배에 북두칠성이 추가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안고팡과 밧고팡의 성격의 구분하여 해명한 것은 이전 연구에서 이루지 못한 진척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칠성본풀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선행연구

5) 강소전,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에서 「칠성본풀이」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매우 주목받을 만한 자료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칠성본풀이」의 육지와 관계가 인정되나 제주도적 각별함이 있는 본풀이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양적 다면성과 다층위성을 보여준다는 점과 제주도 신화의 형성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칠성본풀이」연구에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해명하지 못했거나 대립되는 이견이 있어 해명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관계와 성격이다. 김현선은 「칠성본풀이」를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일반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나 허남춘과 강소전은 조상신본풀이에서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로 발전된 진화론적인 형태로 본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칠성본풀이」의 전체 서사를 분석하지 않았고, 특정 부분에서 확인되는 성격만 거론하였다. 「칠성본풀이」전체 서사를 살펴,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사에서 내포하는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밝혀야 한다.

서사 분석 과정에서 서사 단락이나 화소에 대한 부분적인 이견이나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고대 화소의 사용이 갖는 의미가 무언인지 확인해야 한다. 칠성애기 탄생과정에서 칠성제를 드리는 이야기와 원불수륙을 드리는 이야기의 관계와 원형에 대한 추론도 이루어져야 한다. 「칠성본풀이」에는 제주도 토착의 뱜신앙이 아닌 외래의 뱜신앙만이 확인된다는 사실도 논증해야 한다.

그리고 뱜신앙과 칠성신앙의 결합을 해명해야 한다. 「칠성본풀이」에 뱜신앙은 칠성신앙이 덧붙여져서 제주 전역에 퍼지고 일반신으로 송상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내에 뱜신앙이 송상되는 이야기와 달리 배척되는 이야기도 함께 존재한다. 뱜신앙이 배척되는 이야기와 비교연구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뱜이 배척되는 이야기와 비교를 통해 「칠성본풀이」의 뱜신앙이 칠성신앙과 결합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 II. 「칠성본풀이」의 자료 존재 양상과 분석

II장에서는 「칠성본풀이」의 자료 존재 양상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서사단락 정리와 분석을 목표로 한다. 구전되는 자료와 함께 문헌으로 기록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논의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자료의 존재 양상

「칠성본풀이」는 15편의 자료가 존재한다. 12편은 심방이 구연한 것을 채록한 자료이고, 2편은 심방이 직접 쓴 필사 자료, 1편은 영상 자료이다. 15편의 자료 전부가 심방에게 조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1편의 자료를 강소전이 정리한 바 있어<sup>6)</sup>, 이를 참고삼고 4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칠성본풀이」 자료 현황

연번	자료명	구연자	자료 수록지	출판사	조사자	비고
1	칠성본풀리 (七星本解)	박봉춘	조선무속의 연구(상) (325~328쪽)	동문선 (1991)	秋葉隆 赤松智城	
2	칠성본	이무생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46~155쪽)	민속원 (1991)	진성기	
3	칠성본	고창학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55~161쪽)	민속원 (1991)	진성기	
4	칠성본풀이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350~358쪽)	각 (2007)	현용준	
5	칠성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02~210쪽)	역락 (2001)	장주근	
6	칠성본	문정봉	風俗巫音(上) (401~430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문창현	필사본
7	칠성본풀이	한생소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 (327~352쪽)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무병	
8	칠성본풀이	이중춘	동북 정병춘댁 시왕맞이 (595~604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강정식 외	

6) 강소전, 앞의 논문, p.199.

9	칠성본풀이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360~390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10	칠성본풀이	양창보	양창보 심방 본풀이 (285~307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허남춘 외	
11	칠성본풀이	강대원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부침 맹감코시	김현선 소장 (2011)	김현선	영상 자료
12	칠성본풀이	고순안	고순안 심방 본풀이 (349~372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허남춘 외	
13	칠성본풀이	서순실	서순실 심방 본풀이 (315~336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허남춘 외	
14	칠성본풀이	강대원	채록	이현정 제공 (2017)	허남춘 외	미발표 자료
15	부군, 칠사신본	강대원	강대원 필사본	부록첨부	김호성	필사본

자료1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에 의해 조사된 자료이다. 박봉춘 심방이 구연한 것을 일본어로 번역했었던 자료이다.『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는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37년 발간되었다.<sup>7)</sup> 「칠성본풀이」는 그 중 상권 7장 제주도신가(濟州島神歌)에 14번째 자료이다.

자료1은 현재 가장 오래된 「칠성본풀이」자료이며, 다른 자료에 비해 조사된 시기가 훨씬 앞선다.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인에 의해 조사된 자료이다. 부모님이 벼슬살이를 간 것이 아니라 유람을 가거나 칠성애기가 숲이 아닌 굴에서 길을 잊고, 함에 야광주를 넣었다는 독자적인 신화소가 있어 특별하다.

자료2, 3은 진성기에 의해 조사된 자료이다. 자료2, 3은 순서대로 이무생 심방과 고창학 심방에 의해서 구연된 본풀이의 채록 자료이다.『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은 진성기가 1956년 3월부터 1963년 7월까지 제주도 전역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저서이다.<sup>8)</sup> 일반신본풀이로 분류되어 「칠성본」이란 제목으로 자료2, 3이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7) 아키바 다카시 · 아카마쓰 지조, 심우정 역,『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상(上), 동문선, 1991.

8) 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두 자료는 같은 저서에 수록되어 있고 줄거리도 같다. 그러나 인물의 이름과 행동에 대한 표현, 사용하는 구비공식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자적인 자료이다. 자료2는 유일하게 칠성애기가 제주도의 입도한 장소가 김녕으로 되어 있다.

자료4는 현용준에 의해 조사된 자료이다. 안사인 심방에 의해 구연된 본풀이의 채록 자료이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1962년도에 탈고되어 1980년에 발간되었다.<sup>9)</sup>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기존의 자료집과는 다르게 굿의 재차에 맞춰서 기술하여 본풀이와 의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가 큰굿이나 성주풀이에 각도비념에서 연행되며, 맹감이나 칠성새남, 철갈이(벨롱갱이)와 같은 작은 굿에서도 연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칠성제나 불듯제에서는 「칠성본풀이」가 연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0)</sup>

이전 자료와는 다르게 칠성애기가 칠성제를 지내서가 아니라 원불수륙을 드려서 탄생한 걸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함덕의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을 위해 전새남을 하는 인물이 실존했던 이원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관원이 행차할 때 칠성애기와 자식들에게 침을 뱉어 벌을 받고 전새남을 하는 내용이 있어 「칠성본풀이」와 관청(官廳)과 연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자료5는 장주근에 의해 조사된 자료이다.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는 2001년 발행되었다.<sup>11)</sup> 일반신본풀이는 전부 고대중 심방에 의해 구연되어, 「칠성본풀이」도 고대중 심방이 구연한 것을 채록한 자료이다. 구연자의 정보와 채록일(1962년 8월)까지 명확히 기재된 자료이다.

칠성애기가 담긴 무쇠석함이 제주도 주변 해안을 표류하는 과정과 제주도에 입도한 칠성애기와 자식들이 함덕을 떠나 제주성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상세하다. 다른 자료에 비해 이동하는 지명을 상세히 열거한다. 칠성애기 이동경로에 대해 자세히 표현된 자료이다.

자료6은 문정봉 심방이 필사한 자료이다. 문창현이 조사하여 1994년 발간된 『풍속 무음(風俗巫音)』의 상(上)권에 수록하였다.<sup>12)</sup> 자료6은 한글표기와 한자표기를 병행한 특징이 있다. 올바른 한자 표기도 있지만 한글표기에 맞춰 의미에 맞지 않으나 음이

9) 1980년도에 첫 발간되었지만 2007년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개정판을 기준으로 자료를 삼고자 한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10) 지역에 따라서 불도맞이에서 칠원성군을 모시며 「칠성본풀이」를 구연하기도 한다.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p.357.

1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 제주문화 편집부, 『風俗巫音』,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같은 한자를 병기해서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자표기가 중심이 아니라 한글표기에 맞춰서 한자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7은 한생소가 구연하고 문무병이 조사한 채록 자료이다. KBS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생소의 구연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를 문헌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제주도 칠머리당굿보존회의 지원으로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을 출판하였다.<sup>13)</sup> 녹음을 위해서 마련된 인공조건에서 구연되었다.

장설용 대감과 송설용 부인이 대사를 만나서 원불수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불수록을 드리면서 대사를 만나게 된다. 원불수록을 드리다가 현몽하여 칠성얘기를 임태한다. 다른 자료와는 달리 원불수록의 과정이 자세히 서술되는 특징이 있다.

자료8은 이중춘이 구연하고 강정식, 강소전, 송정희가 정리하여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에 수록한 자료이다.<sup>14)</sup> 2006년 조천읍에 소재한 굿당에서 사흘간의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시왕맞이」굿을 중심으로 연행된 굿이다. 서순실이 수심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중춘, 고복자, 강순선 등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 「칠성본풀이」는 셋째 날 이중춘이 구연하였다.

칠성얘기가 부모가 벼슬을 떠나고 나자 특별한 사건이 없이 몸이 뱀으로 변한 것으로 되었다. 칠성얘기 몸이 뱀으로 변하고 그 이후, 집에서 사라졌다가 대사에 의해서 구출된다. 칠성얘기 몸이 뱀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다른 자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자료8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에서는 뱀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동일하고, 칠성얘기 몸이 뱀으로 변하는 과정의 개연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구연자의 실수에 의한 변이가 아닌지 의심된다.

자료9, 자료10, 자료12, 자료13, 자료14은 제주대학교 허남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의 결과물이다. 조사팀은 심방을 선정하여 심방이 구전하는 본풀이를 모아 저작으로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4개의 저작, 『이용옥 심방 본풀이』, 『양창보 심방 본풀이』, 『고순안 심방 본풀이』, 『서순실 심방 본풀이』가 출간되었다.<sup>15)</sup> 자

13)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4)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5)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이후 인용 시 『이용옥』, 『양창보』, 『고순안』, 『서순실』로 약칭한다.)

자료9는 『이용옥 심방 본풀이』, 자료10은 『양창보 심방 본풀이』, 자료12는 『고순안 심방 본풀이』, 자료13은 『서순실 심방 본풀이』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자료14는 아직 단행본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팀의 일원인 제주대 이현정에 의해서 채록되었다.

자료11은 강대원 심방이 구연하고 김현선이 촬영한 자료이다. 2011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진행된 「맹감코시」를 녹화한 자료이다. 상차림과 같은 준비과정부터 「맹감코시」의 전체적인 연행 현장이 기록되어 있다. 「맹감코시」는 강대원 심방과 고행선 심방이 진행하였는데, 「칠성본풀이」는 강대원 심방이 구연하였다.

자료15는 강대원 심방 인터뷰에서 얻은 자료이다.<sup>16)</sup> 강대원 심방에게 평소 자신이 아는 본풀이를 글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어 적어두었던 것을 조사팀에게 제공하였다. 강대원 심방은 채록본은 구연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 온전한 자료로 소개하였다. 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칠성본풀이」가 아닌 「부군, 칠사신본」으로 되어있다. ‘칠사신’이란 ‘칠성사신’의 오기가 아닐까 짐작된다.

자료11과 자료14, 자료15는 다른 자료와는 다르게 동일인물에게 조사된 자료이다. 같은 인물에게 조사된 자료이지만 자료11은 구연자가 구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자료이고, 자료14은 구연한 것을 채록한 자료, 자료15는 심방이 직접 필사한 자료라는 차이점이 있다. 자료11은 본풀이가 구연되는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가치 있다. 자료14은 구연된 자료이기 때문에 서사무가인 본풀이로서 성격에 부합한다는 가치를 지닌다. 자료15는 구연되면서 누락되는 서사가 없다는 가치가 있다. 세 자료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자료1-10, 자료12는 강소전이 조사된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자료11은 언급되지 않았다. 자료13, 14, 15는 강소전의 연구가 발표된 후에 조사된 자료이다. 아직까지 연구 대상으로 살펴지지 않은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보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자료는 조사된 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료1은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자료2-7은 해방 이후인 60-90년대, 자료8-14는 2000년대-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이다. 「칠성본풀이」는 처음 민속조사가 시작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조사되고 있는 대상이다. 「칠성본풀이」의 전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도 지역 안에서 중요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2018년 3월 24일에 이루어진 김호성과 다른 제자가 동행한 김현선의 강대원 심방과의 인터뷰이다. 강대원 심방의 자택에서, 영등굿과 칠성신앙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조사 자료인 자료8-14는 학술자료로 사용되거나 저서로 발간된다는 사실을 구연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제주도 본풀이가 중요한 자료로서 집중되었고, 선행 연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구연자인 심방 또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구연되어, 구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전승하고자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자료14의 경우에는 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후에 교수님들에게 다시 설명하겠다고 구연하기도 했다.

자료6과 자료15는 심방이 직접 필사한 자료이고, 그 외 자료는 구연하거나 구연한 것을 채록한 자료이다. 「칠성본풀이」는 서사무가이기 때문에 구비전승(oral tradition)이 기본 형태이다. 그런데 자료6과 자료15는 심방이 구전이 아닌 문헌으로 자료를 제공한 특별한 경우이다. 구비전승뿐만 아니라 심방들에게 문헌전승(written tradition)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1-14의 명칭은 사실상 ‘칠성본풀이’로 동일하다. 자료1은 일본어로 소개되면서 ‘七星本解’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칠성본풀이’를 번역한 표기이고, ‘칠성본’은 ‘칠성본풀이’의 축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15만 강대원 심방에 의해 ‘부군, 칠사신본’으로 명명되었다. ‘칠성’보다는 ‘부군(富君)’과 ‘사신(蛇神)’으로 부(富)와 뱀의 면모가 부각된 명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부 심방에게 조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사된 심방에 제주도 북부와 남부, 동편과 서편의 구분이 없다. 때문에 「칠성본풀이」가 제주도 전역에 전승되며, 심방에 의해 구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서사 단락의 전개

「칠성본풀이」의 서사 단락 정리를 우선한다. 총 15편의 자료의 서사는 대동소이하다. 전체적인 서사는 동일하고 일부 단락이 누락되었거나 보강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전체 서사 단락을 정리하고 각 단락이 자료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정리하기로 한다.

- 1) 강남국(장나라)에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부유(가난)하게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였다.
  - 2A-1) 칠성제를 드려 하늘의 칠성 성군이 내려와서 제를 받는데 성군 중 한 명이 늦게 와서 떡을 숨기고 다음날 수제자를 통해 돌려주면서 두 부부의 눈을 멀게 한다.
  - 2A-2)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역적으로 몰려서 가문이 멀하게 된 두 부부는 장님이란 이

유로 위기를 벗어가게 된다.

2A-3) 두 부부는 다시 칠성제를 드려서 칠성애기를 낳는다.

2B-1) 두 부부는 시권제를 받으러온 대사(大師)에게 물어서 원불수룩을 들여서 칠성애기를 낳는다.

3) 칠성애기가 자라던 중 두 부부에게 각각 벼슬을 살려오라는 서신이 온다.

4)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테려갈 수 없다며 칠성애기를 가두고 두 부부는 떠난다.

5) 몰래 따라 나온 칠성애기가 두 부모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다.

6) 밤이 깊어 칠성애기가 울고 있던 중 세 대사가 지나가다가 세 번째 대사가 칠성애기를 알아보고 칠성애기를 품에 넣어서 테려간다.

7) 장성룡 대감이 칠성애기를 찾지 못하다가 꿈을 꾸고 대사를 기다린다.

8) 대사는 칠성애기를 오장삼에 감싸서 말팡돌(下馬石) 아래 묻어두고 대감 집에 시권제를 받으러 간다.

9) 대사는 대감의 부탁으로 단수육갑을 짚고서 칠성애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화가 난 대감을 피해 사라진다.

10) 칠성애기를 찾았으나 뱌의 모습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있어 두 부부는 죽이는 대신 무쇠석함에 담아서 바다에 버리기로 한다.

11) 무쇠석함은 동해, 서해를 떠돌다가 세월이 흘러서 제주도까지 떠내려간다.

12) 무쇠석함은 본향신들이 세서 들어가지 못하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다가 함덕으로 올라간다.

13) 일곱 잠수가 물질을 하려 가다가 무쇠석함을 보고 서로 자신이 주웠다고 다투다.

14) 송 노인(송동지, 송 하르방, 송침지, 김첨지, 강당장)이 싸움을 중재하여 내용물은 일곱 잠수가 서로 나누어 갖고 무쇠석함은 자신이 갖기로 하고 함을 연다.

15) 무쇠석함 안에 뱌 8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더럽다며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떠난다.

16) 일곱 잠수는 물질을 해도 소득이 없고,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17)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심방을 찾아 궂을 하고 칠성애기와 자식들을 위하자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

18)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모시기 시작한다.

19) 함덕에 당신(堂神)이 위협하여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도성 안으로 이동한다.

20)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 허물을 벗고 다시 이동한다.

21) 칠성굴에 들어서자 칠성애기와 자식들을 송대장집 며느리(어머니, 할머니)가 치마폭으로 품어서 집안으로 옮긴다.

22)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좌정처를 정해서 좌정한다.

「칠성본풀이」의 핵심적인 서사를 정리하면 위와 같다. 칠성애기의 탄생에 관련된 단락 2)만 칠성제를 드리는 A형과 원불수륙을 드리는 B형으로 구분되고, 나머지 서사는 누락되거나 간략하게 된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다. 이러한 서사 단락을 기준으로 각 자료별로 서사 단락의 유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칠성본풀이」 자료별 서사 단락 정리

자료번호 서사 단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강남국소개	+	+	+	+	+	+	+	+	+	+	+	+	+	+	+
칠성제	+	+	+	-	-	+	-	-	-	+	-	-	-	-	-
원불수륙	-	-	-	+	+	-	+	+	+	-	+	+	+	+	+
부모 벼슬살이	+	+	+	+	+	+	+	+	+	+	+	+	+	+	+
칠성애기 길 잊음	+	+	+	+	+	+	+	+	+	+	+	+	+	+	+
대사와 결합	+	+	+	+	+	+	+	+	+	+	+	+	+	+	+
대사방문	+	+	+	+	+	+	+	-	+	+	+	+	+	+	+
무쇠석함 바다표류	+	+	+	-	+	+	+	+	+	+	+	+	+	+	+
제주해변 표류	-	+	+	+	+	-	+	+	+	+	+	+	+	+	+
일곱잠수와 송노인	+	+	+	+	+	+	+	+	+	+	+	+	+	+	+
목욕 /혀물벗기	-	+	-	-	+	+	-	+	+	+	+	+	+	+	+
송대장집	+	+	-	-	-	+	+	+	+	-	+	+	+	+	+
관원(행차)	-	-	-	+	+	-	+	-	-	-	-	+	-	-	-
좌정	+	+	+	+	+	+	+	+	+	+	+	+	+	+	+

모든 「칠성본풀이」는 칠성애기의 부모인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 두 부부가 살고 있는 강남국(江南國)이나 장(長)나라, 강남골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모든 자료에서 두 부부의 사는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외부의 장소이다. 두 부부는 제주도가 아닌 외부의 존재이다.

두 부부가 매우 거부이거나 가난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두 부부가 생활은 중요하지 않은 설정이다. 대신 부부가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이 없다는 설정이 공통된다. 많은 나이에도 자식을 갖지 못해 걱정하고 있다가 자식을 갖기 위해 정성을 드리는 서사가 동일하다. 자식이 없는 상황을 종교적인 신성성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

그런데 칠성애기 탄생에 관한 서사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칠성제를 지내서 하늘의 칠성들이 내려와서 제를 받는 유형과 절에 가서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은 한 성군이 두 부부의 눈을 멀게 만드나 눈이 멀어 오히려 죽을 위기를 벗어나 된다. 눈을 먼 게 한 성군이 다시 눈을 뜨게 해주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원불수륙은 드리는 유형은 절에서 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없이 원불수륙을 드려 아이를 갖게 된다.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이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보다 많은 사건이 전개되어 서사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도 다른 본풀이에서도 발견됨으로 어느 한 쪽이 과편화 되거나 축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서로 독립적인 형태의 서사가 양분되는 양상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칠성애기가 자라자 부부가 벼슬을 살게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된다. 자료1에서만 벼슬이 아니라 유람을 떠난다고 되어 있다. 다른 자료의 서사적 완결성을 보아서 자료1만 간략하기 위해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벼슬을 살려 가는 공간은 명확하지 않다. 장설룡은 천상, 송설룡은 지하의 벼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나 실제 천상·지하 공간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부모가 탄 가마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설정도 천상의 존재와 연결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부부가 동서로 나뉘어서 길을 떠난다. 모든 자료에서 부부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난다는 설정은 동일하다.

부부가 벼슬을 살려 가면서 칠성애기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한다. 남자아이면 책실<sup>17)</sup>

---

17) 책실(冊室) : 책 심부름꾼.

로 데려가겠지만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한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칠성애기의 여성성이 처음으로 문제가 된다.

부부가 벼슬을 떠나면서 하인인 느진덕정하님에게 칠성애기를 맡기고 떠난다. 느진덕정하님에게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주고 떠난다. 벼슬이 끝나고 돌아오면 종 문서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는 자료가 다수이다. 떠나면서 일부 자료에서는 칠성애기를 일정한 공간에 가둔다. 가두는 장소는 동일하지 않고 고무살장이나 방으로 표현된다. 느진덕정하님에게 간한 칠성애기에게 의식(衣食)을 제공하게 한다.

부부가 벼슬을 살기 위해 가마를 타고 집을 떠나면 칠성애기가 몰래 뒤를 따라간다. 가마를 몰래 붙잡고 가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의 가마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서 어디를 따라갈지 몰라서 고민하다 놓치는 경우도 있다. 칠성애기가 집을 떠나서 따라가던 도중에 놓치는 상황은 동일하다.

부모를 놓친 칠성애기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부모를 놓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으며 울기만 한다. 길을 잃은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구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공통된다. 지나가는 중에게 데려가 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한다.

칠성애기가 부모를 따라가다 길은 잃은 장소가 자료1만 동굴로 되어 있고, 잔소나 무밭이나 떠밭(각단밭디)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료에선 ‘각단밭디’로 되어 있다. 굴과 풀숲이 뱀이 자주 출몰하는 서식지이기에 단순한 설정이 아니다. 뱀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길을 잃은 칠성애기는 굴이나 수풀에서 울고 있다가 대사(大師)에게 구출된다. 칠성애기가 울면서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칠성애기가 대사에게 자신을 데려가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가 대다수이다. 칠성애기와 대사가 만나는 과정에서 칠성애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

보통 세 명의 대사가 지나간다. 지나가던 세 명의 대사 가운데 앞선 두 대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 대사만 칠성애기를 구출하여 데려간다. 칠성애기의 여성성이 또 다시 문제가 된다. 여성이기에 불교 인물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러나 세 번째 대사의 구출을 통해서 불교인물과 여성의 결합된다.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에서는 대사가 이전에 등장하지 않는다.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에서는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에게 원불수륙을 드리도록 권한 대사가 칠성애기를 구출하는 대사와 동일한 존재이다. 대사는 자신의 절에서 원불수륙을 드려 태어난 칠성애기를 알아보고 데려간다.

대사는 칠성애기를 곽에 넣거나 오장삼, 천(아강베포)으로 감싸서 데려간다. 낮에는 주로 짐 안에 넣어두었다가 밤에만 꺼내서 동침하기도 한다. 칠성애기와 대사의 동침이 표현되지 않는 자료도 있지만 이후 칠성애기가 임신을 하는 설정이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대사와 칠성애기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칠성애기와 대사의 만남으로 칠성애기는 뱀의 모습으로 변한다. 대사가 칠성애기를 구출하여 데려가자 칠성애기가 뱀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길을 잃자마자 뱀의 모습으로 변하고 대사에게 구출되는 자료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사와 칠성애기의 만남을 중심으로 칠성애기가 뱀으로 변화한다는 설정은 공통적이다. 또한, 대사에게 구출되어 뱀으로 변했다는 자료의 수가 대다수이고, 대사에게 구출되어 칠성애기가 뱀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칠성애기를 잃어버린 느진덕정하님은 편지를 써서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벼슬살이를 일찍 마치고 돌아온다. 오랜 벼슬살이 기간을 짧게 마치고 돌아오지만 칠성애기를 찾을 수 없다가 꿈을 통해 집에 시주를 받으려 오는 대사에게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칠성애기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칠성애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설룡 대감이 꿈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사는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 집에 방문하면서 칠성애기를 오장삼이나 천에 싸서 말팡돌(下馬石) 아래 넣어두고 찾아간다. 대부분 자료에서 오장삼으로 감싼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화소임을 알 수 있다. 자료13에서는 오장삼으로 묶는 모습이 주쟁이를 감은 칠성눌곱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사가 찾아와서 시주를 받다가 장설룡 대감의 요청으로 문복을 하거나 장설룡 대감의 칠성애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된다. 대사는 칠성애기가 소리치면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고 알려준다. 장설룡 대감은 대사를 의심하여 하인들을 시켜 붙잡으려 하지만 대사는 도술을 써서 사라진다. 대사가 장설룡 대감에게 칠성애기를 숨긴 위치만 알려주고 사라지는 서사가 동일하다.

대사를 통해 알게 된 위치를 확인한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오장삼에 감싸여진 칠성애기를 찾게 된다. 두 부부는 찾은 칠성애기가 몸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다. 장설룡 대감은 부정하다며 키울 수 없다고 칠성애기를 죽이려 하자 송설룡 부인은 자식이니 죽일 수 없다고 만류한다. 결국, 부부는 죽이지 않고 사람을 불러 무쇠석함에 담아 버리기로 한다.

무쇠석함을 짜서 칠성애기를 태워 바다에 버린다. 자료1에서만 야광주를 함께 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야광주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료1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자료에서 무쇠석함을 짜서 칠성 얘기를 버린다는 점과 버리는 장소가 바다라는 점이 공통된다.

바다에 버려진 칠성얘기가 담긴 무쇠석함은 여러 바다를 표류한다. 동해와 서해를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 강남국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있다. 실제 지명이나 이동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바다를 건너다는 관념만 동일하다. 외부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는 단락이다.

제주도까지 흘러온 무쇠석함은 제주도로 바로 입도하지 못하고 제주도 해안을 표류한다. 무쇠석함이 제주도를 표류하는 과정을 간단히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일일이 지명과 당신을 나열하는 자료도 있다. 무쇠석함은 각 지역의 당신이 강하여 입도하지 못하고 제주도 해안을 표류한다. 무쇠석함이 여러 지역을 표류할 때마다 각 지역의 당신이 소개된다. 제주도표류를 자세히 서술한 자료일수록 제주도 고유한 당신체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무쇠석함이 바다를 표류하다 제주도로 흘러온 단락은 외부의 존재가 제주도로 이동한 것에 중점을 둔다. 실제 지명이나 이동경로가 중요하지 않다. 외부의 존재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관념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나 실제 경로를 자세히 나열한 필요가 없다. 간단한 서사로도 외부의 존재가 제주도로 이동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 해안표류는 실제 지명과 지역의 당신이 나열된다. 이를 통해 제주도 고유한 당신체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칠성얘기와의 갈등을 더욱 부각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칠성얘기가 담긴 무쇠석함이 표류하는 것은 동일하나 바다를 표류하는 것은 외부의 존재의 이동에, 제주도 해안을 표류하는 것은 외부의 존재와 당신과 대립·갈등에 중점을 두는 차이점이 있다.

무쇠석함이 제주도로 입도한 장소는 거의 함덕으로 되어 있다. 자료2에서만 김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녕은 김녕사굴과 관련된 다른 뱀 설화와 연결되어 있다. 「칠성본풀이」와 연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2가 혼동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로 입도한 무쇠석함을 발견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중재되는 일곱 잠수와 송노인에 관한 단락은 전 자료가 공통되며, 서사도 거의 일치한다. 「칠성본풀이」에서 가장 고정적인 서사 단락이다. 모든 자료에서 빼지지 않기에 핵심적인 단락이라 볼 수 있다.

일곱 잠수는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송 노인은 송동지, 송 하르방, 송첨지, 김첨지, 강당장 등으로 호칭이 다양하다. 호칭은 다르지만 싸움을 중재하는 노인이나 어른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은 같다. 고대 설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중재자나 장로와 송 노인의 역할이 동일하다. 이러한 전통이 회복되어 송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일곱 잠수는 무쇠석함을 서로 주웠다면 다투다가 송 노인이 이를 중재하고 균등하게 나누워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쇠석함을 열고 안에 있던 뱀의 모습을 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보고 침을 뱉거나 더럽다며 욕을 한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제주도 토착의 민간에게 외래의 존재가 부정 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일곱 잠수는 그날 물질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지 못한다.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을 병까지 앓게 된다. 병이 심각해지자 치유를 위해 심방을 찾아간다. 심방은 외국에서 온 신을 업신여기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전새남 또는 칠성새남이란 긋을 한다.<sup>18)</sup>

문제가 생긴 핵심은 외래 신에 대한 부정 때문이다. 토착 주민이 외래의 신을 부정해서 생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종교 행위를 통해 극복한다. 심방의 칠성새남을 통해서 외래신을 모시게 된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이 칠성새남을 하여 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토착 주민에게 외래신이 종교 행위를 통해 수용됨을 의미한다. 종교 행위가 매개가 되어 토착 주민은 외래신을 받아들인다.

칠성새남을 통해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된다. 이를 본 마을주민들이 따라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모시기 시작한다. 외래신이 수용되고 민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일정한 신의 직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모셔지고 민간에 확산된다. 토착 주민에게 외래 신이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을 포함한 마을 사람에게 섬김을 받게 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들이지만 본향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 쫓겨나지 않고 제주성(濟州城)안을 찾아가는 자료도 있다. 하지만 쫓겨나는 자료에는 합덕의 본향신인 서물한집, 급수황하늘로 동일하다. 합덕의 원래 존재하던 본향신인 서물한집, 급수황하늘이 외래의 신이 와

---

18) 전새남은 제주도에서 병자를 낫게 해 달라고 비는 무속의례다. 그중 뱀에 의한 우환을 다스리는 의례를 칠성새남이라고 한다.

서 섬겨지는 것을 알게 되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쫓아낸다.

본향당신과 외래의 신의 갈등이 확인된다. 본향당신이 단골을 빼앗기자 외래의 신을 자신의 지역에서 쫓아낸다. 본향당신과 외래의 신은 단골을 두고 서로 경쟁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신들에게 지역의 단골을 통해 섬김을 받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단골 확보의 문제가 좌정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함덕을 떠나 제주성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을 한다. 이동하는 과정도 간략히 서술된 자료가 있는가 하면 현재 위치까지 설명하면서 각 지명과 유래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도 있다. 그리고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의 이동은 지명연기전설과 관련된다. 신의 이동 과정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영향력을 보여준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의 이동에서 다양한 표현이 확인된다. 낮에는 숲길로 다니고 저녁에는 대로로 다닌다고 한다. 또는 동산에서 헛별을 쪘고, 돌 아래로 숨어든다고 한다. 뱀의 습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이 구현된다.

그리고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이 이동을 하다가 물에서 목욕을 하고 허물을 벗는 자료가 10편으로 다수이다. 물과 관련되고 허물을 벗는 행위는 뱀의 습성과 연관된다. 그런데 목욕과 허물벗기는 중요한 신화소이기도 하다. 「칠성본풀이」 이외 여러 신화에서 목욕과 허물벗기는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신화소이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이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는 단락이라 할 수 있다.

제주성안으로 들어간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송대장 또는 송대감 집의 여성이 치마폭으로 품어서 집안으로 들어간다. 송대장 집의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주성안에 들어선 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좌정처를 구해서 각각 좌정을 하게 된다. 다른 자식들은 관청이나 여러 창고에 자리를 잡는데 좌정처가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칠성애기는 안고팡, 일곱 번째 따님 애기는 밧칠성에 좌정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다.

관청행차 때나 관청사람들과 문제가 있어 칠성애기와 자식들이 관청에 연관된다는 단락이 있는 자료는 4편에 불과하다. 오히려 관청과 관련되는 단락이 없다가 좌정에서 관청이 언급되는 자료가 다수이다.

서사 단락 정리와 자료별 서사 단락 유무를 파악하여 15편 자료의 전체적인 서사 양상을 살펴보았다. 「칠성본풀이」 15편의 자료의 서사는 거의 동일하다. 칠성애기의 탄생만 칠성제나 원불수룩을 드리는 내용으로 양분된다. 나머지 서사는 큰 차이가 없

지만 ‘송대장집’과 ‘관원’에 관련된 서사는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도표를 근거로 살펴보아 서사단락이 가장 온전한 것은 자료13이다. 탄생은 원불수류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다른 서사단락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가장 결락된 것은 자료1이다. 서사의 전체 길이도 가장 짧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 변이나 화소도 등장한다.

자료별로 생략된 단락이나 간단히 축약된 단락은 존재하지만 일부 자료에만 전승되는 특별한 서사 단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사 단락을 생략 또는 축약하는 것은 구전 전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서사무가로 현장이나 인공조건에서 구연될 때, 심방의 자의나 실수로 서사 단락이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구전전승은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서사를 축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칠성본풀이」의 서사 단락은 고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칠성본풀이」 서사 단락의 순서가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다는 점이 특별하다. 구전전승이 기본이 되는 자료임에도 확고한 서사 전개를 갖고 있다. 「칠성본풀이」는 독자적인 구조체계를 갖고 있는 서사이다.

### 3. 「칠성본풀이」 서사 단락 분석

「칠성본풀이」는 서사를 고정적으로 전승하게 하는 독자적인 구조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단락에만 집중한 분석이나 각편의 차이점보다는 「칠성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서사 구조를 살피기 위해 우선 전체 서사를 순차적으로 크게 구분하여 파악하기로 한다.

「칠성본풀이」 서사 구조는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일반신본풀이, 본향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왕에 「칠성본풀이」에서 다른 본풀이와 동일한 서사를 확인하고 연관성을 살피는 방식의 연구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의 독자적인 서사를 확인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칠성본풀이」의 독자적인 서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본풀이와 유사한 서사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기능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서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애기의 탄생 서사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과 원불수류를 드리는 유형으로 양분된다. 두 서사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 두 서사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어느 서사가 본래의 서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칠성제를 드리는 서사의 소종래는 불분명하다.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장남이 되어서 가문이 멸하게 된 위기를 벗어나는 서사이다. 칠성성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칠성과 더욱 연관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칠성제를 드려서 칠성애기라 이름 붙였다고만 하기 때문에 칠성애기란 신격을 해명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칠성성군이 있기 때문에 칠성애기가 이름만 칠성이지 하늘의 북두칠성에 관한 신격과는 무관해진다.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은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의 고난과 전화위복의 과정으로 전체 서사와 연관성도 떨어진다. 이후에 두 부부가 벼슬을 가고, 칠성애기가 대사와 결합되는 서사와 연관성이 없다. 칠성애기 탄생 이후 서사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이 본래의 서사로 판단된다.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의 소종래는 기자치성을 드리는 이야기의 일정한 변이형이다. 「칠성본풀이」의 원불수륙을 드리는 이야기는 「제석본풀이」계열에서 왔다. 「제석본풀이」계열에서는 치성을 드려 여성이 탄생하고, 탄생한 여성이 외래에서 온 남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신격을 탄생시킨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에서도 탄생의 과정이 이와 비슷한데, 「초공본풀이」도 「제석본풀이」계열로 설명된 바 있다.<sup>19)</sup> 시주를 받기 위해 집을 방문한 중의 권유로 불공을 드리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를 집에 두고 벼슬을 살려가고, 부모가 없는 사이 중과 결합하여 소박을 받는 서사가 「칠성본풀이」와 「초공본풀이」에서 동일하다. 「칠성본풀이」가 「초공본풀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같은 「제석본풀이」계열의 탄생 과정을 갖는다. 「칠성본풀이」에서 대사나 원불수륙과 같은 불교적 상징이 나타나는 것도 「제석본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치성과 부모 벼슬살이, 대사와 결합의 전체 서사는 「제석본풀이」계열의 일정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벼슬살이, 대사와 결합의 서사와 연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 원불수륙이 본래의 탄생 서사이고, 칠성제 서사를 일정한 변이형으로 보아야 한다. 보다 칠성신과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치성의 대상이 칠성성군으로 서사가 변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칠성본풀이」가 「제석본풀이」계열임에도 보이는 특별한 변이가 칠성애기가 부모를

19)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한국 무조신화연구 : 비교신화학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 민속원, 2015. pp.93-150.

20) 나경수, 『호남무속총서』 전7권. 나경수 외. 민속원

따라가기 위해 가둔 곳에서 탈출했다가 숲이나 굴에서 길을 잃는 서사이다. 그리고 대사와 결합하여 뱀이 된다는 점이다. 두 서사 모두 뱀과 연관이 있다. 칠성애기가 숲이나 굴에서 대사에게 발견되는 점도 뱀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칠성본풀이」는 「제석본풀이」계열의 탄생 서사를 갖지만 뱀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변이를 보인다.

「칠성본풀이」의 (1)-(9)까지 서사의 서두가 「제석볼풀이」계열의 탄생 서사를 가지고 있어 일반신본풀이의 성격이 확인된다. 제주 본토의 것이 아닌 외래의 서사로서 제주 전체의 전승되는 신화이다. 일반신본풀이 중 하나인 「초공본풀이」와도 유사하여 「칠성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앞선 논의에서 탄생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신본풀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21)</sup> 그러므로 「칠성본풀이」의 서두는 일반신본풀이의 서사의 틀만을 차용하였을 뿐 일반신 성격을 확인할 수 없고 고유한 여성인 뱀이라는 부분이 변형된 서사이다.

칠성애기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쇠석함에 담겨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입도한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함에 버려지는 신화소는 세계 보편적이나 무쇠석함에 담겨 버려지는 것은 특히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견되는 서사이다. 「케네깃당본풀이」나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해안을 표류하는 과정에서 각 해안에 본향당신이 세서 쉽사리 입도하지 못한다며 각 지역의 본향당신들을 나열한다. 입도한 뒤에 칠성애기와 자식들이 함덕의 주민들에게 숭상되지만 본향당신에 의해 쫓겨난다. 외래의 신과 본향당신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본향당신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지역에 따른 당신체계를 밝힌다. 이렇듯 칠성애기의 무쇠석함 표류와 제주도해변 표류 과정에서 당신본풀이적 요소가 확인된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의 서사 단락은 누락된 자료가 없을 정도로 「칠성본풀이」의 골자가 되는 서사이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 서사에서도 당신본풀이적 요소가 확인된다. 신성한 존재를 더럽고 추악하다고 치부했던 존재들이 벌을 받고 신성한 존재를 모시

21) 김현선은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는 소재적 공통점을 육지의 본풀이나 설화와 갖고 있으며, 천지현상과 인문현상과 일정하게 관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칠성본풀이」는 소재적 공통점은 있으나 천문현상이나 인문현상의 신격과는 거리가 먼 당신본풀이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허남준도 육지와 관련성이 있으나 일반신본풀이가 인간과 자연의 일반적인 일들과 관련이 없어 조상신본풀이에서 성장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현선, 앞의 논문, p.258 ; 허남준 앞의 논문, p.13.

는 단골이 된다. 신성한 존재가 좌정하여 특별한 능력으로 일정한 질서 부여하여 권능을 갖게 되는 과정은 제주도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칠성애기와 자식들이 신성한 존재로 모셔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심방의 전새남이다. 심방은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의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전새남이란 의례를 행할 것을 제안한다.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의례를 통해 신성성을 확보한다. 신화가 의례 확립의 핵심적 구비문서라고 한다면 의례는 신앙심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풀이와 의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의례를 통해 신과 신을 따르는 단골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단골관계에 의해 신의 지위와 판도가 확장된다.

당신본풀이와 같이 다른 당신과 대립되지만 당신으로 좌정하지 않고 다시 이동을 한다. 실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의 좌정은 목안의 송대장집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당신과 경쟁하지만 당신으로 좌정하지 않아 당신본풀이적 요소만 보일 뿐이다.

이를 통해 확인 되는 칠성애기와 자식들의 신의 직능이 「칠성본풀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5편의 모든 자료에서 칠성애기와 자식들을 모시게 된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부(富)를 얻게 된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도 칠성애기와 자식들을 모시게 된다. 가난한 단골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칠성애기와 자식들의 신의 직능이다.

「칠성본풀이」에서 일반신본풀이 요소와 당신본풀이의 요소는 서사적 틀로서 일반신본풀이나 당신본풀이와 동일성만 확인된다. 칠성애기란 존재의 신격을 해명하는 것은 칠성애기의 신의 직능이다. 모든 자료에서 칠성애기의 신의 직능은 달라지지 않고 부(富)와 연관된다. 그러므로 칠성애기란 신격의 핵심은 부(富)이다.

함덕에서 분향신과의 경쟁에서 밀려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제주도성 안으로 이동을하게 된다. 제주도성 안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거쳐서 지명연기전설 남기며 지역과 연관된 신성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목욕과 허물벗기를 통해 더욱 신성한 존재로 거듭난다.

그리고 송대장집의 여인이 치마폭으로 품어서 집안으로 맞아든다. 송대장집에 관련된 단락이 없는 자료도 있지만 포함된 자료가 다수이다. 송대장집의 여인이 치마폭으로 뱀신을 맞아든 것은 조상신본풀이와 연관된다. 치마폭으로 뱀신을 집안으로 맞아들이는 서사가 여러 조상신본풀이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sup>22)</sup>

---

22) 「고대장본」, 「선을리 안판고나 제주판관본」, 「이칫조상본」, 「우렝이 신씨조상본풀이」, 「귀돈은 배염」, 「외도 두리빌렛당본풀이」가 뱀신을 치마폭으로 집안으로 들여 칠성 조상이나 안고

「칠성본풀이」의 조상신본풀이의 요소도 서사적으로 동일하다. 일반신본풀이의 요소도 「제석본풀이」계열의 탄생 서사가 뱀의 면모를 보여주는 변이 말고는 동일하고, 당신본풀이도 무쇠석함에 담겨 내려와서 다른 당신들과 좌정처를 구하는 서사가 동일하다. 결국,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와 부분적으로 동일한 서사를 공유한다. 그러나 서사의 동일성만으로 「칠성본풀이」의 본풀이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하위 분류적 특성을 전부 갖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차용된 세 유형의 서사는 「칠성본풀이」의 전체 서사를 이루며 어느 유형에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세 유형의 서사는 유형의 특성보다는 서사의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청에 관한 서사를 갖고 있는 자료의 수는 많지 않다. 관청에 관한 서사 자체도 일정하지 않고 단순히 거론만 되는 자료가 있다. 그러므로 관청에 대한 서사도 「칠성본풀이」에 핵심적인 서사라고 할 수 없다. 관청에 관한 언급 없이도 칠성애기와 일곱째 딸을 제외한 칠성신들이 관청에 관련된 곳에 좌정을 한다. 칠성애기와 관련된 신앙이 관청과 결합한 것으로 제주의 지배계층까지 퍼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칠성애기, 부군칠성이 관청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는 관념하지만 「칠성본풀이」 서사를 보아 관청이 핵심적인 관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칠성신과 관청에 관한 관념은 앞선 논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좌정은 모든 본풀이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다. 다른 자식들은 관청이나 여러 창고 건물에 좌정을 한다. 칠성애기와 일곱째 딸은 안고팡과 밧고팡이라는 제주도 가옥에만 있는 특수한 공간을 좌정처로 삼는다. 제주도 가옥의 특별한 공간을 차지하여 부와 풍요,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칠성본풀이」의 전체 서사를 살펴보면, 서사의 대부분은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모든 유형의 서사를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전체 서사의 틀을 이룬다.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서사가 삽화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 「칠성본풀이」에서 다른 서사를 차용하지 않은 고유한 서사는 칠성애기 길 잊음, 대사와 결합, 일곱 잠수와 송 노인, 목

---

광에 모셔 부를 얻게 되는 본풀이다. 「외도 두리빌렛당본풀이」를 제외하고는 조상신본풀이이고, 「외도 두리빌렛당본풀이」는 조상분과 당신분이 합쳐진 형태로 보아 칠성은 조상신에서 출발하여 당신, 일반신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강소전, 앞의 논문, pp.200-205.

욕과 허물벗기, 안고팡과 밧고팡에 좌정이다. 고유한 서사는 칠성애기와 자식들의 뱠의 면모와 부(富)를 관장하는 신격, 안고팡과 밧고팡과 연관성을 드러낸다.

정리하면, 「칠성본풀이」는 외래의 신격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좌정하는 내용의 본풀이다. 외래의 신격은 안고팡과 밧고팡에 좌정한 뱠 형태의 부신(富神)이다. 이러한 신격에 칠성과 관청에 관한 관념이 덧붙여졌다.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에서 차용한 서사의 틀은 신격의 탄생과 이동, 좌정의 과정을 보여준다. 신격은 외래의 존재이고 신격의 탄생과 이동, 좌정은 제주도 본풀이의 서사를 차용하였다. 「칠성본풀이」는 외래의 신격과 제주도의 고유한 서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본풀이다.

외래의 신격이 업신앙이라는 사실이 특별하다. 업신앙은 한국의 뱠신앙로서 가옥 구조를 근간으로 형성된다. 업신앙은 가정신앙임으로 「칠성본풀이」의 가정신앙적 면모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업신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신앙이 유입되어 제주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상신본풀이와 연관성이 필연적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업신앙이 가정신앙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가정신앙인 조상신본풀이로 처음 정착되었을 가능성도 추측 가능하다.

「칠성본풀이」에서 제주도 토착의 뱠신앙은 확인되지 않는다. 업신앙의 대상이 되는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철저히 외부의 존재로 관념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격의 유입과정도 서사를 통해 충실히 설명되어야 한다. 신이 이동하고 좌정하는 서사가 당신본풀이에 존재한다. 당신본풀이 서사를 통해 외래의 신격의 이동을 각인 시켰다.

조상본풀이와 같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송대장 집안에 좌정했지만 유입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본풀이의 서사를 활용하여 다른 본향당신과의 대립도 보인다. 신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섬김을 받고, 다른 본향당신과 단골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가정신앙인 업신앙이지만 외부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본풀이적 요소가 드러나는 서사가 형성되었다.

「칠성본풀이」의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일반신으로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일반신이기 때문에 일반신본풀이의 서사를 통한 신격 형성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선행 연구와 같이 가정신앙을 일반신격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신본풀이 서사가 필요했을 것이란 추론은 쉽게 수긍 가능하다.

그런데 「칠성본풀이」의 신격 형성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제주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신격이기에 이 신격의 성격을 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칠성이라는 뱠신앙 이전에도 뱠에 관한 신앙이 제주도에 있었다고 문헌을

통해 증거를 제시했다.<sup>23)</sup> 칠성이라는 범신앙이 유입되기 이전에 제주도의 고유한 범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칠성본풀이」의 칠성 얘기와 일곱 자식의 신격에 대한 설명은 신앙민에게 더욱 많은 의문을 풀어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칠성본풀이」의 신격 형성은 단순하지 않고, 서사를 확인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격 형성의 과정은 큰 틀로 구분하는 거시적인 시각 보다는 해당 대목을 확인하면서 살피는 미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칠성본풀이」의 서사 단락은 단락의 구성뿐만 아니라 순서 또한 고정적이다. 「칠성본풀이」의 서사 단락은 명확한 선후관계를 가지며, 사건의 순서가 바뀐 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칠성본풀이」는 동일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사가 진행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간의 변화도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칠성본풀이」 시간과 공간 변화에 따른 서사구조

세대	세대 구성		공간적 전이
1세대	△ = ○ 장설용      송설용		육지
2세대	○ = △ 칠성애기      대사		육지 - 제주도
3세대	○ ~ ○ 1      7		제주도 1 - 제주도2 합덕 - 성내 - 목안 (城內)      (牧內)

「칠성본풀이」에 시간의 경과와 장소의 이동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서사는 3대(代)에 걸쳐 진행된다. 세대가 바뀜으로써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3대 구조는 신화에서 신격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구조이다. 3대 구조를 통해 신화의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신의 위계를 형성한다.

세대가 바뀌면서 등장인물의 공간도 함께 이동한다. 각 인물은 일정한 장소와 연관

23) 강소전, 앞의 논문, pp.206-207.

되며 각 장소에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칠성본풀이」는 인물과 장소, 해결할 문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세대는 장설용과 송설용 부인이다. 「칠성본풀이」의 모든 서사는 두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두 인물이 사는 공간과 두 인물의 관계를 알려준다.

#### [자료1]

강남천자국의 옥골미영산상봉에  
송씨부군장씨부인의사는니  
자식이 없어서 금심하야<sup>24)</sup>

#### [자료2]

송씨나라 송씨부인 송성군,  
장씨나라 장씨부인 장성군.  
근본이 가난하고 선한호연  
애기도 엇이 사는디,<sup>25)</sup>

#### [자료9]

엿날이라 엿적에, 장나라는 장설룡, 대감님이 사옵데다.  
송나라 송설룡, 부인님이 삽데다. 거부제(巨富子)로, 와라치라 잘 살양, 영 허여  
도, 삼십(三十) 서른 넘곡  
사십(四十) 마흔 근당허여도  
남녀간(男女間)에 즐식(子息) 엇언, 호오 탄복(坦腹)허단<sup>26)</sup>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있는 곳은 단일하지 않다. 강남국(江南國)일 경우도 있고, 장나라일 경우도 있으며, 남녀의 이름과 출생지가 바뀐 경우도 있다. 강남국은 하여서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장나라와 송나라는 두 인물의 성을 따른 것일 뿐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사는 공간은 실제 공간이기보다는 관념적인 공간이다. 「칠성본풀이」 이외에도 많은 제주도 본풀이에서 제주도가 아닌 외부의 관념적인 공간을 육지로써 표현한다.

24) 아키바 다카시 · 아카마쓰 지조, 앞의 책, p.325.

25) 진성기, 앞의 책, p.146.

26) 『이용옥』, p.361.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가난하다고도 하고, 부유하다고도 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 핵심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다. 모든 자료에서 부부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 문제여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의 방법은 크게 칠성제를 드리는 유형과 원불수륙을 드리는 유형으로 양분된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식이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칠성애기라는 새로운 신격을 탄생시킨다.

장성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제주도가 아닌 외부의 육지 공간의 존재이다. 자식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교적 신성성으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격을 탄생시킨다. 새로운 신격의 탄생이 문제의 해결이다.

### [자료3]

또시 중이대수를 만납네다.  
그 중안티 물어보난  
“널날 스시에 중이대수  
만날 거난  
나영 혼디 글라  
느네 아방 느네 어멍  
쏘아주마.”  
중은 이 얘기를 추그리고  
드랑 땡기멍  
낫이는 동그량 쏘곱에 앓고  
밤이는 쿰에 쿰엉 좀을 자고  
흐는 구나.<sup>27)</sup>

### [자료10]

“가운데 오는 데스님아 날 살려줍센” 헤여도 누시 테답도 안 헤영 그냥 가불고  
[소리] “뒤에 오는 데스님아 사름 살려줍서.”  
“아이고 설운 아기야 이래 오라.” [말] 돌아단 우머니 쏘곱에 앓져 놓고 텅기멍  
하도 승업을 주어부난 스신(蛇身) 인도가 뛰엇구나-.<sup>28)</sup>

27) 진성기, 위의 책, p.158.

28) 『양창보』, p.292.

칠성애기와 대사의 결합은 핵심적인 사건이다. 칠성애기가 부모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자 대사에게 구출된다. 대사는 구출한 칠성애기와 결합을 한다. 그리고 칠성애기는 몸이 뱀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칠성애기의 모습이 뱀으로 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 [자료4]

오장삼을 풀어놓고 아기씩 내여叛 보난 아기씨 얼굴엔 검은 지미가 지고 아기씨 몸천(肉身)은 아리롱다리롱 旱고 아기씨 벤 보난 두릉배가 雜였구나. 장설룡대감 님은

“양반의 집 손당공소 났구나.”

아기씨를 죽이자 旱 훠(限)이 엊어지고 무세설캅 체와 놓고 동이와당 떠와간다.<sup>29)</sup>

#### [자료10]

아이고, 안아다 놓고 바려보난 즈들이로 알레렌 베염우 성치 旱고 존등이로 웃더 렌 사람의 형치가 旱여시난 “아이고 이만허민 어명허리요. 아이고 어명허리요.” 죽이자 허둬 양반이 집이 죽이도 못 허고 “아이고 어명허민 좋고.” 앗아당 의논 황논허는 게 “귀양보네라. [소리] 죽이는 데신으로 귀양 보네라.”<sup>30)</sup>

칠성애기와 대사의 결합으로 칠성애기는 몸은 뱀의 형상을 하게 되고, 부모가 칠성애기를 찾았을 때에는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있었다. 칠성애기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임신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무쇠석함에 담겨 버려진다. 뱀의 모습으로 변모와 임신에 대한 해결책이 버려짐이다.

버려진다는 것은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육지의 존재였던 칠성애기가 무쇠석함에 담겨져 제주도로 이동하게 된다. 많은 신화에서 신의 이동은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는 신화소이다. 육지에서 뱀이란 이유로 버려지지만 제주도의 일정한 신성성을 보여준다.

칠성애기와 대사는 육지의 존재이다. 칠성애기는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의 자식으로 육지에서 탄생한다. 대사는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살고 있는 주변의

29) 현용준, 앞의 책, p.353.

30) 『양창보』, p.293.

존재이다. 칠성애기를 중심으로는 외부의 존재이지만 둘 다 육지의 존재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버려지는 해결책을 통해 칠성애기는 육지의 존재에서 제주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 [자료5]

무쇠설각을 열고 보니 여덟 이새끼가 세는 멜록멜록  
코는 말륵 말륵 눈은 헛득헛득하며 여덟 애새기가  
소랑소랑 누웠더라 말씀하되 「요년으뜸년 생긴년들  
은이여 금이여 먹으라 쓰라!」 흐오시니  
일곱 잠수는 물에 들레 가고 송침주영감은 불락 낚으레  
가고 일곱 잠수가 쓸물에 들어 들물에 나되  
빈 망사리를 다 들런 나서 서로 바래며 웃음밸탁을  
흐는고, 불툭 오고 말을 흐되 「오년은 이상흔 거  
제수으시 봉갔다가 머정이 벗어지고  
아무 것도 못내흐고 뚱간절미 구챙기 흐나  
못해여 갈로구나」 웃음 웃으며 웃음밸탁을 흐는구.  
일곱 잠수들이 불 뜨스니 출려아전  
오다가 보니 숨북이 속급에 소랑소랑 누었더라.  
일곱 잠수가 손가락질을 흐며 돌아오랐더니  
일곱 잠수가 눈으로 보니 눈��이를 불러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니 손가락이 아프고 그 범으로  
배염은 손가락으로 ݣ리치면  
손가락이 석는뎅 문서가 나고  
일곱 잠수들이 눈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구나.<sup>31)</sup>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이 무쇠석함에 담겨져서 제주도로 입도한다. 제주도로 들어오지만 일곱 잠수와 송 노인에게 발견되며 문제가 발생한다. 뱌이란 이유로 일곱 잠수와 송 노인에게 부정하다고 업신여겨진다. 일곱 잠수와 송 노인은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을 모욕하고 별을 받게 된다. 물질에서 아무 소득이 없고 몸이 병들기 시작한다. 외래의 신격이 부정하다 취급되어 토착주민에게 별을 내려준다.

---

31) 장주근, 위의 책, p.208.

[자료14]

그래서 문점하는 이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으로 속절지 죄척이엔 하난  
문점간 사람들은 ‘엇찌하면 좋구가’ 말하난에  
‘그 물건 본 데로 가서 잘 위망하기엔’ 하난  
일곱 잠수 집에는 잘되여 갑데다.  
일곱 잠수집 잘 되난  
신흥 여섯이에 사는 잠수들은  
함덕에 일곱 잠수 위망 하는 데로 가서 위망 적선하는 것이  
신흥 잠들도 잘 되고 한데<sup>32)</sup>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토착주민에게 업신여겨져 벌을 주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위함을 받는다. 전새남 또는 칠성새남이란 의례를 통해 해결되기도 하며 토착주민은 외래의 신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관념하지 않고 위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된다. 이를 통해 토착주민들은 부를 얻게 된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외래의 신격으로서 부정당하다는 신앙민의 태도이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자신을 부정하는 존재에게 벌을 내리고 종교행위를 통해 섬겨지자 신앙민은 부자가 되게 한다. ‘부정-벌-의례-섬김-부(富)’의 과정이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를 통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의 신의 권능이 확인 된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의 핵심적인 신의 권능은 부(富)이다. 신앙민에게 부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앙의 대상으로 확산된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섬김을 받는 신앙이 문제가 된다. 외래의 신으로서 토착민들에게 신앙에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신의 권능을 통해 의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신앙의 대상이 된다.

[자료12]

흔 물 두 물 서물할망 급서왕한집님은  
[말] 아이고 단궐털 앗아도 안 오고 사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곡 허난, [음영]  
'어떤일인고.' 돌아보난, 놈이 나라에서 온, 일곱 칠성(七星)을 [소리] 우루적선(慰勞積善) 혜염구나.

---

32) 김호성, 부록 첨부

금서왕한집님은 旱를날 늘려들어근

[음영] “이 막을은 땅도 나 땅, 막을도 나 막을 眾순도 나 眾순이난, 이 고을을 떠나라 아니 떠나민, 선흘꽃 도올랑 들굽낭 작데기로, 케우려불肯.” [소리] 혜엿구 나에-.33)

그러나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부(富)를 통해 신의 권능을 보여주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지만 좌정처를 정하지 못하였다. 외래의 신으로서 좌정처를 구하지 못하여 원래 존재하던 본향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 외래의 신과 원래 존재하던 본향당신이 단골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대립한다.

[자료12]

일곱아기가 둑은 옷 벗어 가시낭에 걸쳐두고 베릿물에 들어간 몸 모욕하고 나와 새옷 입고 나사니, 그때 베릿물에 몸오욕허여난 때문에 베릿내로 일름(名)을 지웁데다.

그으니무를로 일름(名) 삼제(三字) 지와두고, 도성안을 들어사저 가락콧머리를 들어산 보난 물질(水路) 누려가는 궁기(孔)가 나아시난 일곱아기가 그 궁기로 도성안(都城內)을 들어가고, 칠성꿀(七星洞)을 들어사 송대장(宋大靜) 첫 면문 앞의 소랑소랑 누었더니, 송대장부인(宋大靜夫人)이 산지(山地) 금산물에 아침 물을 질 젠 면 문밧(遠門外)을 나산보난 일곱아기가 소랑소랑 누어시난, “이게 어떤 일인고?” 송대장부인이 금산물에 잣 치멜 벗언 물뚱에 노아두고 물을 들린 나오란 치매 안(內)에 뵐례여보난, 일곱아기가 소랑소랑 치매각에 누어시난, 송대장 부인이,

“나안티 테운 초상(祖上)이건 어서 우리 집으로 급서.”

치매각에 싸아전 연양상고팡으로 가 모샀더니 송대장 칩이 멘도종이 알게 천 하거부뒈옵데다.

칠성님이 질(第一) 문첨 송대장 칩의 완 좌정(坐定)허여난 때문에 칠성꿀로 이 름 삼째(三字) 지웁데다.

旱를날은 일곱아기가 베부른동산의 간 소랑소랑 누었더니 관원(官員)이 행차(行次)旱단 눈에 훈식하난,

“누추(陋醜)하고 추접흔 거 베인다.”

춤을 투투旱 게 삼식번(三番) 바갔더니 그날부터 입에 구감(口疳) 열두풍문(十

---

33) 『서순실』, p.327.

二風雲)을 불러줘 답답 민망(憫惘)한 아는 시녀(神女) 불련 문복(問卜)을 허였더니,

“어면 일로 웨국(外國) 임신(神)이 눈에 펜식을 흔디 입으로 속절지 쥐목이 뛰옵네다. 전새남을 하옵소서.”

칠성새남을 한 난 일곱칠성이 많이 얻어 먹언 배가 부난 등지딱 배지딱 배부른 동산으로 일름(名) 삼째(三字) 지와두고, 어명국이 말을 흐훼,

“우리가 영 한거(閑暇)이 뎅기명 얻어 먹을 수 엇어지니 느네덜 갈 들로 츄지 훌 들로 문 벌여사라.”

“큰뜰아기 어들로 갈티?”

“어머님아, 난 추솟못도 내 츄지 추수할망으로 들어사쿠다.”

추수할망으로 들어사고,

“셋뜰아긴 어들로 갈티?”

“난 이방 성방(吏房刑房)도 내 츄지우다.”

이방 성방 방(房)으로 들어사고

“쉿쳇뜰아긴 어들로 갈티?”

“옥(獄)츠지도 내 츄지 흐쿠다.”

독지기로 들어사고,

“다섯쳇 아긴 어들로 가겠느냐?”

“동창궤(東倉庫)도 내 츄지 서창궤도 내 츄지.”

창궤(倉庫)지기로 들어사고,

“으쌰쳇 아긴 어들로 가겠느냐?”

“난 광청못도 내 츄지우다.”

광청할망으로 들어사고,

“일곱체 아긴 어들로 가겠느냐?”

“어머님아, 든정굴 신정굴낭 알(下)로 청(青) 주챙이 흑(黑) 주챙이 청지에(青瓦) 흑지에 알(下)로, 뒤으로 억대부군칠성(億代富君七星)으로 들어상, 구시월(九十月) 나민 단정굴 신정굴 진상(進上)을 올리건 어머님 답답한 가슴 시원석석이 여이단목 쉽단 가슴이나 준질롭서.”

“서운 아기 부모(父母)에 효심(孝心)행구나.”

뒤으로 억대부군으로 들어사고,

“어머님은 어덟가쿠가?”

“난 연양사고꽝으로, 대독(大纛) 알로 소독(小纛) 알(下)로 겸은 독 노린 독(黃纛) 알로 대두지(大斗度) 소두지(小斗度) 알로, 섬지기 말지기 뛰(升)지기 흡(合)



지기 마련해야 열두기만국(十二新萬穀)을 거두왕 안칠성으로 들어상 얹어 먹을노라.”

어명국은 상고팡(上庫房) 안칠성으로 들어산 열두시만국을 거두와 줍던 칠성입네다.<sup>34)</sup>

본향당신에게 쫓겨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함덕을 떠나서 제주성안(濟州城內)으로 이동한다. 제주성안으로 들어가기 전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목욕을 하고 허물을 벗는다. 목욕과 허물 벗음은 여러 신화에서 확인되는 신화소이다. 더럽고 부정한 것을 벗어내고 보다 높은 신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목욕과 허물 벗기를 통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된다.

제주성안으로 들어간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송대장 집안에 좌정한다. 송대장 가문의 ‘태운 조상’이 되고, 자신을 모신 송대장 첨을 천하거부가 되게 한다. 집안에 좌정한 조상신으로서 부(富)를 통해 신의 직능을 보인다.

그런데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조상신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목안(濟州牧內)까지 좌정한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이 ‘베부른 동산’에 나가 관원이 행차와 마주친다. ‘부정-별-의례-섬김-부(富)’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한 가문에서 제주목안으로, 조상신에서 관청(官廳)을 담당하는 신격으로 발전된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두 번째 문제인 좌정의 과정을 통해 조상신에서 관청신으로 좌정한다. 하층민들의 신앙에 대상에서 높은 가문의 조상신으로 발전되었다가, 지배층의 신격으로 발전한다. 당신과의 충돌을 통해 토착화의 어려움을 겪었던 외래의 신이 새로운 당골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성안으로 이동한다. 이동을 통해 상층까지 모셔지는 칠성신앙으로 발전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칠성본풀이」의 서사는 세대가 바뀌면서 공간이 이동되고,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3대에 걸쳐 세대가 변화한다. 장소는 육지에서 제주도해안, 제주성안, 제주목안으로 이동을 한다. 시간의 경과와 장소의 이동의 대응되면서 동일한 서사 구조로 「칠성본풀이」의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다.

일정한 시공간의 서사 구조에서 인물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사건으로 제시된다.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4) 현용준, 앞의 책, pp.355-356.

- (가) 정성을 드려 아이를 낳다.
- (나) 여자가 뱠이 되다.
- (다) 칠성이 제주민의 신앙이 되다.
- (마) 제주목의 칠성신앙으로 상승하다.

(가)의 핵심은 새로운 신격의 탄생이다. 새로운 신격의 탄생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정성을 드려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종교 의례를 통해서 새로운 신격이 탄생하는데, 새로운 신격은 칠성(七星)과 연관된 존재이다. 그리고 예외 없이 여성으로 설정된다.

(나)의 핵심은 뱠에 관한 신성성이다. 여성이 뱠이 되는 신화적 사고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김현선이 앞선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sup>35)</sup> 여성이 뱠으로 변한다는 관념을 통해 칠성애기는 뱠의 형상을 한 특별한 존재가 된다. 뱠의 형상을 한 칠성애기는 이동을 통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확인된다.

(다)의 핵심은 뱠신앙의 형성이다. 뱠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고 거리게 된다. 하지만 심방이란 존재를 통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다. 이를 대가로 신앙민의 부(富)를 보장한다. ‘섬김과 부’라는 관계를 통해 제주민에게 뱠신앙이 형성된다.

(라)의 핵심은 뱠신앙의 토착화이다.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제주민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만 본향당신과 대립을 통해 좌정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게 된다. 이동 과정에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목욕과 허물벗기라는 신성한 의식을 행한다. 허물을 벗는 것과 목욕은 재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신화소이다. 뱠이 허물을 벗거나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는 속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가정에 좌정한다. 특정 가문의 조상신으로 좌정하여 가정신앙 자리 잡는다. 그런데 가정신앙에서 제주목안으로 이동하며 관청과 연관된 지배계급의 신앙으로 발전한다. 관청과 연관되면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칠성신앙과 혼합되었다.<sup>36)</sup>

35) 김현선은 ‘사람은 구렁이이고, 구렁이는 사람이다’라는 관념은 신화학적 가정에 의한 전제이며, 선협적 추론의 차원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념이 신화와 의례 속에서 구체화 되고 지속적인 반복과 재현이 가능한 서사적 인과관계를 형상화한다고 했다. 김현선, 앞의 논문, pp259-262.

「칠성본풀이」에서 3세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뱬 신앙의 생성과 제주도 정착과정을 보여준다. 외지의 뱬신앙이 제주도로 유입되어 토착화 과정을 겪고 제주도만의 칠성신앙으로 발전되었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업가리신앙의 신격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칠성본풀이」의 신앙은 서사에서 처음부터 동일한 신앙의 성격이 아니다. 일정한 단계적 변화를 보인다. 뱬신앙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 「칠성본풀이」는 다면적이고 다 층위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었다. 「칠성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칠성신의 단계적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자연신 신앙
- (B) 가신신앙
- (C) 칠성신앙

「칠성본풀이」의 첫 신앙의 형태는 여성이 뱬으로 변한다는 뱬을 신성시하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자연의 대상인 뱬을 숭상하고 신성시하는 자연신 신앙에 관념이다. 그리고 제주민에게 송양받게 되고 가문의 좌정하면서 가정신앙으로 자리 잡는다. 한 가문이나 집안에 관련된 신앙의 형태이다. 그런데 가정신앙이 일반화 되면서 신앙민이 다양해지고 지배계급까지 전파된다. 지배계급과 관련되며 관청과 칠성신앙으로 제주도만의 특별한 변이가 이루어진다.

뱀을 숭상하는 자연신 신앙에서 가신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형상이다. 뱬을 집안에 모시며 업구령이로 여기면서 부(富)를 기원하는 신앙은 육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을 보인다. 그러나 제주 가옥구조의 특별한 형태인 안고팡과 밗고팡에 거주하는 신격, 관청과 연관된 신격, 하늘의 칠성과 연관된 신격인 점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뱬신앙의 변이형태이다.

「칠성본풀이」의 서사는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있다. 시간의 흐

36) 허남준은 「칠성본풀이」의 신격이 부군칠성, 칠성부군이라고 불리는데, 조상신의 면모에서 부를 가져다 주는 '부군(富君)'이여야 하는데 '부군(府君)'이란 표기도 발견되는 현상을 관청의 여러 건물에 좌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부(官府)의 신을 부군이라고 한 내력은 서울의 부군당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진성기 채록본의 '칠성당'은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칠성신이고, 현용준 채록본 '칠성당'은 관청 송사와 관련 있는 본풀이임을 보아 수명관장의 칠성당이 관청에 연관된 신당으로 발전된 추론하였다. 허남준, 앞의 논문, pp.21-30.

름을 통해 세대가 교체되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공간의 확장을 이룬다. 또한, 사건의 발생과 해결을 통해 신앙의 발생과 정착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주도만의 특별하게 변이된 뱠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이야기열개를 통해 신앙적 변천을 보여주는 본풀이다.

지금까지 서사를 통해 살펴본 논의를 정리하면, 「칠성본풀이」의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는 서사의 틀을 제공한다. 서사의 틀을 통해 외래신의 탄생과 이동, 좌정을 설명한다. 외래신은 업가리신앙으로 한국의 뱠신앙이다. 외래의 뱠신앙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신격에 대한 해명이 중요하다. 신격의 형성과정은 시공간의 변화에 맞춰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주도만의 독특한 업가리신앙의 형성을 설명한다. 「칠성본풀이」의 업가리신앙은 일정한 변천과정 보인다. 자연신앙에서 가정신앙, 칠성신앙으로 발전된다.

「칠성본풀이」의 서사를 통해 ‘자연신앙 - 가정신앙 - 칠성신앙’으로 단계적 변화를 거친 제주도 업가리신앙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천문과는 무관하다. 천지창조나 세계의 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칠성본풀이」는 제주도 신앙민에게 칠성신앙의 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다. 신화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서사라고 한다면, 「칠성본풀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뱠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명하는 신화이다.

그러나 「칠성본풀이」가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서사임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칠성본풀이」를 고대의 신화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고대 신화의 화소와 구조가 확인된다. 뱠신변신(蛇身變身), 석함축출(石函逐出), 표착화소(漂着話素)가 고대 신화의 화소이다. 특히, 뱠신변신은 뱠신앙의 고대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3대 구조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대 신화의 구조이다.

「칠성본풀이」는 유입된 뱠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고대 신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 본풀이다. 「칠성본풀이」는 고대의 신화는 아니다. 그러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화라는 서사의 방식을 사용했고, 고대 신화적 요소를 계승했다는 점에서 후대적 신화라고 할 수 있다.

### III. 「칠성본풀이」의 신화-의례적 성격

제주도는 본풀이와 본풀이를 구연하는 의례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본풀이는 살아있는 신화이고, 신화의 생생한 구연 맥락인 의례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는다. Ⅲ장에서는 신화와 의례에 대한 논의를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2장의 연구를 통해서 「칠성본풀이」의 서사 속에서 확인한 신격은 외래의 신격으로 안고팡과 밧고팡에 좌정한 뱀 형태의 부신(富神)이다. 「칠성본풀이」는 심방이란 특별한 사제자(司祭者)에 의해서 굿에서만 연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화와 구연되는 의례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칠성본풀이」는 단일한 서사이지만 다양한 의례에서 구연된다. 「칠성본풀이」의 서사에서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합덕의 마을사람들에게 의례를 받는다. 그리고 송대감집과 제주목안에서도 위함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칠성본풀이」가 연행되는 의례는 서사에서 위함을 받는 양상과 차이가 있다.

「칠성본풀이」는 우선, 큰굿과 족은굿의 「각도비념」에서 구연된다. 큰굿이라면 예외 없이 「각도비념」이 행해진다. 그리고 「맹감코시」, 「문전제」에서도 「칠성본풀이」가 구연된다. 집안에 안고팡과 밧고팡을 중심으로 의례가 이루어진다. 단일한 서사가 여러 의례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가 중요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칠성본풀이」의 제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칠성본풀이」가 연행되는 의례를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ㄱ) 연향상고팡의 안칠성과 칠성눌의 밧칠성
- (ㄴ) 문전제·철갈이
- (ㄷ) 맹감코시
- (ㄹ) 각도비념(큰굿/족은굿)

「칠성본풀이」를 구연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양식은 (ㄱ)이다. 안칠성과 밧칠성은 「칠성본풀이」의 신격이 좌정하는 중요한 공간인데, 안팎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안칠성은 연향상고팡 또는 케팡에 모셔지는 것으로 곡물을 모시는 신, 밧칠성은 칠성눌굽이나 뒤뜰에 있는 우영의 담 있는 곳에 모시는 신이다.

안고팡과 밧칠성이 직접적인 의례의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정신앙의 의례적 기반을 형성하는 의례적 실체이다. 연향상고팡 또는 칠성눌굽에 모시는 것이 「칠성본풀이」의 의례적 기반이 된다. 영향상고팡의 안칠성과 칠성눌의 밧칠성이 곧, 칠성신의 의례적 신앙의 대상이 된다.



<사진 1> 안고팡<sup>37)</sup>



<사진 2> 안칠성<sup>38)</sup>



<사진 3> 칠성눌굽 예전 모습<sup>39)</sup>



<사진 4> 밧칠성<sup>40)</sup>

---

37) 김현선 제공

38) 김현선 제공

(ㄴ)은 정월에 정기적으로 연행하는 의례이다. 심방이 집집마다 순방해서 집안의 액막음과 가내 안녕을 기원하는 절차에서 의례를 행하게 된다. 의례에서 비념의 형태로 「칠성본풀이」를 간략하게 풀기도, 안고팡이나 칠성놀에서 풀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세시 절기에 맞춰 의례가 행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문전제」의 핵심은 가정의 제액초복을 기원이다. 「철갈이」는 핵심은 집안에 모시는 부신(富神)들을 위한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이다. 「철갈이」는 「벨롱갱이」라고도 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을 위한 제를 지낸 이후 칠성놀을 거두어 기와 뚜껑을 열고 그 속에 햇곡식으로 갈아 넣은 다음, 기와를 덮고 주쟁이를 다시 씌워 넣는 행위를 한다.<sup>41)</sup> 「문전제」와 「철갈이」를 함께 「문전철갈이」라 이르기도 한다.

「문전철갈이」에서 안칠성과 밧칠성이 주요한 대상이 된다. 안칠성과 밧칠성에게 세시풍속에 맞춰 햇곡식을 드리고 새 주쟁이를 씌운다. 주쟁이는 지역에 따라 주저리, 터주가리, 짚가리, 유두지, 업가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즉, 「문전철갈이」에서 안칠성과 밧칠성에 대한 의례 행위는 가정신앙의 대상이 되는 업을 모시는 업가리 신앙이다. 업가리 신앙은 집안의 재운을 관장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안칠성과 밧칠성에 좌정한 신격에 대한 신화인 「칠성본풀이」는 의례가 행해지는 형태로 보아 업가리 뱜 신앙이 근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저리, 터주가리, 업가리 등의 업 신앙은 주저리를 틀어 놓은 형태의 업가리가 대개 집 뒤란에 위치한다. 이러한 업은 집으로 들어왔다고 여기는 가정에서만 섬긴다. 이러한 점에서 「칠성본풀이」의 서사와 동일한 신앙임을 알 수 있다. 육지의 업은 보통 사람업이나 뱜업, 족제비업, 두꺼비업 등이 있는데 각도비념의 「칠성본풀이」는 뱜업에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육지의 업신앙과 완전히 동일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육지의 업신앙 가운데 뱜에 관련된 신앙만 해당된다.

또한, 「칠성본풀이」는 안고팡과 밧고팡이 따로 존재한다. 안고팡은 주로 집 안에, 밧고팡은 주로 놀곱이나 뒤뜰에 있는 우영의 담에 존재한다. 업 신앙은 집안에 좌정한다고 관념하기 때문에 가옥구조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 가옥만의 특수한 가옥구조를 반영하여 변형된 업가리 뱜 신앙이다.

---

39) 김현선 제공

40) 김현선 제공

41) 문무병, 제주도의 세시풍속의 특징,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p.178.

(二)에서도 「칠성본풀이」는 중요하게 연행된다. 「맹감코시」는 「맹감제(命監祭)」「맹감코스」「맹감」 등으로도 불린다. 「맹감코시」의 맹감은 한자어 명관(冥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명관'은 신명(神名)으로 신명이 곧 의례의 명칭이 된 사례이다. '코시'는 고사(告祀)를 의미한다.

「맹감코시」 정월에 생업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의례이다. 문무병은 「맹감코시」를 '산신맹감(山神命監)'을 조상으로 모시는 집안에서 지내는 세시풍속이라고 하였는데, 「문전철같이」나 「칠성제」, 「산신맹감」은 같은 날 한꺼번에 한다고 했다.<sup>42)</sup> 윤순희는 정기적으로 하는 굿은 주된 기원 대상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맹감코시」는 맹감신에게 주된 기원을 하는 의례로 「문전철같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칠성제」는 북두칠성의 신에게 자녀의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의례로 「맹감코시」와 「문전철같이」를 함께 병행한다고 했다. 신년의례로 칠원성군·맹감·가신들 모두에게 기원을 드리고, 제주도 와신리의 맹감제는 「드르맹감」과 「문전철같이」가 합쳐진 형태의 의례로 소개하고 있다.<sup>43)</sup>

맹감제는 단일한 신격만 모시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생업을 담당하는 신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동일하다. 세경과 같은 농신(農神), 수렵신, 산신 등을 위하는 절차가 바로 「맹감코시」이다.<sup>44)</sup> 이 절차는 「문전철같이」와 다르게 특별하게 확대된 의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칠성본풀이」가 구연된다.

현용준의 「맹감코시」의 제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공선가선 - 날과국섬김 - 연유닦음 - 군문열림 - 정테우 - 산받아 분부 -  
추물공연 - 세경본풀이 - 군웅놀림 - 상단 숙임 - 소지사름 - 문전액막음  
- 각도비념 - 도진<sup>45)</sup>

강정식은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2) 문무병, 앞의 책, 앞의 쪽.

43)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맹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16-38.

44) 제주도 사람들은 방위마다 맹감이 따로 있고, 생업에 따른 맹감도 따로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는 제석맹감, 사냥을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는 산신맹감, 어가에서는 요왕맹감, 배를 부리는 집안에서는 선왕맹감 등을 따로 모시게 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_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p274.

45) 현용주, 앞의 책, pp.423-425.

초감제 - 추물공연 - 세경본풀이 - 석살림 - 상당숙임 - 액맥이 - 각도비  
념 - 도진<sup>46)</sup>

윤순희는 「맹감코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첫 논문에서 와산리 지역의 「맹감코사」는 「드르맹감」과 「문전철갈이」합쳐진 형태로 보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드르맹감」

초감제 - 추물공연 - 맹감본풀이

#### 「문전철갈이」

초감제 - 추물공연 - 군옹놀림 - 각도비념 - 상당숙여 소지사름 - 액맥이  
- 도진<sup>47)</sup>

「맹감코시」는 얇은굿 형태로 요령을 흔들며 구연한다. 특별한 복식이 없이 평복으로 진행한다. 항상 해가 진 뒤에 연행하는 것이 관습이다. 생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풍요를 기원한다. 생업을 통한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순희는 「맹감코시」의 의의를 신년제의 기능과 가족공동체 통합 증대라고 설명했다.<sup>48)</sup> 「맹감코시」는 매해 정월에 하는 풍요 의례이며,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에 의해 진행되는 가정의례이기 때문이다.

「각도비념」은 제주도 무당굿 중 집안의 여러 장소를 지키는 신들에게 기원하는 제차이다. 「각도비념」에서 ‘도’는 제주도에서 신을 이르는 말이다. ‘백주또’나 ‘케네깃또’ 같은 제주도의 신의 이름에서 사용된다. 각각을 의미하는 한자어 ‘각(各)’과 신(神)을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인 ‘또’가 결합된 특수한 용어이다.<sup>49)</sup>

(근)은 집안의 여러 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행해진다. 무당굿 중 당굿에서는 연행되지 않으며, 집안에서 하는 굿에서는 반드시 진행되는 제차이다. 제주도 무속신의 위계에 따라 굿의 끝부분에서 행해진다.

「각도비념」에서 모셔지는 신들은 부엌의 조왕, 고팽의 칠성, 터주지신인 오방토신,

46) 강정식, 『제주굿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p.304.

47) 윤순희, 앞의 논문, pp.21-37.

48) 윤순희, 위의 논문, pp.85-88.

49) ‘각도’를 ‘각신(各神)’이면서 ‘각처(各處)’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강정식, 앞의 책, p.254.

집의 출입구에 있는 주목정살지신 등이다. 위계 순으로 나열하면, 문전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칠성신, 그리고 조왕신·오방토신·주목정살지신·눌굽지신 순이다.<sup>50)</sup> 그러나 「각도비념」에서 신들은 순서에 따라 모셔지지 않는다.<sup>51)</sup> 「각도비념」은 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집안의 일정한 장소에 가서 각 신에게 개별적인 비념을 동시에 진행한다. 실제 의례에서는 위계구분 보다는 집안의 각 공간에 따른 구분으로 제차가 행해진다. 「각도비념」은 집안의 여러 장소에 좌정한 신들을 모신다는 의식이 뚜렷한 가신(家神)에 대한 제차이다.

이 가운데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에 대한 비념으로 안칠성과 밖칠성에 좌정한 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이다. 현용준은 「칠성본풀이」의 연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공선가선 - 날과국섬김 - 집안연유 닦음 - 들어가는 말미 - 본풀이 - 비념  
- 주잔념김 - 산받아분부사嫫 - 다음제차<sup>52)</sup>

이에 대해 강정식은 일반적인 본풀이 제차에 따르면 공선가선에 앞서 말미를 길게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3)</sup>

제차는 칠성제상이라는 독립적인 제상을 따로 마련하여 제차를 진행한다. 보통은 앉은굿 형태로 장구를 치며 구연한다. 복장은 평복차림으로 「칠성본풀이」를 위해 따로 환복하지 않는다. 비념의 내용은 많은 곡식을 얻게 해달라는 풍요와 재물이 들어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뱀에 관한 우환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도 비념의 주요한 내용이다.

제주도에서는 뱀을 해하면 큰 별을 받는다고 관념한다. 뱀을 실수로 다치거나 죽여서도 큰 별을 받기 때문에 뱀을 마주치는 행위마저 꺼려한다. 그래서 뱀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비념을 한다. 뱀에 대한 제주민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50) 각도비념에서 모셔지는 신격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문을 지켜주는 문전신, 안고팡과 집 뒤 빈터에서 풍요와 富를 관장하는 칠성신, 부엌의 조왕신, 집 주위 오방을 지키는 오방토신, 집에 드나드는 출입로의 입구를 지키는 주목정살지신, 난가리를 지켜주는 놀굽지신 등이 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pp.233-240.

51)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칠성본풀이 - 조왕비념 - 오방토신 비념 - 주목정살지신 비념 - 놀굽지신 비념」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현용준, 앞의 책, pp.350-360.

52) 현용준, 앞의 책, pp.350-358.

53) 강정식, 앞의 책, p.255.

「각도비념」은 집에 각처에 좌정한 신을 섬기는 가신신앙(家神信仰)이다. 그중에 안칠성과 밧칠성에 좌정한 칠성신에 대한 의례로 「칠성본풀이가」 구연된다. 칠성신은 풍요와 부(富)를 관장하는 신이면서, 별로서 위압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민의 뱀에 대한 특별한 신앙이 확인된다.

「각도비념」이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풍요 기원 의례라는 점에서 「맹감코시」와 유사하다. 「각도비념」이 굿에서 가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연행될 때 함께 행해지는 점에 비해, 「맹감코시」는 특정 시기에 생업을 담당하는 여러 신격에게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독자적인 의례이다.

그러므로 「맹감코시」는 「각도비념」의 확장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신신앙을 굿에서도 부분적으로 연행을 하고, 독립적인 가신신앙의 의례도 주기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칠성본풀이」는 풍요와 부(富)를 관장하는 뱀신으로서 가정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富)를 관장하는 뱀신에 대한 가정신앙의 의미는 「문전철갈이」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전철갈이」는 가정신앙에 따른 세시풍속의례이고, 「맹감코시」는 생업에 관련된 신을 집중적으로 모시는 독립적인 가정신앙이고, 「각도비념」은 굿에서 반영되는 가정신앙이다. 「칠성본풀이」는 단일한 서사가 세시풍속과 고사, 굿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부(富)를 기원하는 뱀신의 관념은 동일하다. 「칠성본풀이」는 업가리 뱀신앙으로 특정 집안에서도, 제주도 전체에서도 모셔지는 특수한 복합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의례적 복합성은 「칠성본풀이」 서사와 부합하지 않는다. 서사에서 칠성애기와 자식들은 힘덕의 마을사람이 지내는 마을의례와 송대감집에 지내는 가정의례, 제주목에서 지내는 관청의례의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칠성본풀이」는 마을의례나 관청의례의 형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칠성본풀이」는 가정신앙의 형태의 의례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칠성본풀이」 서사에서 칠성애기와 일곱 자식은 이동을 통해 자신의 신앙집단을 구체화하고 현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단골의 규모가 개인과 집단, 지체 낮은 사람과 지체 높은 사람 등으로 대립적으로 제시된다. 특정 집안에 ‘테운 조상’으로 개인적인 신앙에 대상에서 제주도 전체의 퍼져 단체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 「칠성본풀이」의례도 개인적으로 특정 가정에서만 연행되기도 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굿에서 연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례의 핵심은 가옥을 중심으로 한 가정신앙이다.

안고팡과 밧고팡에 따라 신격이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분화되는 현상은 제주도만의

변이다. 또한, 도교에서 유래된 칠성부군과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의 칠성은 북두칠성의 신에게 자녀의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본래의 도교의 칠성부군과는 다르다. 칠원성군에게 제를 지내는 칠성제를 지내면서도 「맹감코시」와 「문전칠갈이」를 함께 지낸다. 「칠성제」의 칠원성군과 「각도비념」의 안칠성과 밧칠성의 신격은 다르지만 칠성이란 단어와 가정신앙이라는 점이 공통되어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의 주체는 구령이신인 칠성이다. 칠성부군은 재신,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구령이신인 칠성과 구분된다.

이상으로 「칠성본풀이」가 실제 연행되는 의례를 살펴본 결과, 「칠성본풀이」는 다양한 의례에서 구연되지만 규모의 크기나 행해지는 시기가 다를 뿐 부를 기원하는 뱠과 관련된 가정신앙인 점은 동일하다. 「칠성본풀이」의 의례는 업가리 뱠신앙의 제주도 특수한 가옥구조에 따른 변이형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뱠신앙인 「칠성본풀이」가 연행되는 모든 의례는 무당이 주관하여 행하는 무속의례이다. 무속의례에서만 「칠성본풀이」가 연행되고 전승된다. 무속의 형태로 전승되지만 신앙의 근저는 가옥이란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신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굿과 같은 집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무속의례에서는 연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속의례와 상관없이 가옥구조에 특별한 공간인 안고팡고 밧고팡을 통해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뱠신앙은 가정신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제주도의 뱠신앙은 무속신앙으로 발전하여 무속의례를 통해서 신화가 구연된다. 하지만 신앙의 실체는 무당집단과는 무관한 가옥구조에 있다. 때문에 「칠성본풀이」는 가정신앙이 무속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예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업가리 뱠신앙은 가정신앙임으로 「칠성본풀이」는 ‘테운 조상을 모시는’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의 성격과 부합한다. 「칠성본풀이」의 제주도에서 신앙의 시작은 서사에서처럼 일부의 사람들의 조상신으로 모셔지다 점 전체와, 지배계층으로 확장되었을 거라고 추론 가능하다.

## IV. 뱠 숭앙의 긍정과 부정 설화

뱀신앙은 원시적이고 고대적 유습의 산물이다. 뱠을 숭배하는 신앙과 뱠을 숭앙하는 것을 부정하는 신앙이 양존한다. 긍정적 신앙은 시대적 변천과 중세보편문명의 신앙이 도래하면서 부정적 신앙으로 전환한다. 뱠숭앙 신앙과 뱠부정 신앙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전개와 변천을 다루기 위해서다. IV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 1.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뱠굴」, 「선묘설화」 서사단락 정리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의 뱠숭상의 유래를 말하는 신화이자 서사시다. 칠성신앙과 연관되어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앙과 무관하고 뱠신앙이 핵심이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칠성본풀이」 이외 뱠을 숭상하는 설화가 전승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뱠을 배척하는 설화도 전승된다. 같은 지역 내에 뱠신앙에 관한 설화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것 또한 특별한 사례이다. 제주도 내에 다양한 뱠신앙 설화와 비교를 통해 「칠성본풀이」의 뱠신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제주도의 뱠신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칠성본풀이」 이외 제주도의 뱠숭상 설화로 「토산으드렛당본풀이」를, 뱠배척 설화로 「김녕 뱠굴」을 선정하기로 한다. 제주도 내의 뱠신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육지의 「선묘설화」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칠성본풀이」 속 뱠신앙 양상의 보편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신당(神堂)에 대해 전승되는 당본풀이다. 뱠신을 모시는 당으로 당제가 8일, 18일, 28일에 행해져서 ‘으드렛당’이라고 불린다. 토산1리에 있는 웃(上)토산과 구별하기 위해 ‘토산알(下)당’이라고도 부른다. 본풀이는 뱠신을 모시고 제의를 지내게 유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나주 금성산(錦城山)에 1년에 한 번 처녀를 제물로 받는 신이 있었다.
- 2) 이 고을에는 목사(牧使)가 부임하면 해마다 과직 되어 목사로 갈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목사가 지원하여 부임한다.

- 3) 목사가 부임하려 내려가다 금성산 앞을 지나려 하니 하인이 산에 영험한 신령이 있으니 말에서 내리라고 한다.
- 4) 목사는 그 신을 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한게 한다.
- 5) 천 맷 자 머리를 드리운 처녀가 나타난다.
- 6) 목사는 ‘인간이 무슨 신령이이겠느냐’며 참된 신령을 보이라고 한다.
- 7) 한 아가리는 하늘에 불고 다른 아가리는 땅에 불은 뱀이 나타난다.
- 8) 목사는 여의주가 없으니 신이 아니라며 포수를 시켜 뱀을 쏘아 죽이고 불살랐다.
- 9) 뱀은 바둑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에 날아갔다.
- 10) 제주에서 진상을 하려 올라온 형방들이 바둑돌을 주웠다.
- 11) 바둑돌을 줍자 진상도 수월히 잘되고 보답도 많이 받았다.
- 12) 형방들이 돌아 올 때, 바둑돌이 필요 없다 생각하여 버렸더니 태풍이 일어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 13) 문점(問占) 후 서낭굿을 하니 순풍이 일어 항해가기 좋았는데, 항해를 하다 보니 어느 새인가 바둑돌이 벳장 밑에 와 있었다.
- 14) 배가 제주도성산읍 온평리에 도착하자 바둑돌이 여인이 되어 상륙했다.
- 15) 여인이 온평리 본향당신인 맹호부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맹호부인에게 토산리에 자리가 비었으니 거기로 가라고 지시를 받는다.
- 16) 토산리로 가는 도중 하천리 당신인 개로육서도가 나타나서 여인의 손목을 잡고 수작을 부렸다.
- 17) 여인이 부정하다며 장도로 잡혔던 자신의 손목을 자르고 자린 손목을 명주로 감은 후 토산으로 내려가서 좌정했다.
- 18) 용왕국(龍王國)에 들렸는데 개로육서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듣는다.
- 19) 용왕국에서 올라와서 개로육서도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 20) 좌정하고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을 바치지 않았다.
- 21) 한 집안의 딸이 여자하인과 빨래를 하려 갔다가 파선 당하여 표착한 왜놈들을 피해 ‘목은 각단 새각단밧’에 숨었으나 겁탈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하고, 강씨 집안 외딸아기가 방아를 짓다가 하품을 하며 광증을 일으켜 죽게 된다.
- 22) 문점을 하니 토산당신의 탓이라고 하여 큰굿을 지낸다.
- 23) 굿을 지내는데 강씨 집안 외딸아기가 와서 누구을 위한 굿인지 묻고, ‘자신을 위한 굿이면 헛문을 열어 명주를 풀어보라’고 한다.
- 24) 명주를 속에는 말라붙은 배이 있었는데, 명주를 풀어 헤쳐 굿을 하니 강씨 집안 외

딸아기가 살아났다.<sup>54)</sup>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서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래의 목사에게 토착에 송상 반던 뱀이 퇴지 되는 내용이다.(1-8) 나주 금성산이라는 정확한 지명이 제시된다. 외래의 목사와 토착의 뱀신앙이 대립이 중요한 사건이다.

두 번째 부분은 뱀여인이 바둑돌로 변해 바다를 건너 제주로 들어오는 내용이다. 뱀이면서 여인인 존재가 돌로 변하는 특별한 화소가 존재한다. 뱀여인은 태풍을 멈추고 배가 안전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신성성을 보이며 제주로 건너온다.

세 번째 부분은 뱀여인이 다른 본향당신과 일정한 관계 속에 본향당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이다. 뱀여인 제주도에 입도하여 토착의 본향당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좌정을 허락받고, 다른 남성 당신이 수작을 부리자 손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뱀여인은 자신을 모시지 않자 흥험(凶險)을 주는 채양신적 면모를 보인다.

「김녕 뱀굴」은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용암동굴에 관한 전설이다. 김녕굴은 만장굴 바로 아래 있다. 김녕 뱀굴이나 김녕 사굴로 불린다. 전설은 이 동굴에 살았던 큰 뱀에 관한 내용이다.

「김녕 뱀굴」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구좌면 김녕리 마을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 굴 속에는 큰 뱀이 살았다.
- 2) 뱀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굿을 하지 않으면 밭을 다 훼저어 버려서 대흉년이 들게 만 들어서 매년 처녀를 한 사람씩 제물로 받쳐 큰굿을 했다.
- 3) 조선 중종(中宗) 때 19살의 서연(徐憐)이라는 판관(判官)이 부임하여 왔다.
- 4) 서 판관이 뱀굴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술, 떡, 처녀를 올려 굿을 하도록 하고 군졸을 거느리고 김녕 뱀굴에 갔다.
- 5) 굿이 진행되니 뱀이 나와서 제물을 먹으려 하자 서판관과 군졸이 창검으로 뱀을 찔러 죽였다.
- 6) 이를 본 무당이 ‘빨리 말을 달려 성 안으로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한다.
- 7) 서판관은 성안으로 말을 타고 달려 성 동문 밖가지 이르렀다.
- 8) 이때, 한 군졸이 ‘뒤쪽으로 피비(血雨)가 옵니다’라고 소리쳤다.

---

54) 현용준, 「으드렛당」, 『앞의 책』, pp. 610-616.

- 9) 서판관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 10) 죽은 뱌의 피가 하늘에 올라 비가 되어 서판관을 쫓아온 것이다.<sup>55)</sup>

「김녕 뱌굴」의 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래의 목사에게 토착에 송상 받던 뱌이 퇴지 되는 내용이다.(1-5) 외래의 목사가 토착의 뱌신앙을 물리치는 내용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서두와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이 나주 금성산이 아니라 제주도 김녕리라는 차이가 있다. 퇴치되는 뱌신앙이 제주도의 신앙으로 되어있다.

두 번째는 뱌을 퇴치한 목사가 뱌의 흉협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는 다르게 외래의 목사가 뱌에 의해 해를 입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외래 목사와 뱌신앙의 대립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서사이다.

「선묘설화」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닌『송고승전(宋高僧傳)』 의해(義解)편 당신라국의 상전(唐新羅國義湘傳)<sup>56)</sup>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석사(浮石寺)와 관련이 있고, 일본에서도 선묘에 관한 전승이 많아 주목할 만한 문헌이다.

「선묘설화」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의상과 원효가 서쪽 중국으로 가려고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탔다.
- 2)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 흙굴에 자게 되었다.
- 3) 다음날 흙굴이 백골이 있는 무덤가인 것을 알고 원효는 깨달음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 4) 의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길 다짐하며 상선을 타고 동주에 이르렀다.
- 5) 선묘는 의상이 결식하러 찾아오자 빼어난 외모를 보고 집에 오래 머무르게 했다.
- 6) 선묘는 의상을 유혹하였지만 의상은 넘어오지 않았다.
- 7) 선묘는 의상의 뜻에 감탄하여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공부하고, 시주를 맡아 필요한 물품을 주겠다’고 맹세한다.
- 8) 의상은 장안 종남사에 지엄삼장에게 화엄경을 익혀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 9)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오래 보시를 한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하고 배를 타려 갔다.
- 10) 선묘는 의상의 법복과 여러 법구를 상자에 가득 담고 쫓아갔지만 의상의 배는 이미 멀리 떠났다.

55) 현용준, 김녕 뱌굴,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pp.101-105.

56) 贊寧 撰, 『宋高僧傳』 4, 義解篇, 「唐新羅國義湘傳」

- 11) 선묘가 '진심으로 법사를 공양하고자 하니 옷상자가 배를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상자를 바다에 던지자 바람이 불어 상자가 가볍게 날아 배로 들어갔다.
- 12) 선묘는 다시 '몸이 변해 용이 되어 배를 보호하고, 저 나라에 이르러 불법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다에 빠졌다.
- 13) 선묘는 몸이 용으로 변해 배를 지키며 신라로 왔다.
- 14)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화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좋은 터를 찾고 있었다.
- 15) 선묘용은 항상 의상을 따르며 호위하다가 의상의 생각을 알고 커다란 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허공에서 큰 돌로 변했다.
- 16) 의상은 돌 아래에서 화엄의 가르침 강의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도 공경하여 토지와 노비를 시주하였다.

「선묘설화」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의상과 원효가 함께 당나라로 가려다 원효는 깨달음을 얻어 돌아가는 일화가 첫 부분이다.(1-4) 선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의상이 당나라에 가기 전 원효와 관련이 있는 일화이다. 의상의 태생과 성격, 성장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선묘가 의상을 유혹하지만 의상은 넘어가지 않자 선묘가 감탄하고 의상의 수행을 도울 것을 맹세를 하는 내용이다.(5-8) 의상은 불교의 수행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선묘도 불교에 감화되어 불교가 강조된다.

세 번째는 의상이 돌아가자 선묘가 옷가지가 든 상자를 바다에 던지고 자신도 용이 되어 의상의 배를 지켜서 돌아가는 내용이다.(9-13) 바다에 던진 옷가지가 든 상자가 날아가거나 선묘가 용으로 변하는 등 신이한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은 의상이 신라로 돌아와서 화엄사상을 설파할 장소를 찾자 선묘용이 하늘에 뜬 돌이 되어서 장소를 정해주었다는 내용이다. (14-16) 부석사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선묘용이 불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뱈신앙의 중세적 변이 양상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뱈굴」, 「선묘설화」는 일정한 연관성이 확인된다. 서로 비슷한 서사나 화소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설화 모두 뱈을 승상하는 뱈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네 설화가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뱌여인의 좌정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뱌신앙에서 네 설화는 전혀 다른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정리한 서사단락을 토대로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뱌굴」, 「선묘설화」의 서사단락에서 비교를 위한 핵심적은 공통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외래 중와 토착 여성의 만남
- (ii) 외래 목사의 토착 뱌 퇴치
- (iii) 뱌여성의 바다 건너기
- (iv) 뱌여성의 좌정

(i)의 내용을 보여주는 설화는 「칠성본풀이」와 「선묘설화」이다. 두 설화에서 토착의 여성에게 외래의 종이 찾아온다. 남자는 외래의 존재이고 여자는 토착의 존재이다. 남성의 이동을 통해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남자가 중이라는 중세 종교의 인물로 표현되는 부분도 중요한 공통점이다. 「선묘설화」의 의상은 실제 인물이기에 불교와 관련된 신분이 확실한데, 「칠성본풀이」의 대사는 점을 치고 예언하는 신이한 존재이나 불교와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종교적 존재임은 확인 가능하다.

여성도 이후에 뱌이나 용으로 변하는 존재라는 점이 공통된다. 용과 뱌은 다르지 않고, 뱌에 관한 신성성으로 뱌이 용으로 변화한 것이라 여긴다. 여인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여인이 뱌이 된다는 신화적 사고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점이 또한, 중요한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남녀의 결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칠성본풀이」에서는 남녀가 결합을 이루고, 「선묘설화」에서는 남녀가 결합하지 않는다. 「칠성본풀이」에서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 여성이 뱌으로 변신한다. 「선묘설화」에서는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 불교 수행과 교화가 이루어진다. 「칠성본풀이」는 뱌에 관한 신앙의 이야기이고, 「선묘설화」는 불교에 관한 이야기이다. 결국, 두 서사의 남녀 결합의 차이는 각 신앙에 맞는 변이다. 각 변이를 통해 「칠성본풀이」는 뱌 신앙을, 「선묘설화」는 불교 신앙을 더욱 부각시킨다.

(ii)의 내용을 보여주는 설화는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와 「김녕 뱠굴」이다. 두 설화에서 토착의 숭상 받던 뱌은 외래의 목사에게 퇴치를 당한다. 퇴치의 과정만을 보면 두 설화는 거의 동일하다. 남자는 외래의 존재이고, 뱌은 토착의 존재이다. 남자가 새로 부임을 하는 이동을 통해 남자와 뱌이 대립된다.

남자는 목사라는 벼슬을 가진 인물이다. 벼슬로 중세의 신분을 보여준다. 중세의 중앙 지배 체제를 대변하는 중세적 인물이다. 중세 인물로서 외래에 와서 토착의 뱌신앙을 물리치는 존재라는 점이 동일하다.

토착의 뱌은 중세 인물에게 물리침을 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는 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토착 지역에서 떠나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뱌은 여성으로 변하기도 해서 「칠성본풀이」와 「선묘설화」와 같이 여인이 뱌이 되거나 뱌이 여인이 된다는 신화적 사고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그러나 「김녕 뱠굴」의 뱌은 여인으로 변화는 신화적 사고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다. 목사에게 퇴치를 당해 죽음을 당한다.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와 달리 죽음을 당한 원한으로 목사에게 흉협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숭상을 받던 뱌이 있던 토착의 지역도 큰 차이를 보인다.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에서는 나주 금성산으로 되어 있어, 퇴치를 당하고 이동하여 제주로 입도한다. 반면, 「김녕 뱠굴」의 숭상을 받던 뱌이 있던 토착의 지역이 제주도로 되어 있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의 뱌은 외래의 존재이지만, 「김녕 뱠굴」의 뱌은 토착의 존재로 되어 있다.

(ii)의 내용을 보여주는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와 「김녕 뱠굴」은 외래의 중세 존재에게 토착의 뱌신앙이 퇴치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퇴치 이후 서사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김녕 뱠굴」의 뱌은 퇴치를 당해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저주로서 흉협을 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중세 존재와의 대립이 「김녕 뱠굴」의 뱌신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i)과 (ii)는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외래의 중세 존재와 토착의 뱌 또는 여인이 결합하거나 대립한다. 외래의 중세의 존재는 남성으로 중이나 목사이다. 모두 외래에서 토착의 존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중이나 목사라는 신분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세의 종교의 존재이거나 중세의 벼슬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모두, 중세적 존재이다.

토착의 존재는 뱌이거나 여인이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와 「선묘설화」에서 여성이

곧 뱌이 되고,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는 뱌이 곧 여성이 된다. 여성이 뱌이 되거나 뱌이 여성이 되는 신화적 사고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김녕 뱌굴」만 뱌이 여성이 되는 신화적 사고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다.

(iii)의 내용을 보여주는 설화는 「칠성본풀이」와 「토산으드렛당본풀이」, 「선묘설화」이다. 세 설화에서 뱌여인은 일정한 변신을 통해 외형을 변화시킨 후 바다를 건너 이동을 한다. 많은 설화에서 이동은 인물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화소이다. 뱌여성은 바다를 건너가서 새로운 신앙의 존재가 된다. 「김녕 뱌굴」은 중세 존재에게 처단 당해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존재이다.

「칠성본풀이」와 「토산으드렛당본풀이」는 이동을 통해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동을 한다. 바다를 건너는 이동이 제주도로 입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선묘설화」는 당나라에서 신라로 이동을 한다.

그러나 문화적 중심지에서 주변부로 이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중세의 전파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루어진다.<sup>57)</sup> 바다를 건너는 이동을 통해 특별한 존재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한다. 특별한 존재는 뱌신앙과 관련이 있는 여성이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 「선묘설화」는 배를 통해 이동을 하지만 「칠성본풀이」는 무쇠석함을 통해 이동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쇠석함이 고대 신화의 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칠성본풀이」의 화소가 보다 고대 신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선묘설화」에서도 이동의 수단은 아니지만 함(函)이 등장한다. 옷가지를 담은 함을 바다에 던지자 바람이 불어 의상이 타고 있던 배에 안착했다. 신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화소로서 함이 등장한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 「선묘설화」는 배를 지키고 이동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신이한 능력을 통해 바다의 태풍을 멈춘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는 제주도 형방들이 바둑돌을 벼려 태풍을 일으켰다가 서낭굿을 받고 배를 지켜준다. 반면, 「선묘설화」는 사모하던 의상을 지키기 위해 지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iv)의 내용을 보여주는 설화는 「칠성본풀이」와 「토산으드렛당본풀이」, 「선묘설화」이다. 뱌여성이 바다를 건너와 종교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칠성애기가 부당한 예우한 존재에게 별을 주었다가 온전한 예우를 하면 부(富)를 준다. 목욕재계나 허물벗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성한 존재로 거듭난 칠성애기는 부를

5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주는 업가리 뱌이 된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는 여인이 개로육서도의 수작을 자신의 손목을 잘라서 거절하고 좌정하여 흉험을 주는 본향당 뱌신이 된다. 「선묘설화」에서는 선묘용이 부석사의 터를 잡아주고, 화법사상 전파를 돋는다. 선묘는 불법을 지키는 호국용이 된다.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선묘설화」는 토착의 뱌여성이 외래의 중세 존재와 관계된 후 바다를 건너 종교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서사구조가 동일하다. 세 설화 모두 여성이 뱌이 되는 신화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선묘설화」는 뱌 신앙을 기저에 두고 있는 설화이다.

그러나 「칠성본풀이」는 도교의 칠성사상, 「선묘설화」는 불교라는 중세 종교가 덧붙여져 있다. 여성이 뱌이나 용이 되는 신화적 사고를 기반으로 뱌이나 용이라는 뱌 신앙이 도교(칠성)와 불교라는 중세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뱌 신앙과 중세 종교가 남녀로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여성은 뱌 신앙을, 남성은 외래에서 온 중세 종교를 대표한다. 남녀의 결합으로 뱌 신앙과 중세 종교가 융합된다.

반면, 「토산으드렛당본풀이」는 본향당신으로 토착신앙으로 자리 잡는다. 뱌 신앙과 중세 종교가 융합되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 오히려 중세를 대표하는 벼슬인 목사와의 대립만이 확인된다. 남성 당신인 개로육서의 수작에도 손목을 잘라 거절한다. 용왕의 꾸지람으로 개로육서를 부르는 각편도 있지만, 개로육서와 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김녕 뱌굴」에서는 중세 존재와 대립만이 확인된다. 중세를 대표하는 벼슬과의 대립만이 확인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세 존재와 대립이 발생하여 「김녕 뱌굴」의 뱌신앙은 전승되지 못하고 전설만 존재하게 된다.

서사적 동일성으로 구분하면 「칠성본풀이」와 「선묘설화」를,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 「김녕 뱌굴」을 묶을 수 있다. 「칠성본풀이」와 「선묘설화」는 뱌여성과 중세 종교의 남성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뱌신앙이 중세종교와 융합되는 서사이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 「김녕 뱌굴」은 뱌(여성)과 중세 신분의 남성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뱌신앙이 중세적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토착신앙으로 남거나 신앙이 사라져 전설로만 남게 된다.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뱌굴」이란 지역적 공통성을 갖는다. 제주도 내에 뱌신앙에 대한 다른 형태의 서사이다. 제주도 내의 다양한 뱌신앙 양상이 확인된다. 「칠성본풀이」는 업신앙이란 형태의 뱌신앙으로 칠성신앙과 결합하여 제주

도 전역에 퍼져있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는 뱌신양으로 본향당신으로 전승된다. 「김녕 뱌굴」은 뱌신양의 흔적이 보이지만 지금은 신양이 아닌 전설로 남아있다.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뱌굴」의 뱌신양이 현재 형태로 전승되는 양상이 서사를 통해서 구분 가능하다. 중세와 대립 양상을 기준으로 중세와 결합된 뱌신양, 중세와 결합되지 않은 토착신양, 중세에 밀린 사라진 신양으로 구분된다. 중세와 결합된 뱌신양의 양상은 제주도 「칠성본풀이」뿐만 아니라 육지의 「선묘설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뱌굴」, 「선묘설화」를 통해서 다양한 뱌신양에 관련된 설화를 살펴보았다. 뱌신양에 관련된 서사에서 일정하게 중세적 존재와 관계되는 양상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서사에서 중세와 결합되거나 대립되는 양상이 현재 뱌신양 성격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뱀신양이 중세의 존재와 관계되는 양상이 뱌신양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뱌신양이 중세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한 서사적 사유의 대상이 된다. 뱌신양은 고대 자연신양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므로 뱌신양의 중세 존재와 관계됨은 고대 자연신양과 중세신양의 관계를 의미한다. 고대의 토착신양과 중세 유입에 따른 대립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뱌신양이 중세와 관계를 맺어 중세화 과정을 겪었는지가 뱌신양의 전승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에 주요한 사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복합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진행되었다. 「칠성본풀이」의 복합적 성격은 단순하지 않고 서사, 의례, 신앙에서 각각 확인된다. 다른 본풀이와 서사를 공유하는 서사적 복합성, 단일한 본풀이가 여러 의례에서 연행되는 의례적 복합성, 뱠신앙이지만 칠성신앙의 칠성이라 불리는 신앙적 복합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칠성본풀이」의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뱠 신앙에 관련된 자료이고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많이 집적되지 않았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견이 많아 논쟁거리로 남아있고, 전체 서사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칠성본풀이」 전승 자료를 정리하고, 공통의 서사 단락을 추출, 자료별 특징, 전체 서사 단락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칠성본풀이」 자료는 총 15 편이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11편의 자료에 새로운 자료 4편을 추가하였다. 자료의 서사는 거의 동일하여 공통된 서사 단락을 정리하여 자료별로 단락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칠성본풀이」의 서사적 복합성을 확인했다. 「칠성본풀이」는 다른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는 서사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서사의 틀로서 신격의 탄생과 이동, 좌정의 과정을 보여준다. 고유한 신격은 안고팡과 뱃고팡에 좌정한 뱠 형태의 부신(富神)이다.

「칠성본풀이」의 신격 형성 과정도 해명하고자 하였다. 신격 형성은 고정적인 시간과 공간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화의 3대 구조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공간을 확장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의 특별한 업가리신앙의 신격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칠성본풀이」는 천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는다. 「칠성본풀이」는 신앙민에게 외래의 뱠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사이다. 「칠성본풀이」는 고대 신화는 아니지만 고대 신화의 서사구조와 화소를 활용해서 후대의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후대적 신화이다.

Ⅲ장에서는 여러 의례에서 구연되는 「칠성본풀이」의 제의성을 확인하였다. 「각도비념」은 궂에서 한 부분으로 반영되는 가정신앙이다. 「맹감코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가정신앙으로 「각도비념」의 확장된 형태이다. 또한,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인 「문전천갈이」에서 안고팡과 밧고팡의 주저리를 고체하고 햇곡식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업가리 뱬 신앙임을 확인하였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의 특수한 가옥구조에 맞춰서 변이된 업가리 뱬 신앙이다. 「칠성본풀이」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과 단체, 크고 작은 차이로 다양한 의례에서 구연된다.

그러나 뱬신앙은 가정신앙이 중심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칠성본풀이」는 무당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무속의례에서 연행된다. 그럼에도 무당집단과는 별개로 가옥의 특수한 공간에서 신앙의 대상을 모시고 있다. 무속신앙에서 뱬신앙과 같은 가정신앙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제주도 내의 다양한 뱬신앙에 관한 설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뱬굴」, 「선묘설화」를 통해 뱬신앙에 관련된 서사에서 중세화 과정이 신앙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상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칠성본풀이」는 뱬신앙을 기저로 하는 업가리신앙에 대한 궁금증으로 발생된 후대적 신화로 규정하였다. 신화는 고대라는 시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대 신화의 서사구조나 신화소가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외래의 신앙이라는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화라는 서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칠성본풀이」는 신화이다.

그리고 뱬신앙은 가정신앙이 핵심이지만 무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양태를 확인했다. 무속신앙의 근저와 시작점이 가정신앙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신앙이 무속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은 확인하였다. 가정신앙과 특수한 사제자의 결합은 앞으로 해명해 나가야할 문제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칠성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김녕 뱬굴」, 「선묘설화」는 모두 뱬신앙에 관한 서사이다. 뱬신앙은 고대의 산물이다. 뱬신앙은 고대의 자연신앙 시대의 생성되었고 고대 신화에서 뱬은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 왕권 시대에 중심 신앙이 되지 못했다. 뱬신앙은 토착신앙으로 외래의 중세관념과 극심한 대립을 했을 것이다. 그 혼적으로 여러 서사에서 송상되기도 배척되기도 한다.

본고의 논의는 뱠신양이 전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주 지역의 뱠신양만을 집중해서 해명하였다. 실제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지 사례를 확인하고 제주 지역의 뱠신양과 비교를 통한 이해로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뱠신양의 신화가 가정신양을 기저로 형성되었지만 무속신양의 의례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정신양이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통해 특별한 사제자의 집단이 전승하는 신양이 되었는지는 해명하지 못하였다. 「칠성본풀이」를 단초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를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육지의 뱠신양과의 비교, 나아가서 여러 나라의 뱠신양과의 비교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정신양이 무속신양이 된 사례의 과정을 추론하고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무속의 핵심이 가정신양에 있음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댁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風俗巫音(上)』,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 아카마스 지조(赤松智城),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찬녕(贊寧), 『송고승 전(宋高僧傳)』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2. 연구논저

- 강소전,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강정식, 『제주 끽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김현선,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 김현선, 『한국무조신화연구 : 비교신화학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 민속원, 2015.
- 문무병,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변숙자,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의 양상, 『탐라문화』 4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조영록, 「香山 妙善公主와 登州 善妙娘子 : 觀音·龍神 설화와 한중 해양불교 교류」, 『동양사학연구』 115, 동양사학회, 2011.
-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맹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뱠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현용준, 현승환, 제주도(濟州島) 뱠신화(神話)와 신앙(信仰) 연구(研究),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부록] 칠성본풀이 미발표 채록 자료 소개

### 자료14. 「칠성본풀이」 강대원 심방 구연본

미공개 채록 자료를 소개한다. 이 자료는 제주학연구소에서 행한 강대원 본풀이의 채록 자료 작업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자료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현정 선생님과 제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제주도 심방의 본풀이는 주로 말미 장귀에 의존하고, 말과 말미 장귀로 하는 음영을 섞어가면서 구연하는 것을 기본적 모습으로 하고 있다. 이 본풀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보자 : 강대원 / 제보일시 : 2017. 11. 12. / 채록자 : 이현정

[음영] 어명국은 안칠성

제석칠성 부군칠성 뛰여지고 난산국 누립서 큰뜰아긴 창밧할망

[음영] 둘쳇 뜰은 동현할망 쇠쳇 뜰은

옥지기 뉘쳇 뜰은~

과수원지기 다섯쳇 뜰 마방지기 으섯쳇 뜰은 담구멍지기

[음영] 일곱쳇 뜰은

뒷칠성 청주저리, 벽주제 흑주제

연그늘 알로 좌정허여

삽데다 강나목골 미옹선 질친밧 한가름 소피엣 ㅋ을

고장남밧 살아옵던 장설룡엣 데감님 송설룡에 부인님

[음영] 난산국

시주낙형 과광선 신풀이로 제 누립서

엿날 엿적에

[음영] 강나목골 미옹산

질친밧 한가름 소핏 ㅋ을

[음영] 고장남밧디 장설룡 데감과 송설룡 부인 천상배필



인연 무어

[음영] 종하님 거느리고 논전답 강전답

좋아지고 부가 허고 지가 허게 잘 살아도

[음영] 삼십 씨른 넘어 스십 굽 뛰도록 즈식 생불

없이

[음영] 살아가며 호이탄복협데다

흐를날은

[음영] 동계남으 상중절 서계남으 금법당

부처 직현 데서님이

[음영] 시주권선 받으래 도너리고 장설룡 데감님 면

올레에

[음영] 들어사며 나사며

“소승은 절이 뱅니덴.” 일러 사난

[음영] 송서야 장설룡

데감님이

[음영] 수벨캄 수장남

불리

[음영] “우리 면 올레 어느 절 데서가 온듯 허난 진 안으로 청허라.” 수벨캄 수장  
남은 장설룡 데감

말 들어근

[음영] 올레 나고 보난 이하 어느 절 데서가 오랏이난 “어서 들판, 우리 데감님이  
청허렌 험수다.” 염불 치며 데서님은 안으로 들어가 데천 한간 앞 여릿돌 알로  
굽어 생천허며

[음영] “소승은 절이 뱅니덴.”

이엣 일러사니

[음영] 이하 송설룡 부인 권제 앗아 나오라

권제 네여준다.

[음영] 장설룡 데감님은 이엣 금법당  
데서님 보고

[음영] “어느 절 데서며 어느 절 속하니 텁네까?” “나는 금법당 푸처 직현  
데섭니다.”

[음영] “오행팔괘 짚을 줄 압네까?” “압네다.” “단수육갑 집뜰 줄  
압네까?” “아오리다.”

[음영] “사주역을 볼 줄 압네까?” “스주역도 볼 줄 압네다.” “경 허민 우리 부부 간  
사주팔자 판단을 허여 줍센.” 허난

[음영] 데서님은 오행팔팔 단수육갑 집떠 주고 집떠 놓고 스주역을 네놓아  
초장 걷어 초년 판단

[음영] 둘셋 장 걷어 중년 판단 제 삼편  
걷어

[음영] 말년 판단을 허는디 어떻 허난 데서님 허는 말이 “데감님아, 부가 하고 지  
가 허게 종하님 거느리고 논전답 강전답 좋아  
잘 살암수다만은.” 허뒈

[음영] “갈림 후에 조식 생불 없어 초년 호이탄복 허는 듯  
협네다

[음영] 말허난 장설룡 데감은 “어찌 허여 조식 생불을  
잇겟십네까?”

말을 허는디 이엣 데서가 하는 말이 “금법당 촛아 강 칠성단에 불공을 석 둘 열흘  
백일

올리면

[음영] 조식 생불 잇일 듯 협니다.” 영 허여 그 다음에 제주시 서쪽으로는 이에 본  
을 풀어가고 동쪽으로나 남군드레 강 보민 “사는 집 뒤에 청결터 좋은 디 ㅋㅋ히 소  
지허영

칠성단을 모아

[음영] 칠성에 등수 들민 또 조식 잇이켕.” 허영 이엣 요 대목은

두 갈래로 나갑네다.

[음영] 영 헌디 이젠 그 말 줄아두고 데서는 이엣 올레 밧경 나가명 철쭉으로 절  
간 법당끄지 선그못 끊어

가곡

[음영] 장설룡 데감은 수벨캄 수장남 늦인덕 몬 불러 “대백미 소백미 짹찰 없이 몬  
짝 벡 근 체우라. 물멩지 강멩지 고리비단 능나비 돈 천금 은 말 량  
출려 놓으라.”

[음영] 영 허여근 마바리에 시꺼

이엣

[음영] 금법당 부처님을 촛아 가 칠성단을 어간하고 장설룡 데감 송설룡 부인  
이엣 뜬 방 출려  
불공 올려 갑데다.

[음영] 석 둘 열흘 이엣 벽일 불공이난 혼 둘 두 둘  
넘어

[음영] 이엣 벽일 굽 놓는디 좋다 궂단 말  
웃이난  
이엣~

[음영] 송설룡 부인은 장설룡 데감님앞이 간 “옵서 우리 법당 하직 행 가게 이제껏  
장 이거 벽일 굽이 다 뛰도록 수룩을 드려도 좋다 궂단 말이  
엇어지난.”

“어서 걸랑 기영 헉서.” 영 허여

[음영] 그날 밤 좀 자는디 청감주 호박 안주 먹어 뛰고 뒷날  
불공 가 불공 끂나난

[음영] 소, 장, [헛기침] 송설룡 부인이 데서님 보고 “우리 법당 하직 시겨줍서.”  
“기영 헉서. 오늘랑 어서 집 촛안 너려갑서. 헌디 지난 밤 아무 선몽 엇입데가?”  
“무사 엇입네까?”

[음영] 청감주에 호박 안줄 먹어 뻬데다.” “경 허민 집이 강 좋은 날짜 택일 받았



베필 무으민 즈식 생불

잇일 듯 험네다.”

[음영] 그 말 들어 집으로 장설룡 데감 송설룡 부인은 네려오고 좋은 날찌 텍일 받아

베필 무어

흔 둘 두 둘

석 둘 베일 넘으난

송설룡 부인 포태 꽂어 아호 열 둘 춘삭

차

[음영] 이 아이, 애길 낳는 디 뜰즈식 나

이 아기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을 무어

[음영] 키워 가는디 열멧 넘어

사가난

[음영] 장설룡에 데감은 “장송상 베실 살례 오라.” 송설룡

부인은

[음영] “송승상 베실 살례 오렌.” 허여 서란장이

느리난

[음영] “아이고 이 아기 어떻 해될 가코.” 장설룡 데감님 생각엔 ‘나가 둘양 가젠 허난 어명이 섭섭힐 듯 어명이 둘양 가민 내가 섭섭힐 듯.’

영 허난

[음영] 사는 집 문 꽂인

방 안

[음영] 이엣 칠성애기

들이쳐 놓고

[음영] 이엣 문을

중가근

[음영] 늦인덕이 불러 [말] “요 궁기로 밥 주곡 옷 주곡 물 주곡 키워시민 우리  
베실 다 살양 오민 종이 문서 삭 시기곡

양반잇

[음영] 도레 시켜주마.” “어서 걸랑  
기영 협서.”

[음영] 영 허여 문 뜻인 방 안에 칠성애기 가둡고, 이엣 문을 더께 거부통쉐로 종  
가 늦인덕 정하님앞이 “키와도라 공서 살양 올  
동안.”

[음영] 영 허여 맷겨 두고 이젠 아바지 어머닌 베실 살레 가젠 헌디 칠성아긴 “아  
이고 어멍 아방 베실 살레 가는 걸 보아사 할 건디 어들로 나가코?” 벵벵 돌아뎅이  
단 보난 문 더께 종그노렌 헤도 ㅎ籀 트명 나난 글로 슬짝하게  
나오란

[음영] 면 올레 간 숲 속에 곱앗구나  
곱앗인디

[음영] 아바지 탄 가메 나갑데다 어머니 탄 가메 나갑데다  
뒤쫓아 가는 게

[음영] 삼도전 쇠끼리가  
당하고

[음영] 아이고 아바지 탄 가멘 동드레 어머니 탄 가멘 서르레 가난 아이고 이거  
아방 탄 가메 쫓아가젠 허민 칠성애긴 어멍 탄 가메 일러불 듯 어멍 탄 가메 쫓아가  
젱 허민 아바지 탄 가메  
일러불 듯 영 허여근

[음영] 그디서 앙작치멍<sup>58)</sup> 울단보난 아버지 탄 가메 어멍 탄 가메 문짝 일러불고  
날은 즈물아 가고 촌이슬은  
느려간다.

[음영] ‘어멍 혜영 이 촌이슬을 피허린.’ 헌게 융드레 보난 융 뱃디 청세왓이 싫고

---

58) 앙작치멍: 어린애가 엄살하며 울어대면서.

그디 청세왓디 들어간 보난 어육폐기 잇이난  
어육폐기 으질 허여근

[음영] 잇노렌 허난 동으로 삼베중이 오는디 “앞에 가는 데서님아 날 둘양 갑서.”  
눈도 아니 거듭 떠 배리고 두 번째 오는 데서님 “날 둘양 갑서.” 눈도 아니 거듭 뜨  
고 세 번째 오는 데서 보고 “날 둘안 갑센.” 허난 윤 눈으로 영 헨 보난 곱들락 허  
고, 열뎃 넘어 ‘그만허민 몸짐이라도 이엣 둘양 누울만 허여 들일 만헌 거로구넨.’ 헤  
연 그땐 아강배포 부려 요랑 네냔 왕글왕글 왕글왕글 흥그난 아이고 이 칠성애긴 그  
만 열두 신빼가 요랑

소리에

[음영] 물랑거려지고 데서님은 청세왓디 놀려  
들어근

[음영] 청세 비여 오장삼  
멘들아

[음영] 칠성애기 들여놓고 퉁퉁허게 청세 또 비연 노 꼬안  
이엣

[음영] 무꺼 간다 그것이 칠성눌이앵 허영 주쟁이 논 디 강 보민 우인 줄 헤영 뻬  
舛 사려지기 법

마련도 웨엿십네다.

[음영] 영 허여 이엣 삼베중이 권제 받으레 뎅기는디 집이서 늦인덕은 ‘아이고 밥  
을 줘도 아이 받고 국을 줘도 안 받곡 물 줘도 안 받곡 오줌 므렵다 똥 므렵다 단지  
들이렌 말도 없고 아이고 이젠

어떻 허리.’

[음영] 고망 터진 딜로 야게 들이천 늦인덕 정하님은 방 안에 보난 아이고 개칠몽  
등이 하나 엇엇구나 칠성애기 간데온데

웃어지엇수다예—.

[음영] 웃어지언 허고 아이고 이젠 올레 벳겟 나오란 울성에 촛단도 못 촛고 또  
올레 벳겟 나오란 동넷 사름덜그라 “아이고 우리 칠성애기나 봐졌넨.”



허난~

[음영] 봐져렌 현 사름 엇고 “큰일낫져 어떻 허민 좋고.” 늦인덕 정하님은 또 장설룡 데감 송설룡

부인앞이

[음영] 편지 서신을 떠와

가념데다

[음영] 편지 서신 떠우기를 “아이고 데감님아 부인님아 상전임네 가분 지 후제 칠 성애긴 물 주어 아니 받고 물도렌 말도 웃고 또 밥 쥐도 국 쥐도 아니 받고 똥 오줌 모렵뎅 헤 단지도렌 말도 엇수다 큰일낫수다 동네 소문을 듣ಡ 봐져렌 현 사름은 웃어지고

[음영] 삼 년 살 공서 일 년에 일 년 살 공서 석 둘에 석 둘 살 공서 단 사흘에 모깡옵서.”

[음영] 영 허여 편질 떠우난 그걸 받안 보았고 장설룡 데감 송설룡 부인은 삼 년 살 공서 일 년에 일 년 살 공서 석 둘에 석 둘 살 공서 단 사흘에 모간 오란 이엣

[음영] 열쉐 올아, 문 올안 보난 아무것도

웃어지엇구나.

나간 글도 웃어지엇구나.

[음영] 아이고 동네방네 소문 기별 놓아간다 봐 져렌 현 사름은 혼나토 엇고 장설룡 데감은, 탄복허단 데천한간 지방 버여 누언 좀이 얼풋 든디 꿈에 선몽(현몽) 낭게 일몽(남가일몽) 허길 “닐 모릿날 어느 시간이 됐민야, 우리 집이 삼베중이 이엣 권제 받으레 올 께우다 권제 받으레

오라근

이리 허거들란

[음영] 처얌 오는 중도 권제 주엉 보네곡 두 번째 오는 중도 권제 주엉 보네곡 삼 시 번째 오는 중이랑 권제 주엉 문점을 험시민 알 도레가 잇수덴.” 선몽을 시겨 얼른 께난 보난 장설룡 데감

꿈에 선몽 허엿구나.

[음영] “아이고 어는제민 널 모리 삼베중이 오린.” 헌 게 시간을 동동  
기다린다

[음영] 아닐케 아이라 꿈에 선몽 뜰얘기 시긴냥 오라 갑데다 앞이 오는 데서 오라  
권제 주어 그대로 보네고 두 번째 오는 데서도, 들어오난 권제 주언 보네고 삼세 번  
째 오는 데서는 문점을 허렌 허난 기달리는디 쇠 번째 오는 데서는, ‘아이고 들어 강  
요깃 이녁 집이 왓젠 혜영 오믈락거령 던티나 나민 어떻 허콘.’ 혜연 먼 올레서 아강  
베포 부려 그 끌레기 큰 광돌 알러래 쏙 놓아된 아강베포 지어 권제 받으레 들어갑  
데다. 권제 받으레 들어간 “권제를 네줍센.” 허난

권제 네여주고

[음영] 장설룡에 데감님이 허는 말이 “데서님아 문점이나 흐꼽(조금) 해줘彤 갑  
서.” “무신 문점이파?” “금법당 가 수록 칠성단에 드려 넣은 애기 칠성애긴디. 이 애  
기 우리 과거 보레 갈는 시간에사 나갓인디 글지 후제사 집 밋게 나갓인디, 죽었이  
냐 살았이냐 한번 문점이나 해줍센.”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헙서.” 데서가 허는 말이,  
오행팔팔 달수육갑을 집떠 두고 [말] “이 애기 죽진 아년 살안 잇수다 살안 잇인디  
야.” “응.” “웨민 들을 만 부르민 데답힐만 헌 디 잇수다.” [음영] 그떼에 장설룡 데감  
이 허는 말이 수벨캄 수장남 문짝 불러 “저 중 이 중 잡아 총베에 물 적정 스문절박  
허렌.” 일러

가는디

[음영] 데서님은 이엣 즈지어남 보은 안개 잔뜩 끼어두고 도망을 가불고 즈지어남  
걷언 보난 데서는 간데온데

엇어지곡

[음영] 면 올레 밧겼딜로 애기 우념 소리가  
나갑데다예—.

[음영] “필연곡절 이상허다.” 면 올레에 나간 보난 애기 우념 소리고 이엣 장설룡  
데감 수벨캄 수장남 문짝 동넷사름들 모다들런 그 돌을 잣현  
보난

[음영] 아이고 그디 오장삼이 잇언 “이건 무신 건고?” 헤연에 끌레길 몬짝 틀언 해  
싼

보난

[음영] 머리는 사름이 머리요 사신인수 뛰엿입데다 베는 두룡배가  
뛰엿고나.

[음영] 영 허여 이걸 죽이젠 허단도 장설룡 데감은 이논 공논 [말] 누게앞이 간 헌  
처린 모르쿠다 이에 이논 공논을 헷젠 말은 들엇수다.

영 허여

[음영] 이논 공논 허고 동이와당 췄철이 아덜 불러 벽몰래예 췄물  
허여

[음영] 무쉐설캅 차 먹을 거 입을 거 이엣 담아  
놓고

강나목골 미옹산 질친밧

[음영] 한가름 소핏仄을 고장남밧서 이엣~ 솟아난  
옛

칠성애기부군 스신요왕(바다) 띠우난

[음영] 밀풀엔 서이와당 썰풀엔

동이와당

[음영] 물 우이 연삼 년 물 알에 연삼 년 아홉 삼 년 흥당망당 이엣 뜨고 누려 오  
는 것이 육지렌 아니 가고 우리 제주 절도래 흘러 누리는 게 함경면

고산리

차귀 당산봉 알로

[음영] 들어올 적에 글로 들젠 허난 대정 원임이  
씨여지고

못 네든다

[음영] 이엣 들물에 동드래 흘러가는 것이 이엣 안덕 중문 서귀  
넘어근

남원 넘어

표선으로 들젠 허난

또 이전

[음영] 이엣 성읍리 현감 씨여

못 네든다

글로 허여 흘러 흘러 동드, 동 알러레 느리는 것이

[음영] 주목안드레 느려사고 제주시 산지 포구로

들젠 허난

주목안

[음영] 판관이 씨여지여 들물에 또 서르레 흘러가는 게 한림 맹월

이엿~

[말] 이엣 원임, 현감, 판관, 만호 [음영] 씨여지여 이엣 못 네들어 글로 쌀물에 흘러 느리는

것이

[음영] 어딜로 오는곤 허난 조천면 함덕 서무봉 알에

오랏수다

[음영] 서무봉 알 무신개 안핀<sup>59)</sup> 그디가 횃 허게 이엣 둘러싸여진 디고 냄름 불엉  
절을 지치믄 나가도 들어오도 못 헐

궁기 안네 오꽃 들언

[음영] 후네기 절고개 무승개 우이 빌레 우터레 갖단

지쳐부난

또 이전에

[말] 느려오도 못허고 올라가도 못허고 이젠 그디 잇노렌 허난 함덕 일곱 가위 신흥 으섯 가위 신흥 함덕 열식 가우 마련해여 사름이

살 뗀디

[말] 함덕 일곱

---

59) ‘앞쪽에’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즘수가

[음영] 물질 허례 무승개

알로 간

보난

[음영] 난데웃은 무쉐설캅 올랏입데다

영 허여

[음영] 일곱 즘수가 “느 봉갓져.” “나 봉갓져.” 영 허연 싸움헐 때, 대흘 송첩이 송동지 하르방은 고생이 촘데에 맹탱인가 바구닌가 둘러매여 앗언 아침 물떼에 가근에 고생이나 나까당 정심 반찬

허젠 (기침)

[음영] 간 보난 일곱 즘수가 싸왑시난 [말] “야야들아, 느네덜 혼 동네 살곡 혼 물에 들곡이 무사 싸왑딘.” 허난 “아니 나 이 설캅을 봉갓인디 저것이 봉갓그렌 햄수다.” “아니우다 나가 봉갓인디양, 저 년이 봉갓젠마씸.” 영 허명 일곱 즘수가 쌍단 싸우는디, 송동지 하르방 허는 말이 “야야들아, 느네이 경 말양 거죽이랑 날 주곡 그 안네 은이 드나 금이 드나 느네덜 갈랑 앗이라.”

“기영 협서.”

[음영] 송동지 하르방은 그 무쉐설캅을 어찌 읊잇는지 것도 곧는 사름이 이제끄장 못 들었수다.

[음영] 무쉐설캅을 읊안 보난 벼암으 사끼 으덥 으뜰이 앗안 데가리 미쭉 세 멜록 헤염구나 “요거 은이여 금이여 마 느네덜 앗이라.” 하나씩 꼴리 심언 꽉꽉 데껴가난 “아이고 추접허다 덜럽다 저영 헌 거 놓안 우리 싸와지엿구나 물질 들어가게.”

[음영] 물질 들어간 그날은 오꽃 눈도 그려불고 아이고 쌀구챙기 문둥구챙기 뜬 뗐 데전복 소전복 하영 헷인디 그날은 요 거드래기 새끼 하나 못네

잡안 일곱 즘수가

[음영] 나오고 집이 간 지치난 그날 저녁 즘

자는디

[음영] 뒷날 아침인 일곱 좀수 집인 오꽃 갑자기 득병이 생깁데다. “아이고 머리여 아이고 눈이여 아이고 늑빨이여 손이여 발이여 베여.” 문 일곱 좀순 죽어간다

[음영] 이 집이 강 봄도 부모들은 조들암곡 저 집이 강 봄도 조들암곡 “아이고 어떻 허민 좋으코.” 제주시로 이 서르렌 가물개 이원신앞이 강 문점 헷쟁 허곡 또 제주시 동쪽으로 세화리

김씨 선성앞이 간 문점 허난

[음영] 이에 “이 일곱 좀수 눈으로 본 쥐척 손으로 지은 쥐척 입으로 속절지 쥐척 뛰여진덴.” [음영] 허난 “어떻 허민 좋읍니엔?” 헤여 “글로 가근에 그 걸 잘 위허여사

좋은덴.” 허난

[음영] 또 이전 이옛 그 선성님네 곧는 양 글로 간 돌썩이덜 조근 조근 조근 이옛 모하 놓고

[음영] 또 다시 글로 식게 떼영 맹질 떼영 정월 낭 허민 이옛 그 벼염으 새끼 일곱

개

으덥 잇뜰

[음영] 유망적선 헤가난 유망적선 허는양 그 함덕 일곱 가위집 해녀덜은 잘 뛰고 신흥 오섯 가윗집 해녀덜은 아이 뛰가난 소문 기별 들어간다

[말] “야 느네덜은 어떻 허난이 경 물에 들민 망시리 ㅋ득핸 나오람디?” “우린 저 디 영 정 현 거 위허난.” “아 계믄 우리도 위허켜.”

“경 허라.”

[음영] 경 허는 것이 제라헌 칠성제는 북두칠원데성군 테성군 원성군 정성군, 류성군 강성군 기성군 관성군인디 벼염으 사끼 일곱 개 으덥 으뜰, 위망적선 허는 것이 함덕광 신흥 두 막을에서 지일 묻저 칠성제앵 해근에 기도법 낫전 허옵데다—.

[음영] 영 허여 그디 신디 그 급수황하늘은 어떻 헨 즈순덜 보민 [말] 올 땐 지영  
오고 갈 떼엔 빈 구덕 윗땡이 찬 가가난 ‘거 이상하다 흔번 이거 순력을 돌아봐사주  
그냥 봐 네불민 텔 일이 아닌 것 같고.’ 당신도 베고파지고 헤노난 돌단 보난 난데  
웃이 생각 웃인 것덜 위망적선 햄시난 [음영] 아그랑

작데기 서벌 가웃자리

둘러 받안

[음영] 잡아, 잣 헤싸 걸려 캐우리는 것이

함덕

[음영] 벡몰래왓디 떨어지연 낯인 드신 벗에 더워 죽어질게고 밤이 덜은 아이고  
촌 누릇에 을구나 숨부기낭

알로 가근

[음영] 좌정허난 함덕 일곱 거리첩잇 얘기덜, 신흥 으섯 거리집  
아기덜

[음영] 이엣 벡몰래왓디 뜯 부락엣 아이덜이라도 이엣 벡몰래왓디 놀래 강 오줌  
드려우민 이엣 버염잇 새끼고 아무 거고 숨부기낭 우트레 오줌 싸 줄겨 불민 지렁네  
뚱네

나간다

[음영] “아이고 이디 좌정헐 디 못 훠구나.” 지금 서물한집 뒤에, 이엣 또 이에 서  
물하르방 서물할망

이엣

[음영] 또 급수황하늘 글로 좌정시겨

두고

[음영] “제주시 놀기 좋고 구경 좋덴 허난  
오라 가게.”

“어서 걸랑 경 협서.”

[말] “낮이랑이, 신작로로 못 간다. 밤이랑 신작로 길로 가곡 낮이랑 숲 속 덤벌 속  
으로 가게.”

“어서 걸랑 경 험서.”

[음영] “소롯질로 가게.” “경 험서.” 일고 으덥 으뚤이  
가는 것이

[음영] 이엣 조친 만세동산 가 이에 옛날 일본 한국 해방될 때 만세 삼창  
불러낫져 초첨 영기

불려두고

넘어간다

가는 길

[음영] 지금 이엣 신촌 초등학교  
또 이전

[음영] 이에 앞이 간 이엣 그디 열네비 세와겼구나 글로도 간  
이엣 초첨 영기 불려두고 성 안드레

[음영] 낮엔 숲 속 소롯질

밤이는

데롯질로

갑데다

[음영] 아이고 짐도 질다 진드르  
신촌은

서쪽 지와 갑데다

또 다시

[음영] 글로 허여 오는 것이, 삼양 파출소 넘어 삼양  
삼동

[음영] 벼렁은 완 보난 이에 그디 “큰 물팡돌 우이 시름 쉬엉 성 안드레 가게.”  
“어서 걸랑 경 험서.” 그디

초첨 영기

[음영] 큰 팡돌 우이 불려  
두고

제주시 들어오는디

[음영] 예헤햇 어딘곤 허난, [말] 지금 그 물통이 웃수다. 그디 옛날 먹쿠실낭도 잇어난 거 나가 알아집네다. 어떤행 아는곤 허난 질 넓게 모짝 파 밀어 데껴부난양 웃수다. 그 화북공업단지례 들어가는 바로 그 고분데긴디 옛날에 조그만한 물통이 잇었고 그딘 또 먹쿠실낭이 잇었수다.

그디

오랑 이여근

넘어사는 것이

[음영] 베릿네 들어오라 보난 [말] 물이 벤직벤직 헷이난 “야.” “양?” “우리 이끄장 오젠 허난이?” “예.” “몸에 구дум도 쓰고 옷도 문 버물고 묵은 옷 헐엇이난이?

현 옷이랑

[음영] 벗어근에 이엣 뱃인 거 저 탈낭

이엣

또 이전

우터레도

걸치고.”

[음영] 아이고 그 가시낭 이름은 이젠 문 잊어부렸수다. 걸랑 이땅 생각해영 선성 님덜앞이 잘

줄으쿠다

[음영] 세비남 가시여 우트레 걸치곡 묵은 옷 벗어 또 궁기 궁기 궁기 궁기  
담 궁기

[음영] 이엣 좁정 네불곡 영 허여 구월 구일엔 이엣 지픈 땅 속 덤벌 속, 엉덕 아래 숨엇당 삼스월 나민, 나오랑 이엣 묵은 옷은 벗쟁 허영 세비남 탈남 가시남 우트레 걸치곡 담 궁기로 뎅기멍 이엣 묵은 옷 벗어나난 이엣 버염 헐벗은 거 잇기도 마련햇젠

줄웁데다

영 허여

[음영] 그디 베릿네에서 아이고 모욕핸 나오란 돌아상 보난 또 물이 골챙이마다  
벤직벤직 담아지엇구나 이 딜랑

베릿네 이름 지와두곡

[음영] 지금 교육대학 이엣 잇인 동산이 열메사 높았인디 으덥 으뜰이 그 동산을  
올라가난

[음영] 숨이 찬다 ㅋ웃 쪐다 ㅋ으니모를

이엣

동산

[음영] 이름 지와 오단 보난 [말] 아이고 그 오일장 헤여난 디 으충 피충 사름 아  
기 죽언 많이 무덤덜 허엿구나 “무섭고 서깝다.” 그냥 그던 그대로

이엣

[음영] 넘어사고

지금

[음영] 여상 흑교 잇인디 그 옛날은 무과급제 병과급제 허쟁 허영 또 이 천근들이  
베근 쌀 베근들이

천근 활

둘리 받양

[음영] 활啐기에 자원허민 무과급제

병과급제

또 이에

[음영] 보는디 무섭고 서깝다 들어가는 입구 초첨 영기

불려두고

성안읍 중 들어가저 동문이 증가진다

남쪽으로

[음영] 돌아가는 게 남문도 증가지엇구나 들 수 엇고 서쪽으로 돌아가 보난 서문  
도

증가지고

[음영] “아이고 어들로 행 들민 좋고이?” 영 허여 지금 이엣 제주시 안네 북국민호교 허곡 서르렌 오민 [말] 서국민호교 두 게 벗긴 웃인 떼엔 험디다. 험디, 그디 신이 집서도 열한 설 열두 설 열서너 설 헐 떼끄장 [음영] 지금 그 약국 잇인디 웃인디, 요 알녁

웬이우다

[음영] 쇠커리 알녁 쪽 북국민호교 뒤에 성담이 잇엇수다, 건 나도 압네다. 영 험디 어딜로 담 궁기라 난디 싯카부텐 영 헨 촛단 보난 개 고냉이 들락날락 헐 만한 수쳇 궁기 잇엇구나 글로

허여

[음영] 들어오고 “어딜로 가린?” 이 관덕청 집 뒷골목으로 허연

나오라

[말] 관덕청 집 앞이도 지금 그 돌이 뒤에 꼭 상석을 헌 거 닮은디 우리 집이 이 엣 사진엔 장 보민 그 벗돌이 잇수다. 베염 으덥 으뜰 뉘난 돌 잇인디.

[음영] 선비덜 넘어가명 “더럽다 추집허다 독살스럽다.” 춤 턱탁 바까가난 “야 이 디 벗돌로 이름이랑 집웨이? 우리 이디 좌정 못허켜.” 글로 헨 서르레 오젠 헌 것이 요 구시청 앞이 남쪽으로 그디 쪼꼴락 헌 골목도 잇엇고 이젠 질 넘영 이젠 보난 문 짹 늘루와 부럿수다. 그디 포졸 나졸덜이 서둠서롱 베고팡 먹젱 허민 쥐 엇은 벡성 심어다 된 테작머리 혜영 웨물 주민 살려주곡 아이 주민 그자 몽둥이로 테작 혜근에 보네곡 허는 골목이 션디 [음영] “아이고 나 살려줍센.” 허명 웨염구나 이딜랑 사름 죽건

객석골 마련허곡

[음영] 또 제주대학병원 해난 앞으로

허여

[음영] 이엣 동드레 넘어가는 것이 남문통 올라간 길 넘어산 보난 아이고 산물이 자랑자랑 네리곡 멘발에 걸을 수 엇곡

나는 물이난

[음영] 넘어가제 허민 남신덜 신영 그 물을 넘어가명 왈칵달칵 자갈에 걸령 소리  
남구나 이디랑

남신덜�� 남천꼴

마련허고

[음영] 글로 해여 또로 나가는 것이

동문노타리

[음영] 알녁 쪽 보난 높직한 동산 잇언 [말] “야 오라 우리 저디 강이 훈좀 낮좀  
장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힙서.” 으덥 이뜰이

그디 가근

[음영] 높은 동산에 갈라젼 해남석에 누원 자당 깨나난 배가 두릉베 뛰간다

이디랑 배분동산

이름 짓져

[음영] 영 허여 배분동산 이름 지와 또로 오라 이엣 “우리 저레 구경 가게.” [말]  
“어디마씸?” 이 대목 오랑 또로 혼판 싸움이 납네다, 칠성본에. 무산곤 허난 글로 해  
연 그 바로 앞이가 산지 난 물이랏인디

이엣 드린 엇수다마는 허데

[음영] 글로 허연 산짓물에 간 이엣 놀암시난 칠성통에 [말] 송침잇 아들인가 메누  
린가 각신간 뜰인간 모르쿠다만은 세답허례 강 둘라오랏젠 허곡 나가 들어 서촌에서  
뵙기에는 남문통

송침이

[말] 메누린가 뜰인가 그디도 나 모르쿠다 각시

모르쿠다만은

[음영] 영 허여 세답을 산짓물에 간 허연 혼나 뾰앙 들여 노민 하나 하나 뾰앙 들  
여 노민 하나 영 허명 으덥 으뜰이 문 들어 앗으난 아명 젖은 세답이주만은 무거완  
죽듯 살듯 지어앗언 집이 간, 젖은 세답 널젠 하나 텔민 하나, 하나 텔민 하나 으덥  
이뜰이 문딱 텔어지곡 세답도 다

널어지난

[말] 그 송칩잇 어명인가 메누린가 뜰인간 열두 폭 치메 입언 나오란 “나신디 테운 조상이건, 이 치메통드레 [음영] 어서 듭서.”

영 허여근

또 이저는

예해

[음영] 들어오난 그걸 치메통에 담앙 안네 간 고팽드레 비와 놓 모시젠 허난, 널판 데기 궁기 궁기 이엣 좀 먹은 궁기여 또 벌거지 먹은 궁기여 영 헨 잇엉 고망이 글로 절로 이엣 터져부난 어느 고망드레사 들어가민 어느 고망으로사 위허믄 졸 처리 몰라지언

그냥

[음영] 뒤에 간 보난 동네 공터 유저남 텩저남 데왓이

잇엇구나

글로 으덥 이뜰

치메통에꺼 비와놓곡

[음영] 초흐를 보름 데소상 맹질 때

위망적선 허여가난 남문통

[음영] 이엣 송칩잇

이엣 또 이전엣

[음영] 부제가 부각부각 뛰가난 동네서 수군수군 거려가고 이엣 부군 어명국 칠성 은 그 눈치 알안 “설운아기덜아, 우리 이디 잇당이 혼 몽둥이 혼 매에 뜨리민 죽을 거난 문딱 갈라상

가 살게

갈랑 살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서 .” 큰뜰아기 [음영] 어명이 허는 말이 “어들로 갈디?” “난 창밧할망.” 둘쳇 뜰은

동원할망

식쳇 뜰은 옥지기

느쳤 뜰은 과원지기 다섯햇 뜰 마방지기

으섯햇 뜰은

[음영] 이 궁기 저 궁기 담 궁기 궁기

궁기지기 또 이전

[음영] 초가집에 안서리 밧서리 서슬 이엣 ㅊ지

또 이

[음영] 네려 “족은 뜰애긴 어들로 갈디?” [말] “난 이디 그냥 잇이쿠다.” “경 허  
냐?” “예.” “이디 시엉 식게 맹질 떼에 웃제반 걷엉 날 위망허민 위망적선 [음영] 허  
는 데로 이엣 부귀영화 시기쿠다.” 그떼 넌 말 두고서 이엣 족은 뜰아기는 데왓 아니  
믄 유저 옛날 텅저남 또 산물낭 알로 아니민 그런 거 웃이믄 검은 지세 이엣

시리 알로

우더꺼

[음영] 위망적선 헌디 족은뜰 허는 말이 [말] “어머니는 어딜로 가쿠파?” “난이 어  
제석땅 ㅊ지 허켜.” “아오, 경 허꽈? 어머님이 잘 감수다.” “안으로 안칠성 ㅊ질허영  
일 년에 혼 번 상정월 영등 이월 삼월 늦인 즈순은 스월끄지 [음영] 이엣 좋은 날저  
텍일 받양 날 위망적선 허민 이엣 그 집이 먹을 연 입을 연 세경땅에 상눌굽 중눌굽  
하눌굽에, 일천석 부귀영화 시겨줄노렌.” 허난 [말] “어머님이 질 잘 감수다.” “기여  
나 질 잘 감져. 헌디이 정월에나 이월 [음영] 삼스월끄지 [말] 요랑 소리 왕글왕글 쟁  
글쟁글 나걸랑 문짝 모다들라 경 허민 나 떡이영 밥이영 궤기영 맛좋은 거 하영 받  
양 놔뒀당 느네덜 문짝 갈라주마.” [음영] “어서 걸랑 기영 헉서.” 부군칠성한집 난산  
국

신풀엇수다-

### 자료15. 「부군, 칠사신본」(전사 자료)60)

이 자료는 필사된 자료를 옮겨 적은 것이다. 강대원 심방은 구전되는 자료를 일일이 전사하여 간직하고 이를 찾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 자료 역시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심방의 구전신가를 자필로 기록하여 간직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자료의 구전과 문전 양상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여서 함께 부록으로 수록한다. 표준어 표기에 상이한 점도 있으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자료이므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 강대원 / 조사일 : 18. 3. 24. / 전사 : 김호성(18. 4. 23.)

옛날 옛적에 강남 옥골, 미양산, 길친발,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이 삽데다. 갈 임 후 논전답도 조와지고, 강전답도 좋아지. 수별감, 수장남 거느려 잘사라도. 삼십 서른 넘고 사십 세가 건당해도 자식생불이 없써지여서 걱정이 되어집데다.

한데 하룬날은 동개남 상주절, 서개남 은중절, 부처님직한 대사님이 부처님에 불공 수록 올리고 난 다음 지극성 인생사는 곳을 내려 권제 바더라 명 없는 자 명도 비려 주고, 복 없는 자 복도 비려주고 현당. 현절도 수리하젠 시권제 바드래 내사서 시권을 밟으래 드러가는 것이 장설룡 대감집으로 드러서는 것이 면올래 당도하고 수록을 올일 때, 장설룡 대감은 수별감 불러서 우리집 면올래 어느 절간 대가가 오라시니 진안으로 청하래합데다. 수별감은 장설룡 대감 말데로 올래 가고본이 대사님이 있습데다.

수별감은 우리집 대감님이 대사님을 청하렌 하염수다이. 대사님은 드러가서 집한 간 열이돌 앞으로 업데하면서 소송은 절이 뱜니다이. 장설룡은 시권내여주렌하난 송설룡 부인은 시권제 내여줌데다. 대사님은 시권제을 밟고 나니 장설룡 대감은 어느 절 대사님이 됩니까고 말하난 대사는 동개나무 상주절 부처님 직한 대사우다고 말합데다. 장설룡은 그리하면 오행팔팔 단수육감과 화주역도 볼줄 암니까고 무르난 암니다고 대답합데다. 장설룡이 그리하면 우리 부부 사주팔단하여 좁서이. 대사님은 오행팔팔 단수육갑 집드고 화주역을 보고 하는 말이 대사님은 갈임 후 살기는 살기는 종하님 거느려서 잘 살고 있읍니다만 자식 없는 것이 한탄이 됩니다고 대사님은 말을합

60) 이 자료는 2018년 3월 24일에 김현선과 필자를 포함한 경기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진행한 강대원 심방과 인터뷰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강대원 심방의 자택에서 영등굿과 칠성신앙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끝에 자신이 필사해두었던 자료를 조사팀에 제공하였다.

데다. 장설룡은 대사님 보고 엇찌하면 자식 있겠습니까니. 대사님은 금법당에 칠성단에 수록을 올리면 됩니다고 대사님은 말씀하고 절로 도리깝데다.

장설룡은 수별캄 수장남 불러서 대백미, 소백미, 물명지, 강명지, 돈천금, 속낙지 여백 근을 체워서 마바리에 식거 금법당 면 문앞에 당도하난 금법당 땅너구리 개는 내발굴려 죽거간다. 대사님은 속한이 불러 저기나고보라. 땅너구리 엇찌죽구는냐이. 속한이는 내발굴려 죽금니다고 말합데다. 대사님은 장설룡 대감이 수록드리러온다 진안으로 청하라이. 속한이는 면올래로 가 청하여 드려와서 마바리 짐클러서 부처님 앞으로 큰상에 불궁간 물건을 대추남은 저울대로 저울이고 불궁간날부터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땐방 갈라 살면서 수록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석달이 너머간다.

한데 대사님은 아무 말이 없써지고 송설룡부인은 용심이 나간다. 장설룡 대감 앞에서 하는 말이 대감님아 우리가 원불수록 와서 하루도 안이고, 한 달도 안이고, 석 달너머 백 일이 다 되는데 옵서 내일랑 수록 끝나거든 대사님도 말씀하고 집으로 내려가게 말씀합데다. 장설룡은 그리하자고 부인과 의논하고 그날밤 꿈을 꾸는데 장설룡과 송설룡 부인 부부에 청주 호박 안주 먹어 벤다. 깨고 보이 꿈이로구나. 수록 가서 수록 드리고 난이 송설룡 부인이 대사님 보고 말씀하기를 대사님아 우리가 수록 오건데 하루, 이틀도 안이고, 석달 넘고, 백일이 갓찹읍니다이. 대사님은 지난밤 아무 선몽 없더냐고 말합데다이. 장설룡과 송설룡 부인은 청감주에 호박 안주 먹어 뵙데다. 대사님은 집으로 가서 합궁일 보고 배필을 무어 봅서고 말한다. 장설룡과 송설룡 부인은 법당과 부처님 대사울 하직하여서 내려온다. 집으로 와서 좋은 날짜 합궁 받고 배필을 무난 석달 열흘 백일 너머 사오개월 당하난 송설룡 부인은 먹단 음식 머리저 가고 아홉 열달 되난 땔애기 낙코 보니 칠성단에 공든 얘기라 칠성애기 이름 지워갑데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 어느새 열다섯십세나간다. 장설룡 집으로 서란장 편지가 오기울 장설룡 장송상 배슬 살내오라. 송설룡 부인은 송송상 배슬 살레오라고 설안장 오난 이 칠성애기딸을 엇찌하리. 내가 대리고 가면 어머니가 그리고 딸을 어머니가 대려가면 내가 그리고 엇찌하리 하다가 문과진방에 가두고 느진덕앞에 부탁해서 벼슬 사라올 동안 키워주면 종사리 문서를 없세줄 것으로 약속하고 벼슬 사랑 오져 마음 먹고 문과진방을 마련하고, 느진덕 불러 의논한다. 칠성애기는 문가진방에 가두고 느진덕 보고 문궁기로 밥도 주고, 물도 주면서 우리 벼슬 사라 올 동안 잘 키워 주라고 부탁하면서 벼슬 살레 가젠 하고. 문가진방에 가두운 칠성애기씨는 부모님 벼슬 사리

가는 거 볼려고 방안에서 내 귀을 돌다보니 문트명이 있습데다. 글로 나오고 면올래 숨속에 고바드라 아버지 탄 가나온다. 어머니 탄 가마 나온다. 저 멀리 가 가난 뒤따라 간다. 칠성애기는 뒤따라가다 가보니 삼도전세거리 당하난 아버지 탄 가매는 동으로 가고, 어머니 탄 가매는 서쪽으로 간다. 칠성애기는 엇찌하리 아버지 탄 가매쪽 차갈려이 어머니 탄 가매 일률 것이고, 어머니 탄 가매쪽 차가려이 아버지 탄 가매 일률 것이고. 그도 저도 못하고 울다보니 아버지 탄 가매, 어머니 탄 가마 전부 간 곳 없써진다.

날은 저무러가고 찬이슬이 내릴거고 옆밭을 보이 청새왓이 있으난 청새밭으로 너머가보니 어육폐기 한 그릇 있써진다. 그 어육폐기 으질하고 있는 때 동으로 삼배중 대사 가옵데다. 앞에 오는 대사님 보고 날 대려갑서이. 배인 척도 안 한다. 두 번째 오는 대사님 보고 날 대려갑서이. 배린 책 안하고 너머간다. 세 번째 오는 대사님 날 대려 갑서니 옆눈으로 흘깃 본다. 처나일색 고와진다. 셋째중은 천왕락화 내여녹고 동서리래 흥글치난 칠성애기는 열두신 뼈가 말랑거려지여서 한 좀 안내 드러간다. 청새 비여 끌너만들고 싸간다. 칠성애기씨 도망갈까 또 청새비여 노을 꼬고 둑어간다. 도망이나 갈까 싸간다. 그때에 낸 말로 절에 비고승은 부부 없이 홀로 살고, 태고종은 부부하여 산답니다. 그리고 뒷칠성을 모순 집에 보면 안고팡에나 대왓속에나 보면 주쟁이가 있고 초집줄하여서 가뭄니다. 또 거문시리로도 속에 모심니다. 그리하여 칠성애기는 낫에는 중이 대사 아강배포 속에 살고 밤에는 대사중이 내여녹고 서로 몸침을 드려사는데.

집에서 느진덕은 송설룡 말대로 문궁기로 밥 주고 안 밭고 물 주워도 안 반나 느진덕은 문궁기로 방안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써진다. 느진덕은 집밖에 나와서 동내 사람들 앞에 우리 칠성애기씨 보이드냐고 드러도 보아저란 사람이 없써진다. 느진덕은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 앞에 편지서신 떠워간다. 삼 년 살 공서벼슬 일 년에 끝내고, 일 년 살 벼슬 석 달에, 석 달 살 벼슬 단 삼 일에 끝내고 옵서. 상전님내 벼슬 간 후 얘기씨 상전이 없서젖수다. 편지 바든 장설룡 대감, 송설룡 부인은 서란장 편지 보고 벼슬 사리 끝나고 집에 와서 칠성애기 가둔 방문 열고보이 아무 것도 없서 집데다.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동내방내 도라단이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 얘기나 보아전야고 드러도 보아저란 사람은 없다. 이젠 천만 낙심하고 하루는 장설룡이 낫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것이 칠성애기 선몽이로구나. 아버지 잠수가하난 장설룡은 기여 누워저 내일 모래 우리 집에 삼배중이 시권제 바드레가거든 첫제중 권제 주워

보내고 둘제중도 시권제 주워 보내고 셋제중은 시권제 주워서 문점하면 나올 차질 수 있다고 선동한다. 그때 장설룡은 잠에서 깨여나고서 기다린다. 그날 새고 뒷날 오미시가 당하난 첫 제 중 시권제 주고 보낸다. 둘 제 중도 권제 주고 보내고, 셋제중 시권제 주고 문점한다. 이 셋제중은 시권제 바드래 드러가면서 장설룡 집 면올래 안자노는 쉬는 광큰돌 아래 꿀내기리를 노아두고 드러간 시권제 바드난 문점말이 나오고 셋제 중은 이 얘기씨는 외면 드를만하고 부르면 대답할만한데 있수다고 말한다.

장설룡은 그 중 저 중 묵그라 종들 앞에 말한다. 종들은 총배 물적저 사문절박하진 하난 중이 대사는 보은안개 싸주고 도망간다. 도망가 부난 자지어남 안개 거더간다. 올래로 아기우는 소리 난다. 장설룡과 송설룡이 애기우는 소리 드러올래 박겼나고 보니 올래쉬는 팔돌 아래서 우는 소리로구나. 종들 불러 그 팔돌을 제치고 보니 꿀내기가 있씀데다. 그것을 햇싼보니 머리는 사람이 머리고, 몸은 배염 몸이고, 배는 두릉 배로고나. 천개왕, 백개왕 의논하고, 쇠철이 아들 불백모래 일러 쇠과를 하여 무쇠설캅 먹을 거, 입을 옷 주서 담고, 강남 옥골 미양산 길친밭 한가름서 진넓은 데서 사신룡왕으로 띠워간다.

띠우난 들물에는 서해바당, 쌀물에는 동해바당, 흥당망당 뜨고 단이면서 드러오는 것이 우리 제주 한경면 고산리 차기당산봉으로 들젠하난 대정원님 쐐여지여 못든다. 쌀물에 동쪽으로 흘러오는 것이 표선면 백모래 밭으로 들젠하난 정의현감 쐐여지여 못내든다. 그리하여 북쪽으로 들물, 쌀물고 흘러오는 것이 제주시 산지로 들젠하난 주관관 쐐여 못 들고 들물에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용포로 들제하난 명월 만호가 쐐여지여서 쌀물에 호련풍 만나는 것이 지금 조천읍 함덕리 서모봉알당하난 들도나도 못하여서 있는데 하루는 호련강풍 후내기 절고비로 여우에 지치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함덕은 집이 일곱 거리 있고 신흥은 여섯 거리 집 있는데 함덕 일곱 잠수가 아침 물찌 맛추고 물질을 서모봉으로 드러서 젠가단보이 무쇠설캅이 올아시난 일곱잠수가 나봉았져 나봉갓져 하면서 싸움할 때. 대흘리 사는 송동지 아침 물찌에 고생이 낙거다. 점심 반찬하제 가다보이 함덕에 한동내 사는 잠수가 일곱이 싸움시난 송동지는 일곱 잠수보고 느내들 한동내 살고 매일 한 물에 드러서 물질하여 살면서 무사 사월디말하난. 해녀들은 나가 봉근 무쇠설캅인데 자이가 봉아구라고 하염수게 안이우다 나가 봉근걸 자이가 종아구렌 하염수다이. 송동지는 누구가 봉굴망정 그 안에 은이 들고, 금이 들찌라도 느벼들 갈라았곡 거죽은 날도라 책갑이나하키엔 말한다. 일곱 잠수가 그걸랑 그리함서고 말합데다. 송동지는 무쇠캄열고 하나식 내여노면서 마이거

금이여 은이여 하면서 손으로 잡아던진다. 뱀들은 헉스, 눈은 헛득, 하여가난 더럽다 추접하다 하면서 물질 드러가난 그날은 일곱 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빈망사리 매고 집으로 도라오고 그날밤을 세고 뒷날 아침부터 일곱 잠수집에 승엄이든다. 한집 잠수는 머리아푸다. 또 한 집 잠수는 니 발 아푸다, 가슴 아푸다, 배 아푸다, 생손가락 아푸다, 생발 알려 일곱잠수집에는 큰일이 낫고나 엇찌하리 아는 신해 찾어가서 문점이나 치여보저. -참고- 서쪽 심방들 삼양가물개 이원신 앞에 가서 문점 햇쟁하곡 동쪽은 서화리 김씨 신해차저가 문점해답니다.-

그러서 문점하는 이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으로, 속절지, 죄척이엔 하난. 문점간 사람들은 엇찌하면 좋구가 말하난에 그물건 본데로 가서 잘위망하키엔 하난. 일곱잠수집에는 잘 되여 갑데다. 일곱 잠수집 잘 되난 신흥 여섯이에 사는 잠수들은 함덕에 일곱 잠수 위망하는 데로 가서 위망 적선 하는 것이 신흥 잠들도 잘되고 한데 함덕과 신흥마을 본향은 함덕에 있는 본향을 같이 있썬는지 그날은 모르나하되 마을 본향토 조지관이 정초에나 팔 월 보름 추석 때 보면 자손들이 어데로 가는지는 몰라도 구덕을 지고오고 도라갈 때는 가벼음께 구덕을 옆에 손걸쳐서 들런가 가난 마을토 조지관 본향은 술력을 돌다보니 생각지도 못 한 놈들을 위망적선 하염시난에 서발가 옷 작데기 바다 들러간 해수욕장 모살으로 걸려 캐우린다. 그래서 뱀 여답이 딸은 백몰래 밭에서 낫에는 수부기 남아래 수어살고 밤에는 또 절문이들 놀래 오고 놀다 소변 보고 푸면 뱀수문 순북이나무 우에 갈기면 밤으로 지렁냄새나 살 수 없스난 제주 시로 드러가저합니다.

낫에는 습속으로 밤에는 대로길로 드러오젠하난 지금 함덕. 서물한집과 급수황하늘 좌정한 마련하고 또 제주시로 드러오면서 조천 만세동 산초첨 영기 불이고, 신촌 초등학교 정문 있던 데는 옛날 열러문거리우다. 초첨영기 불이고 지금 신촌 짐도질다 진드루 뱀리 지워서 너머사고 삼양삼동 입구 당히서 큰꽝돌 사람들 드르는 뚩돌이 있썬는데 거기는 뚩돌거리 지우면서 초첨 영기 불이고 제주시 오는 데 지금 오현고와 교대사이 냇창오니 벗가에 물이보이난 배염 일곱 어명이 우리가 함덕에 여기까지 밤에는 대로길로 오면 모든 구듭은다. 스고 낫에 습속길로 오면서 몹지다난 땀냄새여나 이 몸해우고 드러가게 하는 것이 그 때가 삼사월 때인가 알 수 없스나 무근 옷 벼서 세비낭 우에, 탈남 우에, 담궁기에 배염거죽이 있는 식도 되었답니다. 배염 여덟이 딸이 몸모욕하고 도라선 보니 물이 밴직밴직 하여시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린 냇가로이 이름 지우고 또 시내로 드러오면서 교육대 동산올라오니 숨이 밥바진다. 가운데



르동산 이름 지우고 동문으로 들젠오다보니 지금 여상고 자리가 선비들 활쏘기 하고 장원하면 무과급제, 병과급제, 빨간책지 선달 벼슬 바단는데. 옛날 초첨영기 불리고 동문으로 들젠하난 동문이 장겨지고, 남문도 장겨지고, 서문도 장겨지고, 성담 박으로 동쪽 드레오다보니 지금 북초등학교 서알쪽인데 성담 알로 개나 고양이가 들고 나고 할만 한 궁기가 있습데다. 거기로 배염 여덥이 딸 드러와서 관덕집앞에 널분들이 있습데다. 그 돌 위에 여덥이 딸이 노람시난 가고오고하면서 춤을 머리레 몸드레 뱃터 간다. 여기도 좌정할때 못 되다. 또 서쪽으로 너머오다 보이 남쪽으로 조분골목이 있스난 그 골목으로 올라서는 것이 포졸, 라졸들 죄없는 백성잡아다 때려가난 돈 없는 백성 매에 죽어간다 객사골 마련하고 남쪽으로 나오단보니 구대학병원 앞에 동서러래 길이시난 동더래머리돌려 오는데 넷창이 있고 물이 넷창이 흘럼시난 발저질가 남신신고 너머간다. 남신 달깍 남창골 마련하다. 거기서 나오는 게 동문 노타리 나오고 산지 쪽으로 보니 동산이시 난저기가 쉬고 가게 그 동산가 쉬는 것이 잠이 오고 또 배가 분다. 배분동산 이름 지운다. -참고- 그전 일기예보 바난동산됩니다. 글로 이름지워두고 서쪽으로 오다보니 선비, 나졸, 포조리 보인다. 골목으로 가는 것이 지금 칠성통으로 산진물나는 곳으로 간다.

배염 일곱 여덥이 딸 너머 갈저 칠성통 마련하고 산진물에 가서 노누라이. 남문통 송집에 각신가, 매느린가, 딸인가, 잘 모르는데 산진물 세답가고 본이 배염이 노람구나. 모른척하고 빨래하면서 구덕에 노는 데로 하나식 드러간다. 그저진 것을 지고 집에 와 담줄에 서답 너는 데로 터러진다. 여덥이 딸이 그리하난 안내가서 열두폭치마 입고 나와서 우리집에 태운 조상이면 이 치마통에 드러옵서이. 배염 여덥이 딸 전부 드러가난 그것을 들러 안내가서 고팡 드레 모시젠하난. 이궁 저궁기가 만하여진다. 안 되키여 뒷문으로 나간보니 동내 노는 땅이고 유지낭 탱저낭도 있고나 글로 비워 모셔간다. 제사 명질 때 경허난 남문통 송집은 자손이여, 농사여, 일시부자가 되어가난 동내에서 수군수군 거려간다. 말은 몰라도 눈치 배염 일곱 어명이 아라간다.

그리하여 하룬날은 배염 일곱 어명이 딸 일곱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들 지만석 갈라살게 어명하는 말이 한 권데 살다가는 한때에 죽어점직하다이. 결랑 그리 합서고 대답한다. 어명은 큰딸 보고 어데로 가겐느냐이. 큰딸은 창박찾지학구다. 둘제딸 동원 찾지, 셋제딸은 옥지기, 넷제딸은 과원찾이. 다섯제는 마방지기, 여섯제딸은 이궁기, 저궁기, 놀금지기, 일곱제 딸은 청대왓, 백대왓 후 대밭으로 좌정하구다. 한더 어머니는 어데로 각구가이. 어명은 나갈 때도 있저하난. 딸드른 어데우과이 안고팡으로 좌정

하여서. 여름 용서, 오곡나열, 가을용서 육국변성하면 불근향 지세향 거문향 두주과득  
망택이 가득 찾이하곡 또 정, 이, 삽, 사 월까지 명감제로 상바득키여이. 작은 딸은 어  
머님이 제일 잘 감수다고 한이 어머니는 기여 내가 제일 좋은 데로 감저 누내들랑 도  
라다이다. 금요랑 소리 나건 전부 모여들과 밥이 떡이여 각서 출물 바다 두웠다가 갈  
라주마- 그리하여서 칠성본 푸러나면 부군칠바든 것은 웃제반거 어명국 억만 육개못  
곡, 알제밭은 뒷칠성, 동창기, 서창지기, 일곱애기 권권제김니다.

자료15. 「부군, 칠사신본」(원본 자료)61)

No. \_\_\_\_\_ DATE \_\_\_\_\_

부군, 칠사신본.

옛날옛적에 강남쪽에 미양산, 길진발, 장설룡재강과 송설룡부인이 살았다. 그 이후  
길진암도조와지고, 강진암도, 줄이지, 수별간, 수장방거느려진사위도, 삼십사로 넘  
고 사십세가 진장해도 자식생물이 암울세지여서, 걱정이 되여집니다. 한제하운  
발은 동개남산주절, 서개남은 중절부처명직한 대사님이, 부처님에 불공수록을  
이고, 만하운 자주성 인생사는 꽃을 봐려 전제비자, 명암는자, 명도비자주고, 복  
엄자 복도비자주고, 현장, 천절도 수리하진, 시진제비드려대사서, 시진을 빙으려  
드리가운것이, 장설룡재강집으로 드리시는것이, 민을 려왕도하고, 수록을 몰일때, 장  
설룡재강은, 수별간, 불러서, 우리집먼을 봐, 어느집간 대사가 오리시니, 진안으로 청하  
래합니다. 수별간은 장설룡재강팔터로, 올래, 가고보이, 대사님이 있습니다  
수별간은 우리집대강벌이, 대사님을 청하려면 수라이, 대사님은 드리가세. 집한간  
벌이 둘앞으로 업어하마연서, 소송은 절이 백나자이, 장설룡은 시진내여주련하만, 송  
설룡부인은 시진제비여줄테니, 대사님은 시진제비을 빙고사니, 장설룡재강은, 어느집  
대사님이, 황기하고 말하던, 대사는 동개남구장주절부처명직한 대사우하고 말합니다  
장설룡은, 그리하면, 오령팔관, 단수유감과 화주역도 불출 앞서가고 구로난 암기하고  
대답합테다, 장설룡이, 그리하면 우리부부사주관단하여 줄서이, 대사님은, 오령팔관, 단  
수유감집드고, 화주역을 봐고, 하는말이, 대사님은, 갈암후살기는, 살기는 종하늘거느려서  
잘살고 있음바자만, 자식없는것이, 한판이 됨바라고, 대사님은 말을 합제자, 장설룡

7mm × 34行

61) 강대원 심방이 제공한 필사본의 원본이다. 현재 김호성이 원본을 소장중이며, 이를 소개한다.

은 대사님보고, 엊제 하면, 자식 있겠습니까? 대사님은, 금법당이 철성한이 수록을 물리면 됩니라고. 대사님은 말씀하고 걸로, 도라갑테다. 장설룡은 수별감, 수장남 물리서, 대백이 소백이, 울령지, 강령지 온천을 속나지여 백군을 치워서, 아버리에 식지금법당면 군앞에 당도하던 금법당, 광나주지개는, 배발굴적, 죽지간라. 대사님은 속한이 물리 키기하고 보라, 광나주라, 엊제죽구는 냐이 속한이는, 배발굴려죽지하고, 말합지다 대사님은, 장설룡 대감이, 수록드리려온자 진안으로, 침하과이 속한이는 땅을래로 가 침하여, 드리와서, 아버리직 물리시. 부처님 앞으로, 군상에 물장간 물건을, 대주님은 차운 해로, 차운이고, 물장간 날부린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부인은, 편방갈과 살면서 수록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한달, 두달, 석달이 너머간자 한데 대사님은, 아주 잘이 업어지고, 송설룡부인은, 용식이 너간자 장설룡 대감에 가서 하는 말이, 대장법사우리가, 원불수록와 키자루도 안이고, 한달도 안이고, 쇠달너며, 백일이라 되는 데 올서 대월강, 수록 끌어가든 대사님은 말씀하고, 집으로 대려가기, 말씀합지다. 장설룡은 그리하자고, 뷔인과 악돈하고, 그날 밤, 꿈을 꾸는 데, 장설룡과 송설룡부인, 부부에 청주, 호박한주 먹어 뺄 테, 깨고 보니 꿈이 꽃구사수 꽂기서, 수록드리고 난이 송설룡부인이 대사님보고, 말씀하기를, 대사님아, 우리 수록도 것 해 하루, 이틀도 안이고, 쇠달넘고, 백일이 갖 합유니라 어, 대사님은, 지난밤 애우신 꿈 업더라고 말합지다. 이, 장설룡과 송설룡부인은, 청감주에 호박한주 먹어 뺄 테다 대사님은, 집으로 가서 향공을 보고, 배발을 무어 봄새고 말한다. 장설룡과 송설룡부인은 법

7mm × 34行

당과, 무채념, 대사를 하자 하여서 머리를 차. 잡으로 와서 좋은 일자 참궁발고 배필을 주우간  
 석달 열흘 빠운너머 사오개월 당하간 송설룡부인은 역한금식 머리지가고 아홉 열흘 되간  
 풀애기나고, 보니 철성간에 공돌애기라 철성애기 이를 시위 갑되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 어느세 열두 셋십 세어간다. 장현통집으로 서간장 편지가 오아을 장설룡장송상  
 배술 살개오리 송설룡부인은 송송상 배술 살려오리고. 일안장우간 이철성애기 편을  
 엿찌하고. 내가 대리하고 가면 어머니가 그리고 떨을. 어머니가 대리가면 내가 그리고 엿  
 찌하고. 하다가. 운과 진방에 가두고. 느진덕 앞에 부탁해서. 벼슬사과 올동안 기위  
 주면 종사기. 문서을 입세줄것으로 약속하고. 벼슬사랑오자 마음껏. 운과 진방을 마  
 견하고. 느진덕 물려 의논한다. 철성애기는. 운과 진방에 가두고. 느진덕 보고. 세물용기로  
 밥도주고. 물도주면서. 우리 벼슬사과 올동안 잘기위 주하고 부탁하면서. 벼슬 살려가  
 전하고. 운과 진방이 가두운 철성애기 씨는 부모님 벼슬사과 가는거 볼려고. 방안에  
 서. 대개을. 물과 보니. 운로명이. 암습티다. 글로나오고. 먼을 쾌술 속에 고비드라. 아버지한  
 가나온다. 어머니한가파마온다. 저멀리 가가난 뒤파리간자 철성애기. 뒤파리가다.  
 가보니. 삼도전 씨거리. 광하간. 아버지한가매는. 동으로 가고. 어머니한가매는 서쪽으로  
 간다. 철성애기는 엿찌하고. 아버지한가매. 쪽차갈려이. 어머니한가매 일률 것  
 이고. 어머니한가매 쪽차가려이. 아버지한가매. 일률 것이고. 그도. 쪽도 못하  
 고 올라보니. 아버지한가매. 어머니. 한가마친 부간꽃 염려진다. 날은

7mm × 34行

저무리가고 찬이슬이 머물지고, 옆발을 보이 청서원이. 앉으난, 침어발으로 너마  
 가보니, 어죽폐기, 한그루 앉아진다. 그 어죽폐기 으질하고 있수고대. 동으로 상대중에서  
 가을테다 앞에 앉는 대사님보고, 알데려갈서이. 배이쳤듯 안한자 두번제 앉는 대사님보고, 알데  
 려갈서이. 배로책안하고, 너마간자. 세번제 앉는 대사님 말재려갈서이. 옆눈있. 흘깃본  
 다. 차마 일세고 앉진다. 셋제중은 천왕각화에여는. 둑서리래. 흥준치안. 철성애기  
 는 열두신씨가 알갈거려지여서. 한종안내드려간자. 청서비여. 끌너만들고 세간자. 철  
 성애가시. 드망갈가. 또. 청서비여. 높을꼬고. 죽어간자. 드망이가 갈끼씨간다. 그때이  
 낸말로 철에. 배? 승은 부부암시. 흘로살고. 태고종은. 부부하여 산암간자. 그리고. 뒷침성을 모  
 순집에 보면. 앙고황이나 대왕속이나. 보면. 주쟁이가 있고. 초집줄하여여서. 가을내다. 뜯겨운서리  
 로도. 속에. 고심나다. 그리하여 철성애기는. 빛이. 중이. 대사. 아강애포 속에 살고. 밤에는  
 대사중이. 배여는. 서로. 몽장을 드려사는데. 집에서. 느진덕은. 송설룡. 말대로. 문중기로. 밤  
 주고. 안발고. 흘주위도 안반가. 느진덕은. 문중기로. 밤안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엉어진다.  
 느진덕은. 집밖에 나와서. 동네사람들 앞에. 우리 철성애가지. 보이드니고. 드리도 보이지란  
 사람이 엉어진다. 느진덕은.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 앞에. 편지서신 떠워간다  
 청년살공서버슬. 윤현이. 끌내고. 일년살. 벼슬. 쇠달이. 쇠달살. 벼슬한살일에. 끌내고  
 유허. 상제님내. 벼슬간후. 얘기서상진이. 앉아서 젓수다. 편지비단. 장설룡. 대감. 송설룡  
 뿐인는. 서간장. 편지보고. 벼슬사위를 끌내고. 집에 와서 철성애기가. 두방. 운 열고. 보이. 아무것

7mm × 34行

이도 엄마사입니다. 장설룡과 송설룡 부인은 동씨방 깨도 라단이면서 사람들을 맞이, 우리에게서 보아진다고 드리고 보아귀한 사람들은 염자, 이전천만 나침하고 하루는 장설룡이 낮장을 차는 데, 꿈을 꾸는 것이 천성애기, 선봉이로 주자, 아버지갈수하는 장설룡은 기여, 누웠지, 새일, 모래 우리집에 삼배중이, 시진제, 바드리가거든, 첫째중, 친제주위보자, 둘째중도 시진제주위 보내고, 셋째중은 시진제주위보자, 둘째중을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봉한자, 그때 장설룡은, 삼에 치까여서, 기자리하고 날세고 뒷날, 오마시가 당한 첫째중 시진제주위보자, 둘째중도 친제주위보내고, 셋째중은 시진제주위보자, 둘째중은 시진제바드리드리기면서 장설룡집에 물려 안자하는 유는 왕군들 아래 꽂개기, 높아온 드리간 사람제바드간 물질들이 나오고, 셋째중은 이해기에는, 외연드를 만하고, 부르면 대답할 만하게 있습니다, 말한다.

장설룡은 그 중 치중국 그리 중들 앞이 말한다, 종 들은 총 배출제, 서문정 박사 전학난 중이 대사로 보은 앙개씨주고, 흐망간자, 도망가부산, 자자어날 앙개거터간자, 올래도, 아기우는 소리만과 장설룡과 송설룡이, 애기우는 소리 드리를 껴았겠나고, 빼, 끌어쉬는 활들 아래서, 우는 소리로 구나 종, 들을려, 그 활들을 제치고, 빼기 꽂개기가 있슴데다 그것을 뺏간 보자, 머리는 사람이 머리고, 몸은 배역 몸이요, 배는 두름 배로고, 개 천개왕, 빅개왕, 외운하고, 쇠칠이아들 불, 빅모래일리 쇠과를 하여, 쿠쇠 철침자, 빅을 세입을 웃 주자, 강남을 피양산 길친 말, 한가를 서, 진립은 테서, 사신 풍왕으로, 빼위간자, 빼위산, 들물에는 서해바탕, 쌀물에는 통배 바탕, 홍탕망탕, 뜨고한이면서, 드리오는 것이 우리제주한경면, 고산리, 차기당간봉으로

7mm×34行

들전하던. 대장원님께서 여지여곳든다 쌀물에 퉁쪽으로 흘러오는 것이 표선연. 백포래발  
 으로. 들전하던. 정의현각사에 여지여곳내든다 고리하여 북쪽으로 들을 쌀물고 흘러오  
 는 것이. 제주시. 산지도. 들전하던. 주관관. 씨여곳들고. 들을에서 쪽으로 흘리가다가  
 옴포로 들져하던. 명월. 만호가 씨여지여서 쌀물에 흐려풀 만나는 것이. 지금조선읍  
 산적리 서모봉 알광하던. 들도나도 못하여서 안는데. 하루는 흐려강풀. 후세기 청래로  
 여우이. 지치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산적은 집이 일곱거리잇고. 신흥은 여섯거리  
 집인는때 산적 일곱집수가. 아침을 짜앗추고 물질을 서모봉으로 놓자서. 전가 단보이. 무식인  
 킵아울이. 시안 일곱집수가 나봉았지. 나봉 갖자하면서. 사우할 때 대흘리 사는 송동  
 지아침을 짜이. 고성이 나자. 절심 반찬 하체. 가다보이. 산적에 한동네 사는 잠수  
 가. 일곱이. 사원. 시안 송동지는. 일곱집수보. 느벼들 한동네 살고. 매월. 한월에 드리  
 서. 출전하여 살면서. 무사사원이. 훈하던. 해녀들은 나봉. 무식. 헐침. 안데. 자아. 나봉이  
 구하고 하여수지. 안이우하. 나. 나봉. 구걸자이. 나봉. 아구렌. 하여수다이. 송동지는 누구나  
 봄. 꽃. 망. 청. 그. 안에. 운이. 들고. 꽂아. 들. 짜리. 도. 느벼들. 갈라. 았. 국. 거죽은. 날. 도. 라. 채. 갑. 이. 나. 하  
 기. 엔. 말. 친. 하. 일. 꼽. 잡. 수. 가. 그. 걸. 광. 그. 리. 향. 서. 고. 일. 향. 페. 송. 동. 지.는. 무. 씨. 칼. 일. 고. 하. 나. 쇠. 베. 이. 고. 면  
 서. 마. 이. 거. 꽂. 이. 여. 운. 이. 여. 하. 았. 서. 손. 으. 로. 꽂. 아. 여. 친. 자. 백. 들. 은. 하는. 엘. 록. 높. 은. 햇. 드. 흥. 하. 어. 가  
 안. 려. 립. 터. 추. 정. 하. 하. 하. 면. 서. 물. 질. 드. 라. 기. 안. 그. 날. 은. 일. 꼽. 잡. 수. 가. 아. 무. 것. 드. 꽂. 카. 고. 비. 망.  
 사. 리. 매. 고. 꽂. 으. 로. 도. 꽂. 카. 고. 그. 날. 광. 을. 셰. 고. 뒷. 날. 아. 침. 부. 치. 일. 꼽. 잡. 수. 침. 에. 승. 엄. 이. 든

7mm×34行

6

KGU

나 한참 잡수는 머리아파니 뜻한참 잡수도, 머발아파자, 가슴아파자 빼아파자 생수자  
 각아파자 생발, 알진자, 일곱잡수점이니는, 큰일이났고자, 엇지하리, 아는신해찾아가서  
 군절이아치여보리, 침고, 서쪽심방들, 삼양가출개, 이원신앞에가서 군절했쟁하고  
 풍쪽은 서화리, 김시신해차리가 군절해령거라, 그제서 군절하는 이원신이, 눈으로 보고  
 솔으로, 암으로, 속절지, 좌석이안하난, 군절간 사람들은, 엇지하면 종주가 말하난에 그을  
 견본데로가서, 잘위망하기엔하난, 일곱잡수점에는 절회에 갑제다, 일곱잡수점 절회  
 난, 신홍여섯이이시는 잡수들은 함덕이 일곱잡수, 위망하는데로가서 위망직선하는 것  
 이, 신홍잡들호 잘되고한, 세, 함덕자신홍마을, 본향은, 함덕이인는 본향을 같이 있는 배는  
 지, 그날은, 모르니하되, 마을본향호조지간이 정초, 예나, 환월보름 추석폐보먼자  
 손들이, 어티로 가는지은 몰라도, 구턱을, 지고고, 도리갈때는, 가벼움제구턱을 옆에 속걸쳐  
 서, 들린가, 가난, 마을호조지관, 본향은, 솔\_rect을 돌다보니, 영악지도, 웃한놈들을 위망직선하  
 영시간에, 서발기웃작데기, 바다들리가 해수목장 모살으로 걸려가우린다, 그제서 뻔  
 예한이될은, 뻔줄래, 밤에서, 낮에는, 수부기, 낮아래수어살고, 밤에는, 또 절군이들 놀  
 래오고 놀다, 소변보고 푸면 벨수문 솔북이나무 우에 갈기연, 밤으로 자령벌이나 살수  
 암스간, 제주시로 드리가게할거다, 낮에는 습속으로 밤에는 대로 걸로 드리오제하난 지금  
 함덕, 서물한집과 금수황하는 좌정한 마련하고 또 제주시로 드리오면서조천만세동  
 산호천영기물이고, 신축초등학교정문있던데는 옛날 옛리문거리우자 초침영기물이고

7mm × 34行

지금 신촌 절도천의 진드리 뱀터 지워서, 너머사고. 살양산동 입구 당화서 콘방을 차운들 드는 둥들이 있센  
 는데 여기는 풍물거리 사우면서 초월영기 물이 있. 제주시도 옛터 지금 모현고와 교화사 사이 벚꽃 모여 벚  
 가에 출이 보이간. 배역 일곱이 명이. 우리가 할 턱에 여기까지 밤에는 대로길로 오면 모든 구들은  
 다. 스고, 낮에 습속길로 오면서 품지다간. 땅벌어여가이. 몽해우고. 드리가 지하는 것이  
 그때가 산사월 때인가 알수 있사니. 구운 옷 베서. 세비장 우에. 훨씬 우에. 대중기어. 배역  
 거죽이 있는 석도. 되였 할 턱. 배역 여덟이 땀이 품고 육하고 드리운 보리. 물이 배적 빙  
 칙하여 시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진 벗 가로 이름 지우고. 또 시내로 드리운 턱. 교류에  
 통산 올리오니. 숨이 밤바진과. 가운 머금 통산 이름 지우고. 통문으로 들진 모자보니 지증  
 예상. 자리가 선비를. 할 쓰기하고 장원하면. 무과급제 병과급제. 빨간 흑자 선  
 할 벼슬. 바단는제. 옛날 초월영기 물리고. 통문으로 들진 하면. 둑문파장지하고. 남문도장  
 지하고. 서문도장지하고. 성장 밖으로. 동쪽드리운 모자보니 지금 북초등학교 서일쪽인제  
 성남알로 개나. 고양이가. 들고. 나고 할 만한. 중가가 있습 테니. 여기로 배역 여덟이 땀  
 드리와서 관목진 앞에 널분들이 있습 테니. 그 토우에 여덟이 땀이 노랑시간 가고 있으면  
 서, 충을 머리에. 몸드레 뱃차간자. 여기로 좌정할 퍼못되사. 또 서쪽으로 너머 오구 보이 남  
 쪽으로 조문을 볼이 있스만. 그 끝쪽으로. 올라서는 것이. 보줄. 과줄을 죄었는 배성집이다  
 때려가면 돈 없는 뼈성 때에 죽어간다. 개시를 마련하고. 남쪽으로 나오면 보니  
 주대학 평원 앞에 통서리재길이 시간 통서리 머리들려 오는제. 벚꽃이 있고. 물이 벚꽃

7mm × 34行

이 훌륭시난, 빨리 질기, 날신신하고 너머간자 남신 달짝 남창을 마련한다. 거기서, 이웃누개  
동문노타리니오고, 산지쪽으로 보니 동산이시안재기가 쇠고가지 그동산가 쓰는것이 잡아  
오고, 쪼배가 낀다. 배운동산 떠를지운다. 그리고 그전일기예보 비난동산 됨이다.  
글로 이를자위두고 서쪽으로 오니보니 선비, 아출, 표조리보인다. 꿀주으로 가는것이. 차금  
칠성동으로 산진을나는것으로 간다. 배역 일곱여덟이 떨. 너머갈서 칠성동 마련하  
고, 산진을에 가서, 노누라이. 남문동, 송집에 가서 가서, 매느린가. 팔인가 잘 모르는데. 산  
진을, 세집가고 보이 배역이 놓람구나. 보른척하고, 빨래하연서, 구석에 노는터로 하니  
식드려간자, 그저진것을지고, 집에와 담줄에 세집너는터로 허락한다. 여덟이 떨이 그리  
하난, 안내기서, 열두 푹자마. 입고나와서, 우리집비래운 조상이면, 이치아동에 도와옵서이  
배역, 여덟이 떨 전부드려가난 그것을 들판 안내기서, 고팡드려고 시전하난. 이궁, 저궁기가  
간하여진다. 안되어여 뒷풀으로 서간보니, 동배, 노는탕이고, 유제탕, 행제탕도 있었나. 를  
로비위모세간자, 제사 명절 때, 경허난. 남문동 송집은 자손이여 놓사여 일시부자가 되  
여가난 동네에 서. 수운수운 거려간자. 말은 물리도 눈치, 배역 일곱어덟이 아파간다. 그  
고 각하여 하루날은, 배역 일곱어덟이. 떨 일곱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들자만쇠갈라살  
세 어영하는 말이. 한권티 살다가는, 한매에 죽어 전적하나이. 절랑그리합시고 대답한  
다. 어영은 큰털보고, 어비로 가진느나이. 큰털은 창박갖지 학주나. 둘째째 둘째원찾  
자. 셋째째은 옥자기. 넷째째은 과원찾아. 다섯째는. 가방자기. 여섯째째은 이궁

7mm×34行

9

KGU

기. 저공기. 놀습자기. 일곱째 딸은 청어와 뱠재와 촉태발으로 잡아먹혔구나. 한편에  
 어머는 어미로 각주가이. 어명은 아갈 때도 있겠지만, 딸드론 어미우과이. 안고방으로  
 잡아먹여서. 예를 용서. 오죽나열. 가을 용서. 육국 번성하면. 불근행. 자세항. 기운  
 항. 두주과를 망칠이 가득. 찾이하국 풋정. 이. 삼. 사원까지. 영간제로. 상비득기여  
 이. 작은 딸은 어머성이 저일 잘 찾수되고 한이 어머니는 기여내가 저일 좋은데로 껌끼  
 누비들랑. 도리자이자. 금윤랑 소리사전전부. 모여들각. 밥이. 떡이여 각서출을  
 바다두웠다가. 갈라주마. 그리하여서. 철성본. 푸리나면. 부군침마들것은 웃지안리  
 어영죽역만 육개꽃국. 일제발을. 뒷침성. 동창지. 서창지. 일곱번기. 전전제겁니다

— 22 —

— 12월 시작 14월 빛 한시. 10월 22 —

## 『宋高僧傳』4, 義解篇, 「唐新羅國義湘傳」

「송고승전(宋高僧傳)」 의해(義解)편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의 원본과 주석, 해석을 제시한다. 「송고승전」은 중국의 문서이고 번역서가 발행되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은 자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석사에 관한 설화이고, 일본에서도 선묘에 관한 이야기가 전승되어 주목된다. 본고의 이해를 돋고 자료의 폭을 넓히고자 부록으로 수록한다.

### [원문]

釋義湘<sup>62)</sup> 俗姓朴<sup>63)</sup> 雞林府人也 生且英奇 長而出離<sup>64)</sup> 逍遙入道性分天然 年臨弱冠聞唐土敎宗鼎盛<sup>65)</sup> 與元曉<sup>66)</sup>法師同志西遊<sup>67)</sup> 行至本國海門唐州界<sup>68)</sup> 計求巨艦 將越滄波 倏於中塗遭其苦雨 遂依道旁土龕<sup>69)</sup>間隱身 所以避飄濕焉 迨乎明旦相視 乃古墳骸骨旁也 天猶艱霖地且泥塗 尺寸難前逗留<sup>70)</sup>不進 又寄埏甃之中 夜之未央俄有鬼物爲怪 曉公歎曰 前之寓宿謂土龕而且安 此夜留宵託鬼鄉而多崇<sup>71)</sup> 則知心生故種種法<sup>72)</sup>生 心滅故龕墳不二 又三界唯心萬法唯識<sup>73)</sup> 心外無法胡用別求 我不入唐 却攜囊返國 湘乃隻影孤征誓死無退

以總章二年<sup>74)</sup>附商船達登州<sup>75)</sup>岸 分衛<sup>76)</sup>到一信士家 見湘容色挺拔<sup>77)</sup>留連門下既

62) 義湘 : 신라의 승려(625-702).

63) 俗姓朴 : <義相傳敎>에는 金氏로 되어 있다.

64) 出離 : 出家の 의미이다.

65) 鼎盛 : 바야흐로 한창이라고 하는 뜻으로, 鼎은 方의 뜻이다.

66) 元曉 : 신라의 승려(617-688).

67) 西遊 : 서쪽으로 가다는 뜻이다.

68) 唐州界 : 중국으로 가는 나루 정도의 뜻으로 추정된다.

69) 土龕 : 흙굴. 龕室은 신주 또는 불상을 안치하는 곳이다.

70) 逗留 : 滯留나淹留와 같은 말이다.

71) 崇 : 崇자로 보아야 하며, 이 崇는 빌미로 神禍의 뜻이다. 귀신이 나오는 소동을 겪은 것을 말한다.

72) 法 : 존재, 현상.

73) 三界唯心萬法唯識 : 원효의 깨달음의 계이다. 三界는 오직 마음 뿐이고, 萬法은 오로지 識 뿐이다. 삼계는 過去·現在·未來·欲界·色界·無色界를 통칭하는 것이고, 만법은 모든 현상이고, 식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지칭한다.

74) 總章二年 : 당고종의 연호이다. 669년인데, 지엄이 그 전 해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의상이 그때에 당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 본문의 자료가 설화적 윤색을 겪었다고 하는 증거인데, <義相傳敎>에서는 永輝초에 갔다고 되어 있다. 영희 역시 당고종의 연호이나, 650-655년이니 사실과 부합한다.

75) 登州 : 중국의 산동지방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을 무릅쓰고, 등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의상전교>에서는 양자강 하류의 양주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것과 일정하게 부합한다.

久 有少女麗服靚粧 名曰善妙<sup>78)</sup> 巧媚誨之 湘之心石不可轉也 女調<sup>79)</sup>不見答 頓發道心 於前矢大願言 生生世世<sup>80)</sup>歸命<sup>81)</sup>和尚 習學大乘成就大事 弟子必爲檀越供給資緣 湘乃徑趨長安終南山<sup>82)</sup>智儼三藏所 綜習華嚴經<sup>83)</sup> 時康藏國師<sup>84)</sup>爲同學也 所謂知微知章有倫有要德瓶云滿 藏海嬉遊 乃議迴程傳法開誘 復至文登<sup>85)</sup>舊檀越家 謝其數稔<sup>86)</sup>供施 便慕<sup>87)</sup>商船逡巡解纜<sup>88)</sup> 其女善妙 預爲湘辦集法服并諸什器可盈篋笥 運臨海岸湘船已遠 其女咒之曰我本實心供養法師 願是衣篋跳入前船 言訖投篋于駭浪 有頃疾風吹之若鴻毛耳 遙望徑跳入船矣 其女復誓之 我願是身化爲大龍 扶翼舳艤到國傳法 於是攘袂投身于海 將知願力難屈至誠感神 果然伸形 天矯<sup>89)</sup>或躍 蜿蜒<sup>90)</sup>其舟底 寧達于彼岸

湘入國之後遍歷山川 於駒塵百濟<sup>91)</sup>風馬牛不相及地<sup>92)</sup> 曰此中地靈山秀眞轉法輪之所 無何權宗異部<sup>93)</sup>聚徒可半千衆矣 湘默作是念 大華嚴教非福善之地不可興焉 時善妙龍恒隨作護 潛知此念 乃現大神變於虛空中 化成巨石 縱廣一里蓋于伽藍之頂 作將墮不墮之狀<sup>94)</sup> 群僧驚駭罔知攸趣<sup>95)</sup> 四面奔散 湘遂入寺中敷闡斯經 冬陽夏陰<sup>96)</sup> 不召自至者多矣

76) 分衛 : 불교적인 용어로 결식한다는 뜻이므로 시주승 노릇을 한 것을 말한다.

77) 挺拔 : 얼굴이나 인격이 남보다 빼어나다는 뜻이고, 여러 사람 속에서 뽑혔다고 하는 의미.

78) 善妙 : 의상을 사모해서 용이 된 여인이다. 선묘의 설화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광청아기>를 연결하고, 이 이야기가 일본에도 전하고, 일본에서 1220년에 만든 <華嚴宗師繪傳會卷>에 의상과 선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국보로 지정하였으며, 善妙神像, 善妙尼寺, 善妙明神神社 등도 있다.

79) 調 : 헤아린다의 뜻이다.

80) 生生世世 : 몇 번이고 다시 환생하는 일.

81) 歸命 :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의지하다.

82) 終南山 : 중국의 산 이름으로 陝西省, 河南省, 甘肅省에 걸쳐 있으며, 智儼의 지상사가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83) 華嚴經 : <<大方廣佛華嚴經>>의 준말로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불교의 핵심을 고도로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저작인데, 깨달은 사람에게 사실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근본을 설파하고 있다. 중국 당나라의 智儼과 法藏이 이를 근간으로 華嚴宗을 이루었으며, 의상이 이를 학습해서 신라에 전하였다.

84) 康藏國師 : 智儼의 제자로 法藏 賢首(642-712).

85) 文登 : 登州 文等縣이다. 그곳에 青寧鄉赤山村에 張寶高가 세운 赤山法化院이라고 하는 신라인의 사찰이 있었다.

86) 數稔 : 여러 해. 稔(임)은 곡식이 한 번 익는 기간.

87) 便慕 : 곧 상선을 향하여.

88) 遷巡解纜 : 느릿느릿 떠났다.

89) 天矯 : 뛰어오르는 모양.

90) 蜿蜒 : 용이나 뱀이 기어가는 모양. 용이 배를 호위해서 가는 모습.

91) 駒塵百濟 : 고구려의 영토와 백제의 땅.

92) 風馬牛不相及地 : 방일한 말과 소의 숫컷과 암컷이 서로 찾아해매도 이를 수 없다는 말. 風은 交尾의 뜻으로 서로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소식이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뜻.

93) 權宗異部 : 잘못된 주장을 하는 다른 종파. 의상이 화엄종을 일으켰을 때에 다른 종파 주장자의 반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94) 作將墮不墮之狀 : 선묘가 변하여 이루어진 큰 돌이 떨어질 동 말 동하는 모습을 말한다.

國王<sup>97)</sup>欽重以田莊奴僕施之 湘言於王曰 我法平等高下共均<sup>98)</sup>貴賤同揆<sup>99)</sup> 涅槃經八不淨財<sup>100)</sup> 何莊田之有 何奴僕之爲 貧道以法界爲家<sup>101)</sup> 以孟耕待稔<sup>102)</sup> 法身慧命藉此而生矣<sup>103)</sup> 湘講樹開花談叢結果 登堂睹奧者 則智通表訓梵體道身<sup>104)</sup>等數人 皆啄巨[穀-禾+卵]飛出迦留羅鳥焉<sup>105)</sup> 湘貴如說行 講宣之外精勤修練 莊嚴刹海靡憚喧涼 又常行義淨洗穢法 不用巾幘 立期乾燥而止 持三法衣瓶鉢之餘 曾無他物 凡弟子請益不敢造次 伺其怡寂而後啓發 湘乃隨疑解滯必無滓核 自是已來雲遊不定稱可我心卓錫而居 學侶蜂屯 或執筆書紳懷鉛札葉 抄如結集錄似載言 如是義門隨弟子爲目 如云道身章是也 或以處爲名如云錐穴問答等 數章疏皆明華嚴性海毘盧遮那無邊契經義例也 湘終于本國 塔亦存焉 號海東華嚴初祖也[贊寧, 唐新羅國義湘傳],

## [번역]

의상스님은 속성이 박씨이며, 계림부 사람이다. 태어나면서 영특하고, 자라자 출가했다. 자유롭게 거닐며 도에 들어가고, 타고난 성격이 천연스러웠다. 나이 약관에 이르러서 당나라 땅에서 교종이 바야흐로 한창이라는 말을 들었다. 원효법사와 더불어 서쪽 중국으로 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본국에서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에 도착에 큰 배를 구해 타리라 하고, 가는 도중에 험한 비를 만났다. 길 옆에 흙굴이 있어 거기 들어가 습하게 몰아치는 비를 피했다. 이튿날 새벽에 보니, 오래된 무덤의 해골이 걸이었다. 하늘에는 아직 비가 부슬거리고, 땅은 질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 머무르고, 가지 못했다. 다시 흙벽돌 무더기 속에서 자니, 아직 한밤중도 되지

95) 囧知攸趣 :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 趣와 趨는 서로 상통한다.

96) 冬陽夏陰 : 겨울의 낮과 여름의 밤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1년 내내 밤낮없이의 뜻.

97) 國王 : 문무왕.

98) 高下共均 : 고하가 공히 균등하다는 말.

99) 貴賤同揆 : 귀천이 한 가지로 헤아린다는 말.

100) 涅槃經八不淨財 : <<涅槃經>>에 나오는 팔종의 부정재를 이르는 것으로 田宅 殖根栽, 貯聚稻粟居監求利, 奴婢人民, 養<sup>9</sup>群畜<sup>10</sup>, 金銀錢寶, 象牙金 銀刻鏤諸寶大床綿褥毬褥, 一切銅錢金穢 등을 말한다.

101) 法界爲家 : 법계로 집을 삼고.

102) 孟耕待稔 : 밭우로 농사지어 때를 기다림.

103) 法身慧命藉此而生矣 : 법신의 혜명으로 이 몸을 의지해서 산다.

104) 智通表訓梵體道身 : 신라의 승려를 이르는 것으로 화엄의 제자들이다.

105) “師諱慧顥 河北人也 上堂云 赤肉團上 壁立千仞 有僧問 赤肉團上 壁立千仞 豈不是和尚語 師云 是 僧便掀倒禪床 師云 你看 這瞎漢亂做 僧擬議 師便打趁出院 上堂云 諸方只具啐啄同時眼 不具啐啄同時用 僧問 如何是啐啄同時用 師云 作家不啐啄 病啄同時失 僧云 猶是學人問處 師云 你問處作麼生 僧云 失 師便打 其僧不肯 後到雲門會裏 舉前因緣 說不肯 其時有傍僧云 當時南院棒折那 僧聞此語 言下大悟 方見南院答話處 僧卻來汝州省覲 值南院已遷化卻上風穴禮拜 風穴認得 便問” 痘啄同時, 汝州南院禪師語要(南嶽下七世嗣興化), <<古尊宿語錄>>卷第七

않았을 때 잠깐 동안 어떤 귀신이 괴이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원효가 탄식하면서 말했다. “전날 잘 때에는 흙굴에서 편안하기만 했는데, 오늘밤 유숙에는 귀신이 나오는 소동을 겪는구나. 마음이 생기니 갖가지 것이 생기는 줄 알겠다. 마음이 없어지면 굴이나 무덤이나 다르지 않다.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모든 법이 오직 의식일 때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무엇을 구하리오.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노라.” 보따리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의상이 혼자서 가면서 죽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총장 2년에(699년) 상선을 타고 등주의 해안에 이르렀다. 결식을 하면서 어느 신도 집에 이르니, 의상의 모습이 빼어난 것을 보고 그 집에 오래 머물게 했다. 아리따운 차림을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름은 선묘라 했다. 교묘한 눈짓으로 유혹을 해도 의상의 마음은 돌 같아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답을 얻지 못할 줄 헤아리고 갑자기도 닦는 마음을 내서 그 앞에서 큰 소원을 맹세해 말했다.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 스님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의지하며, 공부를 크게 이루고, 큰일을 성취하겠습니다. 제자가 시주를 맡아 필요한 물품을 대겠습니다.” 의상은 장안 종남산에 이르러 지엄삼장에게로 가 화엄경을 익혔다. 그때 강장국사와 동학이었다. 이른바 은미한 것도 알고, 글도 알고, 윤리도 있고, 요긴함도 있으며, 덕의 병이 가득하고, 불경의 바다에서 기쁘게 논다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자 돌아가서 법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조하리라 하고, 문등에 이르러 오래 보시한 집을 찾았다. 여러 해 동안 보시한 데 대해 감사하고, 상선을 타려고 느릿느릿 떠났다. 그 여자 선묘는 의상을 위해 법복을 마련하고 다른 여러가지 물건도 갖추어 상자를 가득 채워서 해안으로 옮겨 갔더니, 의상이 탄 배가 이미 멀리 나갔다. 그 여자가 주문을 외며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법사를 공양하고자 하니, 이 옷상자가 배로 날아가게 하소서.” 말을 마치고 상자를 물결에 던지니, 곧 바람이 불어 터럭처럼 가볍게 들렸다. 멀리서 보니, 가볍게 날려 배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다시 맹세했다. “내 몸이 변해 큰 용이 되어, 배를 부축하고 가서, 저 나라에 이르러 불법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소매를 걷고 바다에 빠졌다. 소원이 지극한 힘은 굽히기 어렵고, 정성이 지극하면 신이 감동하는 줄 알겠노라. 과연 몸이 길게 펴지더니, 뛰어오르며 약동하기도 하다가, 배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맞은편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다. 의상이 입국한 다음에 산천을 두루 돌아보고, 고구려와 백제와는 거리가 멀어 상관이 없을 곳에서 말했다. “이 가운데 땅이 영험하고 산이 빼어난 데서 진실로 불법을 전할 만하다.” 누군지 모를 다른 종파의 무리가 천 명의 반이나 되게 모였으므로, 의상은 말없이 이렇게 생각을 모았다. ‘대화엄의 가르침은 복되고 좋은 땅에서가 아니면 흥하게 할 수 없다.’ 그때 선묘용이 늘 따르며 호위를 하다가 의상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속으로 알았다. 커다란 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허공에서 변해 큰 돌이 되었다. 가로 세로 1리나 되게 사람의 꼭대기를 덮고서, 떨어질 등 말 등하는 모습을 했다. 승려의 무리가 크게 놀라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대며 사방으로 도망쳤

다. 의상이 그제야 절에 들어가, 화엄경을 한 해 내내 밤낮 없이 강했다. 모이지 않아도 스스로 이르는 자가 많았다. 국왕이 공경하고 중하게 여겨 토지와 노비를 보내 시주했다.

# Abstract

MA.(MS.) Thesis

## A Study on the Mythical Character of 「Chilsung Bonpuri」 in Jeju Island : Focusing on the process of immigration in Worship of Property Guardian Deity to Jeju Island

Kim Ho S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 Chilsung Bonpuri " is a myth related to the snake spirit of Jeju Island. It shows the birth, movement and take a seat of a snake god from the outside. It has a vitality because even today, Jeju residents still hold the rite as a shamanism.

The epic of " Chilsung Bonpuri " has a fixed structure of time and space. It's resolve the same event at the same time and space. It shows the process of forming a deity. " Chilsung Bonpuri " describes the process of forming a deity in Jeju Island's special worship of property guardian deity.

And currently being taken, the rite is centered around the family's inside storage and outside storage. This confirms that snake spirit has now been handed down to shamanism, but a family religion lies at the case of it.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related tales of snake spirit, it was configured that the conflict between snake spirit and medieval relig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 snake spirit. It's inferred that the conflicting between ancient snake spirit and medieval religion is important subject of thought.